



1

1981

문예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1. 1호

(루게 399)



◇◇◇◇◇◇◇◇◇◇ 차 례 ◇◇◇◇◇◇◇◇◇◇

신년사	4
해쑥는 새해아침에	9
하늘땅에 넘치는 사랑	10
당을 따라 우리는 가리라	12
영원히 주체의 기치높이	15
락원의 구내길을 걸으시며	16
미더운 그 마음에 받들려	17
해방의 천리길이여 길이 빛나라!	18
장편소설 《연풍호》(김홍무, 현희균, 박효준작)	19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일데 대한 당의 독창적문예방침	20
철령이라 높은 고개	24
락원의 10 명당원들처럼	25
새세대들의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중편소설을 쓰련다	25
뿌리를 깊이 내리겠다	25
탐구의 나날과 함께	26
3대혁명전위들의 형상을	26
그들의 교훈	27
보람찬 년대의 첫자욱을 새기며	33

이삭아, 내 사랑아	34
빛나라, 1980 년대여	35
푸른 기발	36
탄 생 (외 2 편)	46
하나가 천을 이기는... ..	46
더는 늙을수 없다	47
정 문 환 영 (외 1 편)	48
쇠 물	49
금나락 설레이는 들길로 (외 1 편)	49
아슬한 하늘가에 말없이... ..	50
로동당시대 우리 인민의 정서를 훌륭히 구현한 가사	51
현실은 그대로 노래	52
가사문학의 철학성과 여운	53
중편소설 《불꽃》 (박찬은 작)	54
더욱 밝아지는 거리에서	55
청 춘 (외 1 편)	56
철창가에서	57
단편소설의 양상을 다양하게 살리자	58
외우기 쉽고 읊을수 있는 시를	62
빨간 수기	63
통일의 그날은 밝아오리라	73
그런 당일군과 함께라면... ..	76
미 래	77

김일성

신년사

(1981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1980년대의 첫해를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한해로 빛나게 장식한 커다란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희망찬 새해 1981년을 맞이합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인 진군길위에 또하나의 빛나는 이정표를 세우고 새해의 첫아침을 맞이한 우리 인민들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들끓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에 가득차있습니다.

나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신심도 드높이 새해의 첫전투를 시작하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영웅한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지식인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군사과쏘통치의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용감히 투쟁하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총련의 여러 대표단 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여 해외에서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70만 재일동포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1980년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있는 매우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열렬한 축원 속에서 당 제6차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우리 인민이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자랑스럽게 총화하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한 승리자의 대축전이였습니다. 당 제6차대회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투쟁강령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혁명과 우리 조국의 휘황한 앞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대회였습니다.

당 제6차대회가 승리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는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대고조의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 제6차대회를 계기로 전민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의 기운이 한층 높아졌으며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참으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서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력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1980년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 자랑스러운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들은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위훈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당대회를 앞두고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사회주의경

제건설에서 전례없는 일대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완수하였으며 공업총생산액을 1979년에 비하여 117%로 늘였습니다.

채취공업부문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대규모의 탄광, 광산들을 개건확장하고 중소규모의 새로운 탄광, 광산들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석탄과 광물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켰으며 앞으로 그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

금속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가공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기술개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생산의 높은 장성을 보장하였으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그 기술장비를 현대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건설부문의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들의 힘찬 노력투쟁에 의하여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이 많이 일떠섰습니다. 대안중기계종합공장과 김책제철소 압연분공장 령간압연직장, 대동강제1호발전소가 건설되었으며 고원-봉산사이 철도를 비롯하여 600여키로메터의 철도가 새로 전기화되고 대동강텔레비죤수상기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이 조업하였습니다. 또한 혁명의 수도 평양에 웅장하고 화려한 창광거리가 새로 건설되고 평양산원, 창광원,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문화시설들이 많이 일떠섰습니다.

지난해에 농업부문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상기후현상이 매우 심하였으며 그것은 동해안을 비롯한 일부 지방의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온갖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특히 평양시와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비롯한 서해안지대에서 풍작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알곡생산을 최고수확년도인 1979년수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품모와 생활기풍에서는 새로운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숨은 영웅들처럼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숨은 영웅들의 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며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성과입니다.

나는 지난해에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우리 혁명을 또다시 크게 전진시키고 주체조선의 영예를 더욱 빛내인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지식인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1981년은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을 시작하는 보람찬 투쟁의 해입니다.

우리 당 제6차대회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정확한 로선과 투쟁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로선과 방침들은 우리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으로 고무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밝혀준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며 당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 앞에 나선 영예로운 혁명임무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당 제6차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총진군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하여 총진군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는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올해는 충진군의 첫해인것만큼 올해전투를 잘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올해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목표와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용감하게 투쟁함으로써 당 제6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력사적진군의 첫출발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은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잘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 인민생활을 훨씬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준비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력공업에 큰 힘을 넣어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정비보강하고 설비관리도 잘하여 모든 발전기를 만부하로 돌림으로써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력공업부문에서는 경제적효과성이 높고 믿음성이 있는 수력발전소건설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화력발전소와 다른 여러 가지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건설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채취공업부분에서는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대규모 탄광, 광산들에 힘을 집중하여 석탄과 광물 생산을 빨리 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여 전망성있는 채굴후보지들을 많이 마련하며 채굴설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새로운 탄광, 광산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

제2차7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가공공업부문에서 지금 있는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가공공업부문에서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설비관리와 생산조직을 개선하고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세워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자체의 안전한 원료, 연료 조건을 튼튼히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이 부문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생산과 건설에서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수송부문에서 일을 잘하여야 합니다.

수송부문에서는 수송 조직과 지휘를 개선하고 수송사업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당의 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에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실어날라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전기화를 실현한 철도구간들을 정비보강하여 철길의 통과능력을 더욱 높이며 전기기관차와 화차 생산을 훨씬 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와 집배 생산을 늘이고 자동차길과 무역항들을 더 잘 꾸려 자동차수송과 배수송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앞에는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품종배치를 잘하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다시 한번 950만톤의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는 단위당 수확고를 훨씬 높이며 부침땅면적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육종사업과 재배방법을 더욱 개선하며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것은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의 하나입니다.

올해에 경공업부문에서는 모든 경공업공장들의 생산기술공정을 현대화하고 원료와 자재의 보장조건을 개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의 식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는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세우고 고기배들을 만능화, 현대화하며 적극적인 물고기잡이전투를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물고기가공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잡은 물고기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잘 가공하여 맛있고 영양가높은 물고기가공품을 인민들에게 넉넉히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도시와 농촌에서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근로자들의 살림집조건을 더욱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당이 대안의 사업체제와 새로운 농업지도체제를 내놓은 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올해에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대로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고 경제지도사업을 책임적으로 함으로써 새로운 경제관리체제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어 생산과 건설에서 더욱 큰 양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교육, 보건, 체육 사업을 개선강화하며 사회주의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워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장병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부대앞에 맡겨진 모든 군사정치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며 바로 3대혁명을 잘하는 여기에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더 빨리 다그치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영예로운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모든 지도일군들은 새로운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올해전투를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전당과 전체 인민을 총진군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 이것이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승리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는 올해에 각급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의 책임적인 역할과 전체 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운동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리라것을 굳게 믿습니다.

당 제6차대회가 새롭게 내놓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방안은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성있는 방안입니다.

우리는 당이 내놓은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고 조국통일의 숙원을 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남조선과 해외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모든 동포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새해에 그들의 정의로운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지지성원 하여주고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 벗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올해에 자주, 친선,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며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입니다.

동지들 !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은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입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진척 인민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용감하게 투쟁함으로써 올해의 보람찬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십시오.

해쏜는 새해아침에

리동후

서서히 어둠을 밀어내며
푸르습히
동트는 하늘가
한순간 노을이 비끼더니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며
불길처럼 타오르는 해돋이 해돋이

찬란하여라
흰눈 소복이 덮여 봄꿈을 꾸며
은빛으로 번뜩이는 들관우에
붉은 해살
쇠물빛 화광이 어린 제철소의 지붕우에
황황히 불타며 해쏜는 이 아침은

다시는 볼수 없는 황홀경인가
한껏 취하여
청신한 아침의 대기를 마시며
열정 뿜어쏜는 내 가슴속
차오르는 기쁨이여 행복이여

해돋이 빛발에 물들여
아름다운 이 강산
눈꽃이 맺힌 한그루 나무도
늘쌍 걷던 수수한 길도
무심히 볼수 없고 무심히 걸을수 없어라
오늘의 이 아침에
래일의 보람찬 삶을 그려보며

아 그 어디를 가도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고
그 누구를 만나도
자애로운 사랑에 목메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혜를
소리높이 노래하여라

세상에 부럼없는 내 나라
사회주의공업강국의 높은 령마루에서
영광에 찬 10년세월
력사의 자욱을 이 땅에 새기시며

조국을 이끌어오신 수령님

노을 피는 구내길, 산촌의 덩불길에
눈비를 맞으시고 새벽을 맞으시며
환히 웃으시던 아버이 그 사랑
위대한 당 6차대회 연단에서
새 진군길을 가리켜주신 그 손길이
이 아침의 저 장쾌한 해돋이를
이 강산에 펼쳐주신것 아닌가

마음은 푸르려 가없는 하늘갈아라
뜻깊은 이해
밝은 미래를 안은 아침의 해돋이
끝없는 인민의 희망이 비껴
희망찬 그 래일을 안겨주신
수령님 우리르는 뜨거움이 어려
쏜는 해 저러히도 붉고붉어라

하늘땅 높이 만세를 부르며
강산이 설레이던 대축전장
위대한 수령님 우리러
빛나는 10대봉우리 가까이 바라보며 굽이치던
온 나라, 온 누리의 걱정을 안았는가
해돋이 하늘가에 차넘치는
이 나라 인민의 불타는 마음

끝없는 그 감격 그 기쁨에 휩싸여
영광을 드리여라
아 하나의 주체의 빛발속에
이 땅 온 누리가 더 높이 솟아오를 그날을
이해의 첫 해돋이에서 바라보며
수령님 우리러 영광을 드리여라

장엄한 새 력사의 아침을 안고
삶이 만발하는 자주의 빛발을 안고
누리에 솟아오르는 해돋이 해돋이여
아버이수령님의 만수축원을 바라는
세상만민의 념원을 안고
찬란한 공산주의언덕에 빛발치라!

하늘땅에 넘치는 사랑

윤두만

가는 해는 마음속에
아름다운 꽃으로 새겨지고
오는 해는 마음속에
희망의 해빛을 뿌리며 밝아와라

꽃을 안고
빛을 안고
세기의 새 언덕우에
솟아오를 조선
아 그 어디를 바라보아도
미래를 안고 사는
기쁨으로 가득찼구나

내 사는 땅
궁지높은 나의 조국이어
우리 수령님
사랑의 그 길우에
로고의 그 자옥우에
밝아온 이 아침이어서
이리도 우리 가슴
받아안은 행복에 젖는것인가

높이도 올라선
락원의 상상봉우에서
또다시 10 년후의 미래를 내다볼수록
이 아침
더더욱 뜨거움에 목메이는 생각

그날은 언제였던가
가슴속 깊이 무르익혀오신
10 대전망목표를
당대회에서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자고
그리도 간곡히

수령님 말씀하실 때
수령님을 모시고 30 여년
그이의 뜻을 받들어온 일군들
상상도 못한
엄청난 그 전망수자앞에서
놀라움과 흥분으로 가슴뛰는데

밝아오는 조국땅을 한품에 안으시며
힘있게 올리시던 수령님의 말씀
우리 세대에
인민을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을
다 합시다,

아 인민을 위하여
기나긴 반세기
바쳐오신 로고 헤아릴 길 없고
쌓으신 위업 하늘에 닿았는데
그 하늘끝에서 또다시
시작되는 아버지사랑이여!

우리 대에
통일된 하나의 조선
자주의 삶이 한껏 만발한
공산주의봄언덕을
이 땅우에 펼쳐주시려는
높으신 뜻

그것이 한평생의 소원이시기에
세상만복을 다 안겨주시고도
언제나 그 언제나
인민을 위하시는 그 마음
첫 시작이신듯

어제도 오늘도

인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마련해 주시려

깊은 밤 편히 잠 못 이루시고

더 좋은 것이 생각나시여

새벽을 먼저 맞으시는 수령님

그 마음이사기에

꽃피는 봄날

산원을 찾으시여

땅속의 보석도

태어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복도에 깔아놓으니

빛이 난다고 못내 만족해하실 때

수령님 우러러

우리모두 뜨거운 눈물에 젖고 또 젖고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동지설날

동해의 포구를 또다시 찾으시여

벌에는 풍년의 노래요

바다에는 만선의 노래라고

기쁘시여 손수 물고기를 드실 때

그 사랑에 목매여

파도도 은구를 뿌리며 걱정애 설레였어라

언제나 수령님 걸으시는

새날의 첫 자욱도

깊은 밤

잠 못 드시며 이으시는 사색도

인민을 위하시는 사랑으로 끝이 없어

그 날과 달들이

행복의 년륜을 새기며

수천년의 미래를 앞당겨왔거니

세기를 두고

지난날 오막살이 초가집에서

기와집을 그려보던 그 념원

오늘은 우리 사는

창광거리 밝은 창문으로 열리고

살아갈 하루조차 기약할 길 없어

류랑의 눈물

언땅에 얼어붙던

그 인민

그 조국이

오늘은 지평선 가까이

공산주의 새 세계를 내다보게 되었어라

아 찬란한 주체의 빛발을 뿌리며

수령님 가리키시는 길을

찬란한 미래로 바라보며

밝은 마음 안고 사는

인민의 기쁨이여

가는 해 오는 해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도

떠난적 없는 수령님 생각

우러러따르는

그 마음

끝없는 충성의 열정이 되고

위훈의 나래 되어

새해의 이 아침

걸어온 길을 가듯

이렇듯 신심에 넘쳐

휘황한 10대전망의 희망봉으로 치달아오르거니

영광 끝없어라 나의 조국이여

자주의 삶이 꽃피는

해와 해들을 넘으며

더더욱 간절해지는 축원의 한마음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받드는 그 한길에

주체위업의 찬란한 미래가

누리에 펼쳐지고있어라

당을 따라 우리는 가리라

정서촌

1

강산도
사람도
목이 메어
감격에 목메어 흐느껴 울었다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
환히 웃으시며
영광스러운 당대회
주석단으로 나오실 때

함박눈 맞으시며
제강소를 찾으시고
찬이슬 떨구시며
농장의 포전길을 걸으시던
그 친근하신 모습으로
대회장으로 걸음 옮기실 때

일찌기 청년장군의 기상 펼치시며
백두의 설령을 넘나드신 그 걸음으로
천하장강을 다 건너지고
세상풍파를 다 겪으시며
당을 이끄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며
주체의 길을 열어오신 그 불멸의 자욱으로

아, 위대한 수령님 대회연단에 높이 서실 때
이 나라 동해의 물결도
큰 가슴 들먹이며 격정의 파도를 일구었고
오대륙의 산악들도 키를 솟구며
조선을 향하여 장엄하게 설레었나니

이렇게 위대한 사랑의 절정에서
이렇게 뜨거운 충성의 령마루에서
우리 당 6차대회는

2

력사적인 막을 올렸다

공산주의지평선을 환히 바라보며
참으로 높은 령마루에서
조선로동당
우리 당은 영광의 이날을 맞이하노라

시내물이 흘러
강이 되고
강물이 합쳐 바다를 이루듯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백두의 기슭을 떠나온 영광의 대오

폭풍속에서 천이 되고
불길속에서 만이 되고
오늘은 수백만이 뭉친 거창한 대하가 되어
도도히 굽이치며 이 력사의 지점에 이르렀나니

사령부를 지키던 그날의 항일투사들도
당중앙의 불빛을 지켜온 그 초병들도
한마음 성실히당을 받들어온 모든 대표들이
수령님을 우러러 뜨거운 열풍을 일으키는 대회장

아, 엄숙한 이 시각
저마다의 가슴속에
위대한 보고의 구절구절을 새기며
눈이슬 뜨거이 적시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머슴살이 호미자루 쥐었던 손에
제나라 무장을 틀어잡았고
꺾어진 짚신발로 해방의 거리를 지나
푸른숲 설레이는 개선의 광장에서
목이 쉬도록 수령님 만세를 부르던 우리

당을 따라
우리모두 걸어온 그 자욱자욱이
성스러운 주체의 력사가 되어 빛나오르고
우리모두 지닌 작은 생명이
이 자주세기의 령마루에서
가장 긍지높은 삶의 노래로 울리나니

이 아침 노래한다
발머리를 적시며 흘러가는
한줄기의 맑은 샘물도
당이 있어 귀한 생명수 되어
풍요한 이삭을 키워가노라고

탁아소의 요람속에 포근히 잠든
아기의 두볼을 살뜰히 쓰다듬어주며
한오리의 바람결도
당이 있어 행복한 꿈을 고이 지켜주노라고

노래한다
이 나라 창공에 수풀처럼 일떠선
만년대계의 높은 탑들과
무지개 비끼 화려한 분수들과
밤이면 하늘 성좌처럼 반짝이는
그 무수한 창문들이
천세만세에 길이 전할 오늘의 로동당시대를

아, 망국의 설음이 사무치던
민족수난의 그 긴긴밤
한점의 등불이 빛을 뿌려주는
30년대 그 귀틀집 통나무벽에서
한쪽의 지도우에 명맥을 이어가던 조선

그 조선에 피를 주시고
그 조선에 더운 심장이 뛰게 하시여
가장 존엄있고

가장 위력한 주체의 조국으로
20 세기의 상상봉에 받들어올리신
위대한 수령님

밝고밝은 해발속에
온 강산이 설레이는
이 력사의 날에
또다시 손을 높이 드시여
우리의 미래를 가리키신다

3

가리라
우리는 또다시
더 밝은곳으로
더 아름다운곳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당중앙의 해빛같은 령도를 받들어
감격의 파도, 환희의 파도 출렁이며
바다처럼 설레이는 대회장
여기 희망의 등대 높이 솟아
휘황찬란한 우리의 길을 밝혀주나니

아, 안개와 구름을 헤치시며
위대한 수령님 곧바로 가리키시는
우리 당의 행군길
그것은 조선의 길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가 가고
대를 이어 후대들이 가고
제국주의가 없는 혁명의 마지막지점까지
가고 또 가야 할 영광의 길

그 길우에
충진군의 구령을 울리며

그 길우에
 3 대혁명의 기치 날리며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은
 새로운 장엄한 진군을 시작하나니

 누구도 꺾지 못하리
 우리 당의 이 결심
 그 누구도 막지 못하리
 두려움 모르는 우리의 이 전진

 눈보라 사납게 휘몰아쳐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어 피어난
 그 깨끗한 마음에
 천만의 심장을 합치며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우리 식대로 걸음 옮기며
 우리 식대로 신들례를 조이고 또 조이며
 10 대봉우리들 디디고 우리 올라서는 날

 아, 그 령마루에서 바라보는
 조국의 해돋이는
 얼마나 장쾌할것인가
 그날의 조국강산은
 참으로 얼마나 놀랍도록 황홀할것인가

 우리는 가리라
 아직은 웅대한 설계도우에
 하나의 선과 점들로 찍혀있어도
 래일은 강철의 산악이 솟아오르고
 비단의 강물이 흐를곳으로
 지금은 바다밑에 깔려있어도
 래일은 우리의 새로운 군들이 생겨나

가없는 황금의 지평선이 열릴 그곳으로

 한세기는 더 젊어질 나의 조국
 청춘도시 화강암의 푸른 기슭을 거닐며
 사람들은 것처럼 뜨거운 말로
 오늘을 또 옛말처럼 이야기할
 그곳으로

 번영하고 또 번영할
 영광찬란한 이 80 년대에
 우리는 기어이 끊어진 조국의 혈맥을 이으리라
 통일의 광장에서
 민족의 대축전을 베풀고
 5천만 겨레의 간절한 념원을 담아
 어버이수령님께
 만수축원의 노래를 삼가 올리리라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가리라
 위대한 수령님 열어가시고
 영광의 당이 빛내여가는
 그 길우에
 천만의 자욱 따라서며

 아, 가리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그 찬란한 해발속에
 우리의 수령님 또다시
 위대한 승리를 선포할
 그날을 향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의
 그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주체의 기치높이

오영재

세월도 삼가 흐름 멈추고
억만의 심장이 내뿜는
걱정의 환호속에 머물러있었다
아,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셨던
영광의 우리 당대회

밝으신 미소
높이 드신 손길
승업하신 모습에서
우리는 보았다
모진 풍상을 헤치고 넘어온
찬란한 우리 당의 역사를

위대한 총화의 첫장을
그이께서 넘기실 때
주체로 승리한 반세기가
그이 품에 달려와 안기고

메달랐던 세기의 가슴을
진리와 사랑으로 추겨주신
그이의 음성이 연단에 울리자
누리는 엄숙한 침묵속에
조선을 향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주체의 새 역사를
해물로 밝히며 열어간 땅
걸으신 로고의 천만걸음으로
손수 가꾸시고 꽃피워주신
그 모든것이 소중한 나라

변하고 또 변한
아름다운 이 땅을
그대로 연단위에 올려놓은신듯
부럼없는 자주인민의 승리를
그이께서 온 세상에 선언하실 때

지나온 시련의 언덕들도
한없는 궁지의 메부리로 가슴에 솟고
수령님 따라 헤쳐온 초행길이
력사의 큰길로 다져져
시대의 한복판을 흐르고있어라

우리 투쟁속에 흘린 피
로동의 나날에 바쳐온 땀이
이리도 귀중히 빛나는것인가
주체여
인민이 안고사는 위대한 신념이여

믿음으로 씨앗이 뿌려지고
사랑으로 열매가 무르익는 땅
불붙는 창조의 열정이
노을로 피어오르는가
주체여
끝없이 부르며 갈
삶의 노래, 인민의 미래여

수령님 주신 이 사상이 있어
허리띠를 조이던 날에도 웃을줄 알았고
고난에 찬 투쟁도 환희로왔다
이 사상의 빛발을 받아
삶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진리를 알았다

한치의 앞길도 못보던 인민에게
가잡 밝은 미래를 주신 수령님
이 땅이 꺼지도록 쌓일
10대전망목표의 재부를 보며
소리없이 기뻐서 눈물짓는 마음들이
뜨거이 이 사상을 안노라

혁명의 미래가
향도의 빛을 뿌리여
누리는 더 밝아졌다
휘날려가리
오늘의 세계 래일의 세기가
자기의 운명을 다 맡긴
이 주체의 기치를

백두의 푸른 기슭에서
수령님 올리신 주체의 뜻은
거세찬 혁명의 폭풍에 한껏 부풀고
20세기 80년대의
거세찬 흐름위에 높이 나뭇긴다

초행길에 풍랑도 세찼던
이 향로우 저 멀리 수평선에
밝아오는 공산주의노을로
붉게 물든 아, 그것은 투쟁의 기폭

새날의 아침처럼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다
가자, 조선이여 영광의 기치높이
울리며 가자, 존엄에 찬 인민의 발구름소리
누리에 자랑높이
주체의 이 길을 더욱 넓히며
위대한 **김일성**동지!
그이의 존함과 함께 조선이 더 빛나게

락원의 구내길을 걸으시며

한원희

공기함마의 둔중한 메아리
어데선가 은은히 들려오고
방금 태어난 굴착기들이
지축을 울리는 락원의 구내길

한자옥 또 한자옥
못잇을 추억을 새겨가시는듯
아버이수령님 조용히 거니시여라
전화의 날 몸소 찾으시였던
주철직장 민주선전실 옛 프락가

금시 선전실문을 열고
열명당원들이 달려나와
안길것만 같으신듯
한없는 그리움이 어리신 안광
그날의 소중한 사람들을 찾으시는듯
오래오래 서계시는 수령님

그날에 타오르는 등잔불도
그날에 열명당원들이 앉았던 의자도
깊은 감회속에 바라보시며
그이께선 듣고계시여라
어려운 날에
수령님 우러러 맹세올리던
한 녀성당원의 목소리

전쟁이 끝나면
복구건설은 넘려마시라고
아버이수령님께 올리던
그의 목소리

아 세월은 흐르고 산천은 변해도
락원의 그 맹세를 잊지 못하시는
수령님의 그 사랑
락원땅을 찾으실적마다
그 녀성당원이 좋은 동무였다고
언제나 안겨주시는 그 믿음

그이의 사랑속에
공장이 자라나
나라의 첫 탑식기중기를 만들었을 때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며
락원이 일을 잘하니
그때 그 녀성당원이 보고싶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고

산악같은 굴착기 무어낸 오늘엔
무쇠팔뚝이며 억센 무한궤도에서
그날의 열명당원들의 의지를 보시는듯
그때 그 동무들이 어데 있는가고
다시 또다시 물으시여라

전화의 날에 그러보던 미래가
오늘에 찬란히 꽃피었고
그날의 그 맹세 그 녀원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룩되었건만
어이하여 세월이 흐를수록 잊지 못하시는가

무너진 지붕 불탄 철골들
가진것이란 빈주먹밖에 없었던 그때
수령님 계시여
숫구치는 힘을 안고 신념을 안고
그날의 그 맹세를 올렸건만
오히려 자신께서 힘을 얻으셨다고
두고두고 하시는 말씀

아, 수령님은 인민을 믿으시고
인민은 수령님만을 우러러따르며
준엄한 시련을 헤쳐온 나날들이
이 나라 력사로 빛나고있어
내 조국은 주체의 강국으로 일떠서지 않았는가

아버이수령님
락원의 민주선전실 옛 프락을
걸고 걸으시며 듣고계시여라
나라가 번영하고 기쁨이 넘쳐날수록
더더욱 못잊으시는 그날의 그 목소리
전쟁이 끝나면
복구건설은 넘려 마시라고
아버이수령님께 올리던
그의 목소리

아,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높아지는 신념의 목소리
아버이수령님 높이 모셔갈
인민의 한마음

뜨거운 한마음이
이 땅에 영원한 노래로 울려가리라!

미더운 그 마음에 받들려

정영호

흰구름이 이마를 스치는
아슬한 하늘길에
그 어느새 먼저 날아올랐는가
한사람 또 한사람
반기여 손을 잡아주는
우리 소조원

사나운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
층층 철사다리우로
한계단 또 한계단 오르던 걸음을
조용히 불빛을 비쳐주며
이끌어주던 그의 손길

모진 눈보라속에
내렸던 철탑에로
선뜻 다시 오르기 저어할 때
창너머 비껴오는 용접의 푸른 섬광에
비쳐오던 낮익은 그의 모습
아, 저마다 눈굽을 적시며
철탑에 뛰어올라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가

한방울의 기포라도 있을세라
고르로운 용접물을 덧엮어가는
나어린 용접공의 남모르는 그 마음이
대문짝같은 속보판에 나붙은 날
그 누구도 몰랐더라
한밤에도 설참에도 그와 함께 지내며
그의 새 창안을 도와준 소조원의 마음을-

어마어마한 철골들을 통채로 묶어올리며
사람들도 기증기도
소리없는 불안으로 설레이던 새벽

남먼저 용접기를 틀어쥐고
천장대들보로 날아오를 땀
저마다 마음속으로 뜨거이 불렀다
-소조원동무!

미덥다
땅우에 옮기던 우리의 첫걸음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허공중 하늘우에 힘있게 내디디라고
아슬한 철탑에 마음의 층계를 놓아주며
불러주고 떠밀어주는 혁명의 전위여

은혜로운 당중앙의 손길따라
보람찬 3대혁명의 길에
한치도 드림없으라고
언제나 어디서나 살피주는 그
따르며 힘이 솟고
배우며 자라거니

옮기는 걸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나래를 달아주며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당중앙을 받들어
높은곳에서 높은곳으로 이끌어주는

아, 미더운 그 마음에 받들려
철탑들은 소리치며 솟아오르고
높아지는 철탑과 함께
당중앙이 바라는
우리모두 충성의 높이로 날아올라라

광복의 천리길이어 길이 빛나라!

최진용

해방의 천리길에 눈이 내린다. 높고 험한 랑림산맥의 그 많은 령길과 고개길, 가도가도 끝없는 숲속길로 이어진 연연 천리길에 눈이 내린다.

하늘을 찌를듯 창날처럼 치솟은 아아한 메부리에도 길가의 샘터에도 푸른 우산처럼 가지꺾친 잣나무우에도, 그리고 백포자락을 날리며 생각깊은 자욱을 옮겨가는 해방의 천리길 답사대원들의 어깨우에도...

내리고 쌓이며 무엇을 속삭이기에 이리도 정겨운것일까. 길은 길마다 어디로 뻗었기에 이리도 그리운 생각을 불러내는것일까.

아, 눈이 내린다,

아버이수령님 오늘의 행복을 위해 걸어가신 력사의 그 길을 잊지 말라고 주체의 조국, 락원의 강산에 함박눈 내려내려 쌓인다.

1925년 1월 22일!

력사의 그날이 가슴에 뜨거이 젖어든다.

하늘을 보아도 그날의 자량이 가슴넘치게 안겨오고 땅을 보아도 이 길을 이어 오늘에 사는 영광 끝없다.

그러나 력사의 그날 조국은 얼마나 큰 시련에 몸부림치고있었던가.

얼마나 큰 원한과 분노가 이 강산에 사무쳐있었던가.

지원의 해불을 높이 추켜드시오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험로를 헤쳐가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 또다시 일제원썹들에게 체포되시었다는 가슴아픈 소식에 접한 남산의 푸른 소나무도 봉화산의 락락장송도 칼바람 휘몰아치는 북쪽하늘을 바라보며 원한에 뒤설레였고 남북으로 이어진 연연 산맥들도 분노를 안고 숙연히 고개 숙였다.

이날,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새겨안으신 가슴에 또다시 이 비통한 소식을 받아안으시고 만경대의 고향집을 하직하시느 민족의 태양 김일성원수님의 감개는 얼마나 비장하시었던가.

불별에 타드는 밀보리에 물초롱을 기울이시던 발이랑이며 저녁노을이 비길 때까지 책장을 번져가시던 만경봉의 학습터, 아름다운 이 땅과 맑은 물을 더럽히며 강우에 배 띄우고 홍청거리는 일제놈들을 증오에 찬 눈길로 바라보시던 강언덕들, 추

억으로 더듬기에는 너무도 가슴아픈 고향의 그 모든것이 차디찬 눈속에서 떨고있었다.

여덟살 어리신 나이에 떠나시였던 그리운 고향 만경대, 그 어리신 나이에 류랑민의 피눈물이 자욱마다 고여있는 랑림산맥의 높은 령 고개를 넘어가신 력사의 새벽길 천리 이국의 하늘밑에서 얼마나 자주 꿈결에도 그리시던 고향이시던가. 거칠은 산야에 눈보라 일어도 만경봉 푸른숲의 설레임소리 들으시였고 봄이면 진달래꽃향기속에 그리시였던 만 열두살에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 찾아오신 조국은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그이를 맞이했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날에 바라보신 조국, 그것은 세상밖에 버려진 헐벗은 고아였고 풍랑세찬 바다우에 떠도는 난파선과도 같은것이였다.

그렇다, 그날의 조국 그것은 한되박의 장리쌀에 집과 농토를 빼앗기고 정처없이 떠나는 이웃의 얼굴에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이였고 병들어 누워도 약 한첩 쓸수 없어 싸늘히 식어가는 너인의 참담한 모습이었다.

하늘이 그대로 총창으로 막히고 땅이 그대로 쇠사슬에 얹힌 감옥, 이것이 바로 그날의 조선이었다.

노예의 채찍에 찢기고 터진 겨례의 모습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와 지주는 한하늘을 이고 함께 못살 철천지원썹이라는 혁명의 진리를 마음속깊이 새기시였고 이 땅, 이 강토, 이 인민의 힘으로 원썹과 싸워 조국을 해방하실 굳은 맹세다지시였다.

아, 그날 해방의 첫걸음을 내디디시는 아버지수령님께 우리 인민이 드릴수 있었던것은 할아버님께서 밤새워 삼으신 두컬레의 짚신과 할머니께서 보자기에 싸주신 너무도 간소한 길량식-이것이 전부였다.

력사의 그날 평양역에 울려 퍼진 기적소리여 이야기하라.

너는 얼마나 구슬픈 목소리로 피나리보짐에 쪽박을 차고 어둑컴컴한 3 등차칸에 몸을 실은채 북간도로 떠나는 하많은 나그네의 서러운 가슴을 에이게 했던가. 너는 얼마나 찢어지는듯한 그 철의 떨림소리로 쫓겨가는 남편, 팔려가는 딸을 바래우는 이 나라 너인들의 가슴에서 피눈물을 자아내게 하였던가.

실어오느니 불행이요, 실어가느니 애틋한 생리
별과 앞날을 기약할수 없는 겨레의 암담한 운명이
였다.

간악한 일제의 총검이 이 땅을 짓누르는 한에서
는, 노동자, 농민의 피땀을 짜내는 지주, 자본가
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국의 독립도 인민의 행복한
장래도 바랄수 없었기에 결연히 혁명의 길에 나서
시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는 높이 솟은 험한 령, 뒤에는 그리운 만경
대고향집과 혁명의 뜻을 키워온 칠골의 정다운 산
밭들...

그리움은 끝이 없으시였건만 고통받는 이 땅에
서 천만겹으로 얹힌 쇠사슬을 토막쳐 끊고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의 천리길에 나서시였다.

어리신 원수님께서서는 해방의 길을 걷고 걸으시
였다.

이 나라 북방에 높이 솟은 험한 령 개고개, 그
뒤에 첩첩 솟아있는 눈보라 사나운 천고밀림의 오
솔길... 그 길은 조국의 찬란한 앞날을 주름잡아나
가시는 해방의 길, 맹세의 길이었다.

조국의 북변을 감돌아흐르는 압록강을 또다시
건느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감회는 얼마나 깊으셨
으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때를 회상하시
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열네살 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
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
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
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
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그날에 부르시던 《압록강의
노래》는 지금도 구절구절 귀전에 들려오는듯.

.....

압록강의 푸른 물아 조국산천아
고향땅에 돌아갈 날 과연 언젠가
죽어도 잊지 못할 소원이 있어
내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가리라

조국땅을 떠나는 겨레의 피눈물나는 사연이 구
절마다 담겨있는 이 노래에는 또한 조국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 자각과 함께 한목숨 바쳐 기어이 조국
을 다시 찾을 결의가 굽이쳤거니.

나라 잃은 민족의 그 아픈 심정과 념원을 안으시
고 눈보라 만리, 불길 만리 항일혁명의 폭풍속을
헤치시고 조국해방의 성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서 계시여 주체로 빛나는 오늘의 조국이 있고 찬란
한 래일이 있는것이 아닌가.

눈이 내린다. 어버이수령님 걸어오신 불멸의 자
옥우에 흰눈송이 조용히도 내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 제6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밝혀주신 혁명의 대강을 받아안고 주체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찬 걸음 옮기는 우리의 마
음속에 끝없는 생각을 불러내며 눈이 내린다.

이 땅의 모든 길은 시작과 함께 끝이 있다. 그러
나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이 길, 만경대초가집
에서 시작되어 인류의 영원한 미래에로 뻗어간 이
길에 주체의 붉은 노을 피우며 우리는 가고 또 가
리니 우리 세대가 걷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걸어갈
영광의 천리-해방의 천리길이며 력사우에 길이
빛나라!

새로 나온 책

장편소설 《연풍호》 (김홍무, 현희균, 박효준작)

국판, 431 페이지, 문예출판사 발행

최근 문예출판사에서 장편소설 《연풍호》를 출판하였다.

소설은 우리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여 세기적숙원을 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갈망해오던 물
문제까지 해결해주시는 그 은혜로운 사랑과 연풍지구의 전변의 역사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이 소설은 지난날 물로 인한 농민들의 불행을 직접 겪은 열두삼천리벌 버드내마을의 순박한 한 청년이
연풍호건설에 참가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참된 일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일데 대한 당의 독창적문예방침

김하명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있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1980년 1월 8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강령적인 문예방침을 제시하였다.

현명하고도 정력적인 령도로 1970년대에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우리 당중앙은 1980년대의 첫 새해벽두에 우리 작가들에게 동맹 제3차대회를 가지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고 귀중한 가르침을 줌으로써 우리 문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뚜렷한 방도를 밝혀주었다.

당이 제시한 문예방침에는 현시기 우리 나라의 혁명정세와 우리 문학의 실태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이 주어져있으며 현실의 발전과 함께 우리 작가들앞에 나서고있는 파업과 그 실현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으며 공산주의문학건설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이 주어져있다

실로 우리 당중앙이 제시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독창적인 문예방침은 주체시대 공산주의문학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위대한 강령이다.

이 문예방침이 현시기 공산주의문학건설의 위대한 강령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공산주의문학건설을 위한 파업과 공산주의문학건설의 본질적특성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는데 있다.

문예방침에는 우리 작가들앞에 오늘의 벅찬 현실과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사상정신적면모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차게 불러일으켜야 할 영예로운 파업이 나서고있는 현실적요구로부터 그리고 문학예술전반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성으로부터 문학의 수준을 한계단 높여야 한다는것이 지적되어있다.

현시기 우리 작가들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로운 파업과 문학의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을 밝힌 당의 가르침은 현실과 문학과의 관계, 전반적인 문학예술발전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3대혁명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고 온 사회에 충성의 열정과 전투적기백이 흘러넘치는 일대 혁명적양양의 시기에 처하여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이 이룩되고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으며 그들의 사상미학적요구도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특히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힘차게 벌어지면서 온 사회에 숨은 영웅들처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려는 지향이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우리 나라의 이렇듯 장엄하고 영웅적인 현실은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더욱 빨리 높이며 그것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바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이 사상예술적수준에 있어서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이러한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보다 큰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당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아직 우리의 소설, 시, 아동문학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혁명과 문학과의 관계,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와 문학의 실태를 깊이 헤아리고 우리 작가들앞에 문학작품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차게 불러일으킴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당에서는 문학의 형태상특성과 그리고 문학이 문학예술의 전반적형태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전반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문학의 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영화와 가극, 연극을 비롯하여 음악과 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예술형태들이 모두 문화에 의하여 사상적내용이 규정되고 형상의 기초가 마련된다. 우수한 문학작품이 먼저 나오지 않고서는 영화와 가극, 연극을 비롯한 여러가지 예술형태들을 시대의 요구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조발전시킬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당과 혁명, 력사와 인민 앞에 지니고있는 작가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그 사명이 더없이 영예롭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당에서는 작가들앞에 이렇게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하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공산주의문학이 갖추어야 할 사상예술적풍격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주었다. 다시말하여 오늘 우리가 건설하는 공산주의문학이 사상예술적으로 어떤 본질적특성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상을 가질수 있게 독창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이 밝혀준 공산주의문학의 사상예술적풍격과 그 본질적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적으로 의의있고 참신하며 철학적으로 심오한 종자를 잡아쥐고 그것을 아름다운 형상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문학이라는데 있다.

종자는 작품의 생명을 담보하는 사상적핵이며 그 가치를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인것만큼 종자가 똑똑하지 못한 작품은 사람들에게 깊은 사상적충격도 예술적감흥도 줄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으로 들끓고있는 현실속에 들어가 사회적으로 의의있고 참신한 종자를 찾아내야 한다.

공산주의문학의 본질적특성은 또한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인간,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화폭의 중심에 형상하며 그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뚜렷이 밝혀내어 그 모범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데 있다.

당에서는 이 문예방침에서 우리의 문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려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었다.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인 주체형의 새 인간들은 정치사상적측면에서나 정신도덕적측면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투철하게 체현한 사람들로서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반들고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충성심이 높으며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풍모를 지닌 참다운 혁명가들이다.

이 현명한 문예방침에 의하여 이처럼 우리 시대의 영웅, 주체형의 인간이 지니고있는 성격적특성이 명확히 밝혀지고 그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이 문학의 주요한 과업으로 제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이

건설하는 공산주의문학의 사상예술적품격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혀준 공산주의문학을 특징짓는 주요한 특성의 다른 하나는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철학적깊이를 훌륭히 보장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독창적문예방침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철학적깊이가 작품의 정치사상적품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된다는것이 밝혀지고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에 대한 고전적정식화가 주어짐으로써 우리 작가들은 공산주의문학을 건설하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높은 사상예술성을 믿음직하게 보장할수 있는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질수 있게 되었다.

문학예술은 한낱 심심풀이나 유희거리로 보는 각양각색의 부르조아문예사조들은 도대체 작품의 사상성 그자체를 거부하는것만큼 거기에서는 사람들의 세계관형성과 관련되는 철학성이나 철학적깊이에 대한 문제가 논의의 대상으로 제기될수 없다. 그런 까닭으로 하여 반동부르조아문학은 참다운 사상예술적가치를 가질수 없으며 인간교양의 수단으로 될수 없는것이다.

주체의 공산주의문학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이바지하는 그 사명으로부터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교육사업과 문학예술은 근로자들 교청소년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것을 자기의 기본과업으로 내세워야 하며 그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 주체의 공산주의문학예술은 그 어떤 주체의 작품이든지 결국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오늘의 우리 인민들은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의 최고단계로 되는 공산주의문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그의 요구를 가장 철저하게 구현한 문학이며 사상예술적으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문학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산주의문학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는 그의 철학적깊이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당에서는 일찍부터 문학예술창작에서 사색과 탐구를 깊이 하여 철학성을 보장하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었다. 그러나 당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우리 작가들과 리론가들의 창작실천과 문예활동에서는 아직 많은 문제들을 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창작실천에서 보면 사회정치적문제에 대한 정론적서술로써 철학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할수도 있으며 문예론설에서는 흔히 사상성의 측면에서만 문제를 고찰하는 편향이 나올수 있다.

당중앙은 문학작품에서 철학적깊이란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과정의 총체를 말한다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었다.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성, 그것은 형상을 통하여 인간문제, 인간생활의 근본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어 사람들의 세계관형성에 이바지하는 사상의 심오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형상의 옷을 입지 않은 사상은 교양적기능을 수행할수 없으며 예술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

다시말하여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는 사람들이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어떻게 보람차게 살며 투쟁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그 사상미학적해답의 정당성과 심오성의 정도에 의하여 규정되며 인간생활의 진실한 형상을 통하여 밝혀진 그 사상이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작용하는 교양적힘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그 철학적깊이의 정도가 설정된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이 문학작품에서의 철학적깊이에 대한 리론을 독창적으로 새롭게 밝힘으로써 우리 문학은 공산주의문학의 풍격에 맞게 철학적깊이를 훌륭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당의 방침에는 공산주의문학의 사상예술적풍격과 교양적기능이 선행시기의 그 어느 문학보다도 높은것만큼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가장 높은 예술적일반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상이 강조되어있으며 그것을 저해하는 자연주의의 표현형태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주어져있다.

자연주의는 현실을 현상적으로, 기계적으로 묘사하며 생활의 본질과 진실을 외곡하는 부르쥬아 문학예술의 주되는 사상조류이다.

사상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에서는 부르쥬아문학예술에서와 같은 그러한 자연주의현상은 이미 오래전에 극복청산되었다. 그러나 그 잔

재는 아직도 이모저모에서 나타날수 있다는데 대하여 망각해서는 안된다. 당에서는 이 독창적인 문예방침에서 오늘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에서도 사회주의현실을 미화분식하고 과장하거나 형상적비유의 외곡을 쓰고 현실을 외곡하는 방법으로 자연주의가 나타날수 있다는것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건전한 토대 위에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뚜렷한 방도를 밝혀주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이 공산주의문학건설의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것은 또한 이 방침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심화되고있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맞게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고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방도가 명확히 밝혀져있기때문이다.

당에서는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그 종자를 기초로 하여 형상의 꽃을 피우며 고상한 정신세계를 체현하고있는 새로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성격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하려면 무엇보다도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이 강령적문예방침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공산주의문학을 건설하기 위하여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여야 할 필요성과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져있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원래부터 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 창조자인 작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예술실무적으로 준비시키는것을 중요한 제기하고 있다.

당의 이 문예방침에는 작가들의 사상예술적준비에 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포괄하여 원리적으로 심오하게 밝히고있으며 그 리론을 집대성하고 정연하게 체계화하였다.

방침에서 밝힌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일데 대한 리론은 사람이야말로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존재인 까닭에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되며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설정하고 사람의 모든 활동을 좌우한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심오하게 구현하고있다.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정치학습을 잘하여야 한다고 방침에는 밝혀져있다.

당에서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문학창작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작가들의 사상의식이다. 먼저 사상의식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작가의 창작적기량도 그가 창작하는 작품의 형상성도 높일수 없다.

로동계급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은 그 사명과 성격에 있어서나 그 사상리론적기초와 창작과정에 작용하는 요인들과 법칙들에 있어서 선행시기의 그 어떤 문학과도 같지 않다.

공산주의문학의 창조와 건설은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인류문학발전에서의 초행길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공산주의문학이란 어떤것이며 그 본질적특성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밝히는것과 함께 또한 그러한 새로운 문학을 어떻게 발전시킬것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은 불멸의 사상을 구현하여 문학작품창작의 직접적주인인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데서 공산주의문학건설의 근본방도를 찾아주었다.

작가들의 사상의식, 그들의 세계관은 작품의 종자를 골라잡는데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형상으로 꽃피우는 전과정에 작용하는것만큼 그들로 하여금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연구체득하여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는것은 주체의 공산주의문학건설에서 반드시 앞세워나가야 할 근본문제이다.

그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며 그를 구현하고있는 당의 주체적문예리론과 방법에는 공산주의문학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져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문예사상과 방침을 깊이있게 체득하면 자연과 사회, 인간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올바른 혁명적 립장과 관점에서 정확하게 분석평가할수 있으며 그것을 문학작품에 잘 형상할수 있다.

작가들은 정치학습을 잘하는것과 함께 혁명적독서기풍을 세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며 우리 나라의 고전문학작품들과 다른 나라의 문예서적들도 널리 읽어 박식가가 되여야 한다.

당의 문예방침에서는 정치적식견을 넓히며 예술적자질을 높이는데서 작가들의 현실체험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작가의 현실체험은 창작에서 사상에술적질을 높이는 근본요인의 하나이다. 그것은 문학이 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에 비추어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한것이기때문이다.

작가들은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우리 인민의 장엄한전진운동을 정확히 리해할수있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무한한 충실성과 그들의 념원과 지향, 불굴의 의지를 깊이 파악할수 있으며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혁명적세계관을 완성해나갈수 있다. 또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탁상우에서는 배울수 없고 익힐수도 없는 다방면적인 새롭고 풍부한 지식을 얻을수 있고 인민대중의 리해와 사랑을 받는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을 쓸수 있다.

현실체험을 깊이한 작가만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밝힐수 있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현상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는것이다. 작가는 언제나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체험을 깊이할 때에만 창작적로쇠를 모르고 혁명적열정과 나래치는 창작적환상으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왕성하게 창작을 계속해나갈수 있다.

이 력사적인 문예방침에서는 작가의 창작적기량을 높이는 문제가 공산주의문학건설에서 그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밝히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날수 있는 편향들을 미리 바로잡아주었다.

당에서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작가에게 있어서 창작적기량은 생명과 같은것이며 작가의 자질을 규정하는 기본징표로 된다.

작가들의 창작적기량에 대한 리해에서는 이러저러한 편향들이 있을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이 바로서고 높은 정치적식견을 가지기만 하면 창작적기량은 거기에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것처럼 리해하면서 기량을 련마하는 문제를 홀시할수도 있으며 반면에 창작적기량을 순수 재간놀음으로 잘못 리해하고 이 문제를 정치사상적준비와의 밀접한 관계속에서 보지 않을수도 있는것이다.

당에서는 작가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의 본질적내용, 그것이 창작에서 노는 기능의 독자성을 밝히는것과 함께 그것들을 높이는 기본방도를 밀접한 통일적인 관계속에서 해명하였다.

이 방침에 의하여 정치학습을 강화하며 혁명적독서기풍을 세워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생활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며 현실체험을 강화하는것이 작가들의 정치적식견을 높이

는 방도로만 되는것이 아니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 방도로도 되며 또한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작가의 창작적사색은 바로 그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의 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이 새롭게 밝혀지였다. 그리하여 작가들의 사상예술적준비에 관한 견해에서 나타날수 있는 편향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공산주의문학의 사상예술성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되였다.

우리 당의 이 문예방침에서는 특히 문학예술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이 공산주의문학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며 그것을 건전한 토대 위에서 급속히 개화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는것이 강조되였다.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건설되는 로동계급의 공산주의문학에 대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리념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전위부대인 로동계급의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문화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합법칙적요구이다.

우리 나라에서 문화건설의 실천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문학예술분야에서 당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당중앙의 의도와 방침들을 제때에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함으로써만 우리는 주체의 문학예술, 공산주의문학예술을 우여곡절이 없이 곧바른 승리의 길을 따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사상사업의 전초선이며 작가는 이 전초선을 지켜선 문예전선의 초병들이다. 우리 작가들은 오직 당의 지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자신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 공산주의문학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현명한 문예방침에는 현시기 우리 문학발전의 방향과 과업으로부터 공산주의문학이 갖추어야 할 사상예술적품격과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는 방도에 이르기까지 주체문학건설의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체계정연하게 그리고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져있다.

이 강령적문예방침에서 밝혀진 리론실천적문제들, 의의있는 종자의 탐구와 주체형의 인간전형의 창조문제, 문학작품에서 철학적깊이에 관한 문제, 현시기 우리 문학에서 나타날수 있는 자연주의적경향의 표현형태에 관한 문제, 작가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의 본질 및 그 호상관계, 그것을 높이기 위한 방도에 관한 문제 등 공산주의문학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키는데서 불멸의 기여로 되며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시위하는 우리 인민의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

지난 1년간 우리 작가들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혀준 길을 따라 그 영예로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우리의 문학건설에서는 작품의 정치사상적품격과 예술적가치에 있어서나 창작기풍에 있어서 커다란 혁명적인 전변을 이룩하였다.

실로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멸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인류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과 투쟁의 진리를 밝혀주는 생활의 교과서로, 자주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는 전투적기치로 되여있다.

우리 전체 작가들은 당중앙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가리키는 빛나는 길을 따라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혁명의 총책임무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가사

철령이라 높은 고개

조령출

철령이라 높은 고개 봄철에도 눈이 있네
눈보라가 치던 날에 포를 끌고 넘은 고개
못잊어라 그 전사들 그 이야기 못잊어
바람 세찬 령마루에 진달래는 피어나네

철령이라 높은 고개 사연 많은 고개길에
넘어가면 화선천리 한치의 땅 물려서라
내 나라를 지켜싸운 영웅들을 못잊어
바람 세찬 령마루에 진달래는 피어나네

락원의 10 명당원들처럼

김보형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작가들이 깊이 사색하고 잘 다들어서 하나의 작품을 써도 걸작이 되도록 써야 하겠습니까.》

지금 나의 앞에는 락원의 10명당원이 서있습니다.

구리빛 얼굴에 이글이글 불타는 그 눈빛, 바위처럼 억세고 드팀없는 모습은 마치 영웅의 군상앞에 선 것과 같은 장엄하고 숭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걸음을 걸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항시 나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고 살아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김새도 서로 다르고 성격도 같지 않지만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만은 하나와 같이 뜨겁게 불타고있는 로동당원들입니다.

이들, 우리 로동계급의 참다운 모습을 형상해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내앞에 있습니다.

자기의 글이 독자대중의 사랑을 받는 좋은 작품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작가는 아마도 없을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사색, 피타는 탐구,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가슴불태울 때만이 훌륭한 작품을 써낼수 있을것입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온갖 시련을 이겨낸 락원의 10명당원들처럼,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라지 않으면서 오직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친 숨은 영웅들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티없이 맑은 충성의 한마음으로 더욱 가슴을 불태우며 창작 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고무하는 새로운 장편소설, 락원의 10명당원에 대한 소설을 훌륭히 써내겠습니다.

새세대들의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중편소설을 쓰련다

현희균

새해에는 지난날의 탄광을 무대로 하는 계급교양주제소설을 독자들앞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대

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위업수행에서 세대교체현상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혁명의 파력은 변하지 않는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어지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높은 연단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당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계급교양, 혁명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 인민이 겪은 쓰라린 과거를 잊지 않고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며 온갖 계급적원수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중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앞에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높은 계급의식과 혁명정신으로 교양해야 할 절실한 문제가 나서고있습니다. 때문에 계급교양주제의 소설은 매우 의의가 있을것입니다.

나자신부터가 과거생활을 잘 모르는만큼 로탄부들속에 들어가 그들이 체험한 피눈물나는 지난 생활을 끊임없이 탐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물보다 과거생활을 쓰게 되는 경우 더 진지하고 정력적인 탐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을 쓰라린 지난 생활의 체험자들과의 담화나 문헌자료 등으로 얻어내야 하는 이 주제분야 작품이란 차츰 역사물처럼 되어가는것도 같습니다.

해빛도 모르는 지하천적막장에서 마소처럼 부림을 당하며 죽지 못해 살아온 어제날의 쓰라린 생활을, 새롭게 변모한 오늘의 탄광과 그 주인으로 된 한 공훈탄부의 행복한 생활과의 대비속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나는 독자들과의 이 약속이 빈말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면서 지칠줄 모르는 정력적투쟁으로 창작을 다그칠 결심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겠다

구희철

무성한 나무는 그 뿌리가 깊은것이다.

뿌리를 잘 내려야 꽃이 활짝 피고 열매가 잘 열리게 되는것이다.

나는 우리 당 제6차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인 과업을 받아안고 창작의 뿌리를 깊이 내릴 현실에 대하여, 체험할 현실생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가지고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

탐구하며 창작예술적기량을 높여 혁명적인 문학 예술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고 풍만한 열매를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농민같이 꾸준한 마음으로 창작의 뿌리 내릴 땅, 현실체험을 잘하겠다.

그리하여 한편한편의 시가 꽃처럼 아름답게 열매처럼 풍만하게 영글도록 하겠다.

농촌에 가면 흙냄새가 물씬 풍기는 시를, 건설장에 가면 용접불꽃처럼 빛나는 조국 기행시를 안고 올 결심이다.

탐구의 나날과 함께

오승련

늘 새로운 속다짐과 불같은 지향에 사는 마음들이건만 그것이 더욱 새삼스러워지고 뜨거워지는 것이 새해를 맞는 사람들의 심정인줄 압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에서 펼쳐주신 휘황한 전망을 안고 밝아오는 올해는 정말이지 더 많은 일을 하고싶고 더 많은것을 배우고싶고 쓰고싶은 해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문학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 시킴으로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다그쳐야 할것입니다.》

우리 문학의 찬란한 개화발전은 전반적인 문학 형태들에서의 새로운 변혁과 혁신을 전개로 합니다.

마땅히 론설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지식인화에 이바지하는 우리 문학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자기의 선도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생활에 대한 지칠줄 모르는 탐구정신을 지닐 때 시대와 문학, 생활과 인간에 대하여 진정으로 참답게 이야기할수 있으며 읽히우고 사랑을 받고 창작에 도움이 되는 론설을 쓸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있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저는 올해에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해설하는데 계속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우리 소설의

사상예술적풍격과 현대적미감문제를 취급한 글을 쓰겠습니다.

종자의 철학적무게와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묘사와 구성, 양상과 흥미 문제 등을 놓고 우리 소설 문학에 대하여 많은것을 이야기할수 있을것입니다.

이와 함께 단편소설의 기교에 대한 론설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3 대혁명전위들의 형상을

김 삼 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3대혁명소조들이 활동하는 모든곳에서 3대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으며 인간개조사업과 기술개조사업, 문화건설사업에서 련이어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으로 3대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몸소 발기하시였으며 이 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습니다.

농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에 속하여 생활하는 기간 나는 3대혁명소조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수 있었습니다. 혁명의 전위이며 투쟁의 기수인 3대혁명소조원들이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기쁨과 만족을 드릴 오직 그 하나의 마음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농장원들과 고락을 같이 나누며 들판을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나 또한 작가로서 커다란 감동과 흥분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 격류하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생동하게 그려낼것인가 하는것이 내앞에 나선 전투적과제입니다.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3대혁명소조운동의 커다란 생활력에 대하여 다시금 밝히실 때 나는 작가적 의무감과 충격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을 형상한 중편소설을! 이것이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보람찬 전투에 들어서는 나의 결의입니다.

그들의 교훈

리 화

남동제염소생산과 지도원 리영택은 얼핏 보면 무척 상냥하고 얌전해보이는 청년이다. 둥글납작한 얼굴에 령리해보이는 정기있는 눈매며 선이 또렷한 입가에서 노상 떠나지 않는 부드러운 미소, 언제 한번 성을 낼것 같지 않은 참한 모상이다.

그가 소금밭에 나서면 사방에서 《지도원동무! 지도원동무!》하고 소리쳐부르며 로동자들이 찾아와 생산문제는 물론 생활상이아기들까지도 허물없이 내놓고 방조를 청한다.

때로는 명랑하고 쾌활한 애된 처녀들이 그한테 달려와 제때로 동무들에게나 터놓을수 있는 하찮은 당부를 할 때도 있다. 그러면 나이지긋한 제염공들은 《원 저런 철부지 봤나. 직장을 담당한 지도원이 뭐 너네 심부름꾼인줄 아느냐?》하고 꾸짖는다. 그제서야 처녀들은 리영택이 생산지도원이라는것을 깨달은듯 두눈들을 마주치는것이였으나 이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참 지도원동무면 뭐래나요.》하고 눈을 흘긴다.

그러면 리영택은 너그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렇지 않구 마을에 들어가는길에 그것쯤 해결해다주는게 뭐이 힘든 일이라구.》하고 즐겁게 받아넘긴다.

이런 때면 그는 얼마나 아량있고 부드러운 일군이라. 그뿐이 아니다. 얼마전 리영택은 소금판들로 자리를 옮기며 수평삭도로 온종일 소금을 운반했다. 이렇게 하면서 매 삭도선마다에서 골차가 마모되어 소금통을 밀고다니기가 말쑥 개소들을 낱날이 점쳐두었다. 그것은 소금운반을 제일처럼 생각할줄 모르는 사람은 눈여겨볼수조차 없는 그런 소소한 문제였다.

그러나 군대에서 체대되어 소금밭에서 여러해동안 제염공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영택지도원은 이런 일조차 무심히 넘겨버릴수가 없었다.

그는 그 이튿날로 기업소참모부에 제기하여 급히 베아링골차생산을 조직하도록 했으며 제품이 나오자바람에 그것을 팔파리에 싣고 소금판들로 다니며 운반공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낡은 골차 대신에 기름칠을 한 새 베아링골차를 수평삭도줄에 올려놓고 소금통을 밀어본 운반공들은 저마다 영택지도원을 칭찬했다.

《우리 지도원이 참 싹싹하거던.》, 《소금에 절귀친 사람이 달라.》

로동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때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으랴.

리영택은 그런 멧에 힘든줄 모르고 종일토록 소금밭으로 뛰어다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렇듯 로동자들의 사랑을 받는 삽삽하고 열정적인 일군이지만 자기 행동의 정당성만을 믿고 지나친 행동을 하는 일이 있어 사람들의 말밖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생산과장 김원섭은 리영택지도원의 사업에서 이점이 무척아쉽게 생각되였다.

(…그저 그 점만 바로잡으면 나무랄데 없는 원만한 일군이 되겠는데…)

원섭과장은 리영택을 아끼는 심정으로 이렇게 안타까와하며 그의 사업에서 더는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다심한 충고를 주곤했다.

《…발뺌자리보구 이부자리 퍼랬다네. 일이란 그저 앞뒤를 가늠해보구야 손대는거라네.》

원섭과장의 친절한 충고는 번번이 리영택지도원의 지나친 열정을 눅갯혀주곤하였다.

그러나 리영택은 햇소금생산기에 들어서면서 담당직장으로 지도사업을 나간지 한주일도 못되어 또다시 이러한 약점을 드러냈다.

토요일 저녁이었다.

주사업총화가 끝나자 생산지도원들은 모두 집으로 회관으로 흩어져가고 사무실에는 원섭과장과 리영택만이 남았다.

김원섭은 책상너머 나무의자에 앉아있는 리영택을 물끄러미 건너다보며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동무가 조만수직장장이 회의를 하고있는 사무실에 뛰어들어 한바탕 교아했다는게 사실이요?》

《예.》

영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난처한듯 손으로 볼뺨을 문질렀다. 김원섭은 비난조로 말했다.

《동무 나이가 몇이요. 올해에 아마 서른다섯이지…》

이제는 그만큼 나이를 건사했으면 매사에 심사숙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뜻이다.

리영택은 고개를 흔들며 변명하듯이 중얼거렸다.
《저라구 왜 지각이 없겠습니까. 현대 그런 일을 당하면 도무지 자기를 건잡지 못하겠거든요.》

《자기를 건잡지 못한다구?》

김원섭은 성난 얼굴로 반문했다.

리영택은 대꾸를 하지 못하며 고개를 돌려 창문 밖의 소금밭으로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무연한 염전벌이 아니라 이제 소금밭직장에서 있는 일을 피롭게 더듬고있었다.

이른아침이었다.

소금밭으로 나가던 리영택은 직장사무실 못미처에 자리잡고있는 현장탁아소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주의깊은 눈매로 탁아소둘레며 마당을 둘러 보는 그의 얼굴에 의아쩍은 빛이 어리었다.

고개를 기웃거리며 탁아소부엌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통하여 안을 들여다보던 그는 텅 비어있는 부엌의 한구석에 시선을 멈춘채 한동안 움직일줄을 몰랐다.

전날 점심때였다. 애기들을 재워놓은 보육원들이 손에 삽을 들고 조용히 탁아소를 빠져나와 사무실쪽으로 종종걸음을 놓고있었다. 영택은 웬일인가 하여 그들을 다급히 멈춰세웠다.

《애기들은 지켜보지 않고 어디로들 가는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저.》

보육원들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피했다. 그러나 뒤미처 탁아소모퉁이에서 손달구지를 끌고나오는 책임보육원을 본 영택은 이내 사정을 간파했다.

소금생산 한창때가 박두해오자 직장에서는 서둘러 현장탁아소를 내왔다. 그러나 직장에서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한 탓으로 석탄을 실어다주지 못했다. 품은 좀 들겠지만 직장사무실결에 사람이 잔뜩 쌓여있는데 가져다 때지 아마 이렇게들 생각한 모양이다. 그래서 보육원들이 그 일을 하자고 틈을 내어 나선것이다.

리영택은 이런데서도 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에 관심이 적은 조만수직장장의 사업태도가 그대로 나타나고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영택은 보육원들에게 화를 냈다.

《왜 석탄을 가져다달라구 말하지 못습니까. 요구해야 돼요. 아이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으란말입니다.》

그는 그 즉석에서 보육원들을 돌려세우고는 곧장 직장사무실로 찾아갔다.

조만수직장장은 코등에 안경을 걸고 알 하나가 밤톨만씩한 큰 주산을 뜨직뜨직 튕기며 당일 소금 생산실적을 종합하고있었다. 정오무렵, 창문밖의 염판들에서는 소금꽃이 활짝 피어나고있는 때였다. 그러나 조만수는 벌써 직장의 소금판들에 해질녁까지 앓을 소금을 계산하고있다.

그는 불어오는 바람새를 가늠해보고도 그날 소금이 얼마나 쏟아지겠는가를 영낙없이 알아맞힌다. 아무렴 소금밭에서 직장장으로 십년나마 사업한게 공연한 일인가.

자기가 할일을 잘 알고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대개 다 그러하듯이 그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에 간섭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휘여잡기가 만만치 않은 일군이다.

그는 리영택지도원이 직장사무실에 들어섰으나 수완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영택은 벽쪽에 놓인 긴의자에 앉아 조만수가 생산실적계산을 끝마칠 때까지 인내성있게 기다렸다.

드디어 조만수는 안경을 벗고 영택을 바라보았다. 리영택은 방금 현장탁아소앞에서 본 사실을 말하면서 탁아소에 석탄을 날라다 주어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런건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허 허 허, 그거야 뭐.》

조만수는 웃으며 뇌인다. 그 웃음은 나도 잘 안다. 그건 별치 않은 문제다. 언제 그런데까지 잔신경을 쓸새 있는가. 라는 투다.

영택은 정색하고 잘라 말했다.

《가져다줍시다. 보육원들에게 그런 일을 맡겨서야 안되지요.》

그 어조는 몹시도 딱딱하고 쌀쌀했다. 문노니 이런 때엔 것처럼 썩썩하고 부드럽던 그의 모습은 어데로 사라졌단말인가.

조만수는 언짢은 얼굴로 리영택을 한번 쳐다보고는 시답지 않게 대꾸했다.

《좋도록 합시다.》

이렇게 응하는것이 마땅치는 않으나 담당지도원이 요구하는것이니 그렇게 대답하는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리영택은 사무실에 더 지체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장장의 대답이 뜨뜨미지근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가 그것을 실행하리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요구하는것이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아침 현장탁아소에서는 그 어느 구석에서도 자기가 기대한 결과를 찾을수 없다.

조만수직장장은 그의 말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아니 애당초 그는 영택의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리영택은 가슴에서 불끈하고 치미는 걱정을 억제할수 없었다. 고개를 책 돌린 그는 한달음에 직장사무실로 달려갔다. 출입문을 벌컥 열고 사무실에 들어섰다.

이때 조만수직장장은 작업반장들을 모아놓고 월말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소금실측에 대하여 지시를 주고있었다.

그는 사업수첩을 펼쳐들고 반장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하고있었다. 만수직장장은 서둘 필요가 없었다. 반장들은 아침일찍 소금판들에 나가 소금물들을 알맞추미 대놓고 사무실로 온것이니 그들이 여기에서 얼마쯤 지체한대도 문제될것이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알기때문이다. 그러나 조만수의 그 늘어진 태도는 영택지도원의 화를 더욱 돋구었다. 웅당히 할일조차 미루어놓은 처지에 어찌 저렇게 섯뻑이 종단말인가. 그는 아직도 내가 무엇때문에 여기에 나타났는지를 눈치채지 못했단말인가.

격한 감정에 휩싸인 영택은 벌써 자기를 통제할수가 없었다.

그는 조만수직장장을 향해 큰소리로 말했다.

《직장장동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째서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걸 보장해주자는데 귀등으로도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 바로 이때 리영택의 그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던것이다.

그가 신중하고 사려깊은 일군이였다면 사무실로 달려 들어오기전에 우선 격한 감정을 지그시 누르고 직장장이 왜 그의 말을 듣지 않았겠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 자연 지난밤에 비가 내려 온 염전이 비설것으로 몹시 바빴다는것, 그래서 그가 제기한 문제에 관심을 돌리기가 어려웠으리라는것을 짐작할수 있었을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선 다음에도 자기의 용건을 터놓기전에 주위의 분위기쯤은 살펴보았어야 했을것이다. 거기에는 직장장의 지시를 받고있는 일곱명의 작업반장들이 주련이 앉아있었으니 말이다. 그가 이것을 고려했다면 제아무리 직장장에게 화를 내고싶어도 잠시 한쪽 의자에 앉아 모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것이다. 하여 반장들이 다 돌아간 다음 직장장과 조용히 마주앉아 제기된 일을 털어놓고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어야 했다.

그러나 리영택은 이 모든것을 보지 못했으며 설사 가능했다 해도 그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직장장의 옳지 못한 처사만이 얼른거릴뿐이었다.

이것은 자기가 직장장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가 응당 보장해주어야 할 초보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그는 담당지도원의 의견을 받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가. 과연 이런 행동을 용서할수 있단말인가.

하기에 그는 사정없이 직장장을 추궁했다.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귀여운 어린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직장장동무는 이에 대하여 그렇게도 무관심합니까. 이런 태도를 어떻게 리해해야 합니까.》

격분한 리영택은 직장장의 체면은 물론 반백의 그의 머리도 상관하지 않았다.

영문을 모르는 반장들은 너무도 무참하여 고개들을 숙이기까지 했다.

조만수는 낮이 벌개졌다. 일이 참 우습게 되었다. 사실 어제 그는 지도원의 의견을 따르지 않게 받아들였으나 그것을 무시할 생각은 없었다. 아마 간밤에 비가 와서 아침부터 일판마다에서 소금물을 퍼내느라고 분주당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실행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럴듯한 구실에 불과한것이 아닐가. 그것은 큰 품이 들 일도 아니다. 하자고 마음만 먹었더라면 지도원이 말을 하고 돌아선 그 즉석에서도 실행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일이 쓰거웠다.

그러나 영택지도원이 불쑥 사무실에 뛰어들어 모임도중에 큰소리로 그를 추궁해 나서자 조만수는 노여운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소소한 일들을 가지고 번번이 걸고든다면 이렇게 이 사람과 의종게 일해나갈수 있단말인가.

조만수는 시뚱하여 내뱉었다.

《제염공들이 소금을 내느라고 바빠 뛰는 때에 애나 보는 보육원들이 석탄쯤 나르게 한다구 그게 뭐 잘못됐단 말이요?》

《애나 본다구요?》

리영택의 두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래서 직장장동무는 제 의견을 그렇게 묵살해치웠군요.》

《옳수다. 고의로 그랬수다.》

조만수는 비꼬는 투로 응대했다.

두사람이 다 자제력을 잃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있던 반장들이 앞을 다투어 그들을 만류했다.

리영택은 결김에 성급히 말했다.

《좋습니다. 직장장동무가 조직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왔다. 사무실 프락을 지나 한길에 나선 리영택은 곧장 현장탁아소로

향했다. 순간 자기가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미 자신을 돌이켜보기에는 때가 늦었다. 이때 다급한 발자욱소리가 등뒤에서 들리더니 그의 팔소매를 잡는 사람이 있었다.

《지도원동무, 이러지 마슈. 일이 잘 안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면 되겠수. 우리가 하겠으니 진정하슈.》

환갑이 래후년인 늙은 반장의 말이였다. 걸음을 멈추고 나이트 반장을 쳐다본 리영택은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얼마나 정당한것을 주장했던가. 그러나 그의 사업방법은 졸렬하기 그지없었다.

김원섭과장은 생각에 잠긴 리영택과 더불어 그의 소행을 꼼꼼히 돌이켜보았다. 그의 행동은 흔히 경험이 적은 풋내기일군들에게서나 찾아볼수 있는 그런 류인것이다. 그러나 리영택은 생산과지도원으로 사업하는지 벌써 8년, 그만하면 경험있는 일군이라고 할수 있다. 하나 일하는 본색은 풋내기 그대로가 아닌가. 아직도 그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물병뿐만아니라 물고뿌까지 가져오라는 식의 설명을 해주어야 한단말인가.

김원섭은 리영택이 더 큰 실수를 저지르기전에 그를 옳바로 이끌어주는것이 자기의 성실한 립장이라고 생각했다. 졸렬한 사업방법은 결코 방법 그 자체에만 머무르는것이 아니라 사상적결함으로까지 될수 있는것이다.

하기에 김원섭은 리영택을 조용히 불러왔던 이런 기회에 그를 단단히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정색하고 말했다.

《자기의 감정을 건잡지 못하는 사람은 의지가 약한 인간이라고 보네. 흥분을 억제하고 사리를 따져가며 이성적으로 행동하는것은 수양과 세련된 품성의 표시란 말일세. 의지를 단련해야겠네. 매사에 자중할줄 알아야겠어. 그걸 체득해야만 원만한 일군이 된다는걸 명심하란 말일세.》

리영택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생산과장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하라는건가. 그런 때에도 격분하지 않고 얌전하게 굴어야만 한단말인가. 난 《원만한 사업》에 빙자하는 두리몽실한 그의 사업태도가 마음에 안든다. 사업을 대함에 있어서 팽철한 리성도 중요하지만 불타는 열정이 없이야 어찌 일다운 일을 할수 있는가.)

한순간 이런 생각이 영택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는 이내 자기를 돌이켰다. 그리고 과장의 말을 신중히 되새겼다.

확실히 생산과장은 그자신에게서 가장 약한 고리들을 지적했다. 그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영택은 경솔한 자기의 태도를 뉘우쳤다.

원섭과장이 그런 정황에 부닥쳤다면 솟구치는 감정을 가슴속에 깊숙이 눌러놓고 부드럽고 여유있게 지어 상대가 무등 불손한 태도를 보일 때 도웃는 낮으로 대하며 필요할 땐 양보도 서슴지 않으면서 조용조용 타이틀것이다.

그는 생산과장의 참을성있는 태도와 자제력이 부럽기까지 했다. 하나 영택은 다시 태어나기전엔 그런 방법을 체득할수 없을만큼 자기를 고치기가 어려웠다. 그라고 어찌 자기의 약점을 극복해보자고 노력하지 않았으랴.

그러나 그런 정황에 부닥치기만 하면 가랑이에 불붙듯이 확 하면서 자기를 잃고 왕청같은 일을 저질러놓곤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지를 가진 일군이란말인가.

(과장동무의 말이 옳아, 내겐 확실히 의지가 부족해. 수양과 세련이 없단말야, 고치자, 기어이 그런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하자.)

리영택은 이렇게 결심을 새로이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리영택은 그때로부터 열흘도 채 되기전에 전보다 더 엄중한 일을 저질렀다. 과연 그것은 고칠수 없는 그의 성미란 말인가.

생산과장 김원섭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방금 가방을 서류함우에 올려놓고 책상앞에 앉았을 때였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히 울리더니 대꾸를 하기도전에 체구가 딱 바라진 자재창고장이 불쑥 들어섰다. 그는 원섭이 눈짓으로 권하는 의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선채로 말하는것이였다.

《과장동무, 영택지도원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창고를 열어제끼구 제 마음대루 자재를 꺼내갔단말입니다. 원참, 기가 막혀서 내 창고장으로 일하는지 십년이 넘지만 이런 일은 보다 처음이란말입니다.》

김원섭과장은 놀람에 차서 물었다.

《아무러면 우리 지도원이 그런짓이야 했겠소.》

《그럼 내가 공연한 빈말을 옮기자구 이른아침부터 과장동무를 찾아왔겠습니까.》

창고장은 어성을 높였다.

《어제야 자재를 출고하지 않기로 정한 날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군지방산업에 뺨끼 인수하러 간 틈에 영택지도원이 경비원을 구슬려가지고 출고증두 없이 자재를 꺼내갔단 말입니다.》

문제가 너무나도 엄중한것이여서 창고장의 말을 그대로 믿을수가 없었다. 원섭과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창고로 가봅시다.》

사무실을 나선 원섭은 뒤따라오는 창고장에게 물었다.

《그래 무엇때문에 창고를 열었답니까.》

《아침에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었지요. 구구한 말을 하더군요. 허지만 제도와 질서를 위반하고 무슨 리유가 있을수 있단말입니까. 나는 이따위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마다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가며 마음대로 창고를 열어제끼거란말입니다.》

원섭과장은 더는 묻지 않았다. 창고장의 말이 옳다. 이 모든것이 사실이라면 그 어떤 관용도 바랄수 없을것이다.

염전에서는 자재창고장을 《구두쇠》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 별명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까쟁이》노릇을 하는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기때문인지.

두사람이 엄엄한 낮빛을 하고 우뚝우뚝 창고안으로 들어서자 경비원아바이가 급히 달려나왔다.

경비원아바이는 생산과장이 묻는 말에 당황하여 어쩔바를 모르며 중얼거렸다.

《글쎄 나두 안된다고 했쎄다. 창고장두 없구 출고증두 없길래 절대루 안된다고 했거던요. 내겐 그런 권한이 전혀 없다구말이외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창고를 열구 자재를 꺼내갔습니까. 그걸 말씀하십시오.》

김원섭은 조급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너무 다긋지 말게. 사실은 그게 다 내 잘못일세. 창고장이 군으루 떠난지 한시간도 못돼서였네. 영택지도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창고루 달려들어오지 않겠나. 〈아바이, 큰일났어요. 소금야적기 브이벨트2080이 끊어졌어요.〉 숨을 헐떡거리며 하는 말이었네.》

나두 봐서 알지만 간해에 염전에 들어온 소금야적기가 참 좋은 기계지. 인력으루 저울리던 소금을 눈깜짝할 새에 소금데미우루 올려부리지 않나. 그런데 그게 멎었으니 어쩐단말인가. 걱정이 뻘지만 어쩔수 없었네. 창고장이 군에 갔으니 그가 돌아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 한데 그 사람이 내 팔소매에 매달리지 않겠나. 〈아바이두 소금농사를 지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소금을 등짐으루 저울리는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바이의 등이 굽은것두 그것때문이 아니나요. 그런데 이제 또 삭아빠진 질통을 꺼내다가 다시 제염공들의 어깨우에 메워야겠나요?〉 이런단말이네. 나는 마음이 흔들렸네. 그러자 그 젊은이가 더욱 바싹 다가붙으며 간청하지 않겠나. 〈난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 국가재산을

꺼내가자는게 아니예요. 힘든 일을 벗어던진 로동자들이 다시 등짐을 지는걸 용서할수 없기때문이에요. 아바이는 그저 립회만 서주십시오. 다른 일은 다 내가 책임질테니까요.〉 그러면서 어서 창고를 열구 브이벨트를 꺼내달라구 하지 않겠나. 정작이 광경을 보니 가만있을수가 없었네. 나는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네. 〈그래두 정해진 규정을 어겨서야 되겠나.〉 한데 그 사람은 〈아바이! 공장의 규정이란건 로동자들의 편의와 생산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거야요. 그래 내가 하는 일이 무얼 위해서인지 모르신단말예요.〉 한단 말이네. 나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네, 그래서 …》

경비원아바이는 말꼬리를 얼버무렸다. 창고장은 그 모양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창고경비원이란 사람이 출고증두 없는 사람에게 창고문을 열어주구 어정어정 그 젊은이달구 안으루 들어갔단말이요? 앞장에서 안내까지 하며 고무제품은 저 안쪽에 있네, 하며 벨트를 꺼내는걸 거들어주기까지 했겠습지요. 그래 아바이를 뭇뻔에 창고에 세웠는지 아십니까.》

경비원아바이는 뒤더수기를 굵으며 입맛을 다시었다.

《다 내 잘못일세, 이 늙은것의 맘이 헤폰탓이야, 그러니 나를 탓하라구, 나를 욕해》

사정은 명백했다.

소금생산이란 연속과정이다. 만약 전날 거둬놓은 소금을 치우지 못하면 새날의 소금생산이 지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소금야적기가 고장이 났으니 사정이 딱하게 된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제정된 질서조차 무시해버리는 행동으로밖에 달리 출로는 찾을수는 없었던 말인가. 제아무리 불가피한 정황이었다 해도 어떻게 그를 융통성있게 무난히 해결할수는 없었는가.

김원섭과장은 착잡한 생각에 잠겨 소금밭으로 뻗은 령길에 나섰다. 길 좌우편에는 소금관들이 규모있게 펼쳐져 있는데 빨간머리수건을 쓴 처녀들이 삭도통에 소금을 듬뿍듬뿍 싣고 수평삭도선을 따라 나는듯이 달린다. 그들이 연방 쏟아놓는 하얀 소금은 나팔주둥이같은 야적기통에 쏟아지자 휘하는 소리와 함께 소금데미로 날아오른다. 제염공들은 성수가 나서 바빠 뛰어달린다.

이때 소금관을 돌아보던 조만수직장장이 생산과장을 보자 활기있게 이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원섭과장에게 먼저 말을 붙였다.

《영택지도원이 아니였더라면 큰일날뻔했수다.》

《뭇라구요?》

김원섭은 조만수직장장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그것때문에 우리는 담당지도원에게 단단히 책임추궁을 해야 할것 같수다.》

《그게 무슨 말인가.》

만수직장장은 펄쩍 뛰었다.

원섭과장은 창고에서 있는 일을 기본없이 이야기하고나서 덧붙였다.

《그러니 그에게 다른 처분을 줄수 있겠소.》

조만수의 얼굴은 심각해졌다.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부지중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 그럴수 없네... 야적기가 고장이 났을 때였네. 나는 불이 나게 사무실로 달려들어가 수화기를 들고 자재창고를 찾았었지. 그러나 창고장이 제자리에 없다는걸 안 나는 손맥이 풀려 어쩔바를 몰랐네. 설사 창고장이 있다 해도 출고날이 아니어서 그 구두쇠창고장을 설복하여 벨트를 내온다는게 여간한 일이 아닌데 그가 제자리에 없기까지 했으니말이네.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니 일생 소금집에 덕석같은 떡살이 등에 덮인 동갑내기 반장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내 마음이 어떠했겠나. 그건 동갑내기에게는 눈 꼭 감구 하루만 등짐을 지라는 말과 같았으니 말이지. 이때 영택지도원이 불쑥 나타났다. 그는 전후사연은 알아보지두 았구 나한테 막 성을 내는게 아니겠나. 이렇게 그렇게 무관심할수 있는가구 말이네. 나도 그것때문에 안타까와하고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속이 좋지 않았지. 이런 때에 무슨 뽕죽한 수가 있다구 그렇게 말하는가. 정말 까다로운 젊은이군. 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네. 한데 그는 <절대루 등짐은 못집니다. 알겠나요?> 하고 오금을 박아 말하며 안으로 달려들어가는것이 아니겠나. 나는 그에게서 모욕을 당한것만 같아 좋지 않은 심사로 그를 바라였지. 한데 그는 한시간도 되기전에 브이벨트를 들고 내앞에 나타났네. <직장장동무! 어서 이걸 야적기에 내다거십시오.> 땀을 흘리며 그가 하는 말이었네. 나는 그저 놀랐을뿐이네. 한데 그런 일이 있었던말이지.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노동자들에게 등짐을 지게 하는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타협해버린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추궁도 하지 않고 반대로 그를 추궁한단말인가. 먼저번 현장탁아소일도 그렇지. 그래 내가 정당한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면 그가 왜 그렇게 분개했겠나.》

조만수직장장은 깊은 회오에 잠겨 격조높이 웅거었다.

《...그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내가 아닌가. 그를 추궁하겠거던 먼저 나를 엄

격히 추궁하계, 나는 오늘에야 깨달았네. 그는 까다로운 젊은이가 아닐세. 그는 옳지 못한것과는 한치도 타협할줄 모르는 젊은이란말이네. 그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융화할수 없는 결함을 보고는 참지 못하는게 아니겠나.》

조만수의 돌변한 태도는 김원섭과장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직장장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주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는 여직껏 리영택에게 혼시만을 하여왔다. 과연 그는 리영택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였던가.

세련되고 원만한 일군, 팽철한 리성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그렇다. 젊고 생활의 경험이 적은 그는 원섭의 교훈적인 말에서 섭취하여야 할 알맹이를 적지 않게 찾을수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젊은 그에게는 자기가 아무리 따르고 배우려고 해도 체득할수 없는 귀중한것이 충만되어 있지 않느냐.

과연 자신은 언제한번 노동자들을 위해 이 젊은이처럼 애태우며 격동하여 뛰어다녀본적이 있었던가. 자재창고에서 출고날자를 정해놓은것도 그렇다. 언젠가 창고장이 찾아와서 기업소에서 국가재산리용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엄격히 세우자고 할때 그는 별생각 없이 응해버렸다.

만약 우리가 노동자들의 편의를 첫자리에 놓았다면 그런 불필요한 질서가 무엇에 필요했겠는가

생각에 잠겨 터벅터벅 걸던 김원섭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앞에 보통키에 호리호리한 몸매의 리영택이 서있었던것이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파장동무! 제가 또 걱정을 끼치게 만들었구만요. 저는 이제껏 곰곰히 생각해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밖에 달리 행동할수는 없었겠나요. 만약 제가 소금발에 나간 지배인동지나 파장동무를 찾아내여 그 사정을 말했더라면 일이 얼마나 원만하게 풀렸겠나요. 그러나 저에겐 그런 자체력과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

원섭과장은 담당지도원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는 방금까지도 리영택을 만나 여직 그를 잘못 보아온 자신의 그릇된 태도를 솔직히 터놓고싶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리영택이 먼저 자기자신의 부족점을 터놓는것이 아닌가.

《됐네. 교훈을 찾았으면 됐어.》

이렇게 뇌이는 김원섭은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을 꿀꺽 삼키었다. 진정 이번 일에서 교훈을 찾고 달라지지 않으면 안될 일군이야말로 자기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보람찬 년대의 첫자욱을 새기며

류민호

영광에 가득찬 새해 1981년의 첫 출근길!

나는 지금 거대한 철의 기지 수천의 로동계급대 오속에 섞여 걷고있다.

이속에 나는 이름없는 길손, 작은 물방울같이 사람들의 흐름속으로 스며든다.

그러나 나는 이 흐름속에서 온 마음으로 느낀다.

끓는 숨결! 용솟음치는 열정!

길은 그 길이어도 구내는 그 구내여도 사람들의 모습은 그것이 아님을!

어제날도 나는 이 길을 이들과 함께 걸었다.

모두가 낯익은 얼굴들이다. 자기 소개 없이도 마음을 터놓을 구면인것이다.

구내길의 나무 한대 보도블록 한장에도 친숙한 감을 불러내는 곳이다.

그러나 이 아침만은 생각이 새롭다.

걸음걸이에도 주고받는 이야기도 모두가 새롭고 떠들썩한 출근길의 음향도 다르게만 들린다.

그렇다. 이 새해 아침의 구내길이 어찌 레사로울 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앞날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힘차게 투쟁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높은 고지들을 빛나게 점령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영예를 온 세상에 펼쳐야 하였습니다.》

노을이 타오른다.

유난히도 밝고 강렬한 빛발이 온 구내에 차고넘친다. 새로운 희망봉을 향하여 큰걸음을 내딛는 조국의 거세찬 창조의 빛갈로 하여 이 아침의 노을빛은 저렇듯 이글거리고 열정에 타끓는것이리라.

이 시각 온 나라가 다 보이는듯싶고 온 나라가 함께 설레며 가슴에 차고넘치는 이야기를 함께 속삭이는듯싶다.

저렇듯 씩씩하고 즐겁게 걷고있는 철의 주인들- 바로 이것이 조국의 걸음이 아니겠는가.

나는 내가 이미부터 잘 아는 구면인 한 영웅로장에게 이 아침 나의 격동된 심정을 나누고싶어 말없이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이글이글 타는 그의 눈빛, 그도 나의 이 심정이 알만하다는듯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새 전망목표를 받아안고 설레던 그날

의 감격이 이 새해 아침엔 더욱 새로와집니다. 이 휘황한 전망목표는 우리 로동계급을 크게 믿고 맡겨주신 전투과업이 아니겠습니까. 로동계급된 본분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야지요!》

로동계급된 자각!

이 불같은 결의가 어찌하여 나의 심장을 이다지도 높뛰게 하는것인가.

이것은 한생을 당을 따라 걸어온 로당원의 결의이며 신념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해주신 새로운 높은 목표, 그 고지를 오르는 새해 첫 전투를 시작하는데 왜 그렇듯 흥분하지 않으랴.

그렇다, 당을 받들어 여기서 한뼉을 살아갈 영웅로장, 그의 가슴에 품어넘치는것은 바로 이것인것이다.

큰걸음을 내딛는 조국.

공업의 강국으로 내딛는 걸음!

돌이켜보면 강철 1만톤 증산을 두고 우리 수령님 심려를 안으시고 눈덮인 강선길을 가시던 일은 옛 전설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격동시키고있다.

정녕 우리 조국은 얼마나 멀리 달려왔는가.

공업화의 진군길을 거쳐 오늘은 사회주의공업강국으로 힘찬 진군길을 다그쳐가고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만해도 가슴 울렁거리는 이 아침이다.

하물며 10대전망목표의 첫해 첫걸음을 뗀 철의 주인공들의 심정이야 어떠하겠는가.

정녕 공산주의 높은 언덕을 밝은 지평선우에 바라보며 신심에 넘쳐 큰걸음을 내딛는 이 아침이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로 영광스러운 당이 령도를 따라 나아갈 때 백전백승한다는 확고한 신심이 가슴마다 차고넘쳐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흥분에 찬 모습들인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숨결이며 맥박이며 모습인것이다.

나는 이 시각 생각한다.

내 걷는 이 길의 도시만이 아닌 조국의 높낮은 산발과 천리 넓은 들판과 높뛰는 격랑을 타고넘는 우리 근로자들의 그 보람찬 모습들에 어린 그 패기, 그 열정을!

그가 천리 수해속 벌목장의 밀림길을 걷든 눈덮인 발전소의 언저우 홀로 순회길을 걸어가든 트랙포르 발동소리 울리며 눈덮인 전야를 달려가든 이 하나의 생각, 하나의 숨결로 걷고 걸으리라.

정녕 조국은 얼마나 큰결음을 내디디고있는가,
얼마나 키를 높이 솟구고있는가. 이 시각 온 세계
가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는듯싶다.

우리의 발걸음소리에 온 대륙이 귀를 기울이는
듯싶다.

나는 뿌듯해오는 가슴을 누르며 뒤를 돌아본다.

한결음이 늦을세라 따라서는 수천의 대오속에서
지울수 없는 인상깊은 하나의 얼굴에 나의 눈길은
땀는다.

그가 바로 작년 우리 당 제6차대회를 맞으며
《100일전투》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던 나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당원이 된 단발머리 천정기
중기운전공이다. 그의 마음을 알고싶다.

그는 나의 물음에 흰김을 피워올리며 말한다.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면 우리 인민은 또 얼마
나 높은 세기의 령마루우에 올라설것입니까.

그날을 생각하면 새힘이 솟습니다.》

새세대의 이야기, 새세대의 마음!

순간 나는 은하마울과 상서리의 눈덮인 산밭, 그
포전길을 생각한다.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을 본날 밤 그들이
달빛아래서 밤길도록 물기어린 눈으로 맹세를 다
지고 다지던 못잇을 그 밤이 떠오른다.

그들은 이 아침을 얼마나 힘차게 걸어나갈것인
가.

전진하는 온 나라의 우렁찬 음향이 이 시각 이
가슴을 흔든다.

이 음향을 온몸으로 들으며 걷는 이 마음은 거세
찬 대오속에 섞이여 마치 온 세계가 바라보는 세기
의 령마루를 걷는 심정이다.

공산주의 밝은 빛발을 안고 영원히 빛나는 길을
걷는 아침이여! 영원히 이 아침처럼 우리 조국은
영광의 년대와 년대를 넘으리라!

이삭아, 내 사랑아

김 정 철

내 가을날 두렁길을 걸으니
누나야, 누나야
치마폭을 안고도는 동생과도 같이
칭칭 휘감기는 누런 벼이삭

한발자욱 눈에 내려만 서도
살뜰한 품인듯
온몸을 다정히 껴안네
이삭이, 금빛 이삭이

하루이를 맺어진 인연이라면야
이러히도 정깊을가
차디찬 봄비에도
한여름 피약벌에도
너만을 그리며 살아온 우리

언젠가 바람새 사납던 그 밤
저녁밥 들고 나온 어머니
이 애들은 집도 때식도 다 잊은게라고
새벽에 가을나온 이웃들 통삼아 하던 말
아마도 너희들이 누구에게 반한게라고

반했지, 반했구말구
이삭아, 내 사랑아

청년분조 알뜰한 마음들
하나같이 너를 위해 정을 바쳤지

때로는 누나가 된 사랑을 다해
때로는 어머니된 정성을 부어
내 바라던대로 네가 자랐으니
어쩌면 내 마음을 그토록 알아주었나

어느 이삭을 보아도 꼭같이 탐스럽네
진정 네앞엔 숨길수 없네
달이 알가 별이나 알가
남몰래 흘린 땀도 지새운 밤도-

그래서 사람마다 외우는가보지
거울앞에선 볼수 없는
농장원의 마음
이삭앞에서는 다 볼수 있다고

내 이제 열아홉꽃나이
사랑이 뭇지 다는 몰라도
너를 두고 이 별을 나는 못떠나
아, 이삭아 내 사랑아

빛나라, 1980 년대여

차영도

무한한 우주
끝없는 공간
그 우주, 그 공간속에
눈부시게 빛발치는 세기의 불빛

1980 년대여 그것은 너!
인류의 력사우에
우리 당이 펼쳐놓은
새세기의 아침!

아, 것처럼 승엄히
그렇듯 휘황히
빛나는 년대여
10 대전망의 찬란한 년대기여

너의 무수한 날과 나날 속엔
우리 당의 강철같은 결심이 있고
그 결심속엔
인민의 노도같은 걸음이 있나니

위대하여라
수령님의 예지로 빛나고
우리 당의 담력으로 거세찬
너의 그 하루하루!

강철은 뿜으리
석탄은 쏟아지리
발전소의 역센 타빈들은
소리치며 세월을 감으리

바다를 밀어낸 드넓은 간척지는
새봄을 맞아 씨앗을 품고
풍요한 전야엔
무르익은 이삭들이 가득히 실리우리...

아, 이 모든것
이 크나큰 전변
우리 수령님
세기의 한끝을 내다보신것

80 년대여, 축복의 년대기여
정녕 너는 밝아오는 새날을 마중가는
숨은 영웅들의 수없는 자욱우에
새싹들이 소리치며 움트는 그 봄날의 대지

너는
주체의 빛발로 타는듯 붉은

3 대혁명의 장엄한 그 기폭우에
공산주의 밝은 련명이 비낀 하늘

그 대지에
인민의 환희는 뒤설레이고
그 하늘가에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봄언덕은 가까와지리니

80 년대여, 너의 그 큰 걸음은
세기의 대행진!
너의 그 섬광은
공산주의 그날을 밝게 비쳐주리

해빛과
별빛과
그 모든 우주의 빛발
한데 합쳐 엮는다 해도

1980 년대여
찬란한 년대기여
너의 휘황한 그 빛발에
결코 비길수는 없으리

아, 이 눈부신 년대기에
빛나는 삶
고귀한 로력을 바쳐간다는것은
얼마나 자랑스런 우리의 자서전인가!

80 년대는
우리의 머리우에
구만리 하늘가에
해와 별이 찬란한 세기!

80 년대는
우리의 앞길에
인류 미래의 새 리정표가 세워진
력사의 기점!

오, 여기서 시작되여라
가장 위대한 우리 조국의
더 찬란한 봄빛
새세기의 태동기!

1980 년대여
영광 빛나라!

푸른 기발

차승철

불밖은 사무실에 두사람이 마주앉아있었다. 설봉철길대 대장 우철화와 삼십대의 젊은 소대장인 지호남이었다.

우철화는 신하나라는 나이로 보아선 퍼그나 젊어보였는데 우람스러운 체구를 감싼 철도복 목깃에 달린 소좌령장이 그를 더욱 튼튼해보이게 했다. 맞은편에 등을 약간 굽히고 앉아있는 호남이는 퍼그나 주눅이 든 낮빛을 짓고있었다. 책상우에 펼쳐놓은 문서를 뒤적이던 철화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범골구간을 박성춘소대에 인계하오. 동무네 소대는 박성춘소대가 일하던 앞강구간을 맡게 되겠소. 평지대가 돼서 범골보다는 일하기 험할거요.》

나직하면서도 웅글게 울리는 철화의 말끝에 호남이는 고개를 버쩍 쳐들었다.

《소대성원이 모두 옮겨야 합니까?》

《그렇소.》

《왜 갑자기 소대를 옮기니까?》

철화는 이 말을 기다렸다는듯 호남이를 유심히 마주보더니 눈을 내리깔며 자기의 마디굵은 손가락을 굽어보았다. 그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다독이던 철화는 미간을 찡그린채 입을 열었다.

《범골에 부하가 더 걸린다는것은 동무도 아는 사실이고... 한마디로 어려운 구간엔 보다 제길손 있는 소대를 보내야 하기때문이었소.》

《그러면 저의 소대는 쉬운 구간을 맡는다는것이군요.》

호남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자 철화는 안타까움에 찬 눈길로 호남이를 지켜보다가 이마살을 더욱 찡그리며 계속했다.

《물론 배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동무네를 제대로 돕지 못한 내 잘못이 크오. 하지만 소대를 억센 대오로 이끌지 못한 동무에 대해서 난 아픈 소리를 하지 않을수 없소.》

《.....》

《피로울수도 있소. 하지만 나는 이 기회에 동무네가 한번 분발할것을 바라오.》

호남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 가야 한다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나와진 호남이의 눈에서는 린광파도 같은것이 번뜩이었다. 하나 철화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는

한쪽 눈언저리를 약간 쉴룩거리더니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의견이 있을수 있지. 그건 나도 아오. 앞강에 가거든 일을 본때있게 하라구. 그것으로써 나의 처사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기를 바라네.》

이것은 철화의 진정이기도 했다.

두사람의 이야기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잠시 후 호남이는 출입문쪽으로 걸어나갔는데 그를 배주던 철화는 호남이의 키가 창턱의 화분에서 자라는 선인장의 웃돌기와 신통히도 같은것을 띄여보았다. 철화는 이 우연한 대비로 하여 키꼴이나 한것으로 여긴 호남이가 자기보다 오히려 키가 작다는것을 서운하게 느끼었다. 선인장의 높이는 철화의 이마전과 수평이었던것이다.

(아니 무슨 똥판지같은 생각을 한담. 그건 그렇고. 호남이는 여전히 속이 살아있구만, 좋은거야. 결함을 아파하는 사람은 자기를 취세울수 있지.)

호남이가 문밖에 사라지자 철화는 화분결에 다가가았다. 그는 안대목이 부러진 자리에서 갓 돌아난 선인장의 작은 이파리를 어루만져보았다. 연연한 그것의 조상법이 되는 이파리는 언젠가 이 방에서 열렸던 협의회때 손세를 써가며 제 의견을 고집하던 호남이의 주먹에 얻어맞아 부러져나갔었다. 다음순간 그가 이름난 철길원으로 소문을 내던 그 때에는 각근하게 돌보며 내세워주다가 소대장이 되어 일자리를 못내는 최근에 와서는 제일이 바쁘다는 구실로 탐탁스레 도와주지 못한 자신이 다시금 뼈아프게 뉘우쳐졌다.

...머칠이 지났다. 그동안 우철화는 바쁜 나날을 보냈다. 집중화물역인 설봉역의 구내선을 수백메터나 늘였고 탄광으로 들어가는 전용선을 놓았다. 밤낮을 이어 다그친 그 공사들은 계획했던 날자보다 훨씬 앞당겨끝났다. 그동안 별다른 일이 있었다면 우철화가 앞강철길소대에서 구내선공사 지원을 나왔던 류달제라는 청년과 승벽을 다투며 중량레루를 목고하다가 허리를 약간 다친것뿐이었다. 하나 위낙 폭심이 있는 철화는 철길대의 《명 의사》로 불리우는 호남이의 아버지인 지태봉로인의 임침 석대로 대뜸 허리증을 떨어버렸다, 이 일로 하여 우철화는 《11형기중기》라고 불리우는 류달제에게 못지않은 힘군으로 인정되었으며 한창 나

이의 철길원때 불리우던 《무쇠기둥》이라는 별명을 되찾게 되었다.

그는 공사를 끝낸 다음에도 앞강소대에 자주 오르내리며 아직 자리를 못잡고 설렁해있는 호남이를 도왔으며 그밖에 여러 소대로 옮겨다니며 철길원들과 함께 땀흘려 일했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엔 범골의 박성춘소대를 찾아떠난것이다.

범골구간에 이른것은 해가 방금 떠오를무렵이었다. 쪽빛하늘을 떠인 톱날같은 런봉들은 금빛 해살을 들쓰고있었다. 밤이슬에 흠뻑 미역을 감은 호젓한 철길을 따라 걷는 철화의 기분은 상쾌했다. 하지만 그의 걸음새는 산간의 정취에 취해버린 탕개풀린 걸음이 아니었다. 재빠른 발걸음과 함께 발바닥에 밟히우는 깔목의 탄력만으로도 자갈의 다짐 정도를 알아냈고 발자국소리가 메아리쳐울리는 차굴속의 미묘한 음향으로써도 굴벽의 견고성여부를 짐작했으며 눈가늠으로 레루의 넓이와 높낮이를 헤아려보았다. 철다리는 더 말할것도 없고 철길옆에 세운 갖가지 운행표식까지도 면밀하게 살펴나갔다. 철길상태는 아주 좋았다. 이곳에 올라오자바람으로 뺨이 돌듯 바빠 지내던 박성춘이의 모습이 비껴왔다. 동시에 이곳을 떠날 때 그토록 울적해하던 지호남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철길을 건너간 달구지길이 나지자 걸음을 멈추었다. 저기 고로쇠와 굴참나무가 우거진 산허리를 뚫고나간 차굴을 빠져나가면 범골소대 초소막이 나타날것이다. 이 건늌길에서 거기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780미터이다. 그는 좀 쉬여갈 작정으로 달구지길로 꺾어들었다. 당반같은 산덕에 외따로 자리잡은 아담한 문화주택이 보였다. 터밭에 그꼴나게 자란 강냉이포기사이로 보이는 벽체는 눈부시게 새하얀데 지붕에 꽂혀있는 텔레비존안테나 둘레에는 겨금대기로 바라오른 줄당콩 끝순이 누워있었다. 토끼장을 손질하고있던 키가 작달막한 로인이 철화를 맞아들었다. 호남이의 아버지인 지태봉로인이었다. 한평생을 철길원으로 살아온 그는 제작년부터 년로보장을 받고있는데 철길을 못잊어하는 로인의 진정을 느낀 철화와 그의 친구들은 철길이 한눈에 굽어보이는 여기에 이 집을 지어주었었다. 철화는 때때로 이 집에 들러 오랜 철길원인 로인과 자기 사업을 즐겨 상론하곤했다. 로인의 기력은 아직 왕성했다. 잔주름 덮인 얼굴에 기민하게 나타나는 표정은 예리하면서도 뚜렷했으며 곳곳한 허리에 떠받들린 가슴과 어깨의 근육은 탄력을 잃지 않았다. 마루에 걸터앉은 로인은 물참대 대통에 엽초를 재워넣으며 철화를 뵈히 쳐다보았다.

《젊어지는군.》

《젊어지다니요. 먹는 나이야 어딜 가겠습니까》

《아니야 자네는 나이를 어데로 빼돌리는것 같애. 이 지태봉이는 이젠 다됐네 다됐어. 피가 식어 들기 시작하거던.》

령감은 실한 장판지를 썩썩 굽어대며 웅얼거렸다. 하지만 시샘을 담은듯 반짝이는 모밀눈은 《나도 임자 나이때엔 펄펄 날았지. 더 늙기전에 일을 실컷 해대라구.》라고 말하는듯했다. 짧은 말마디로서도 서로의 속을 헤아리는 대화가 얼마쯤 오갔을 때 조반상이 나왔다.

《끼때에 덜통한 자네 성미야 내가 잘 알지. 한술 드라구.》

상은 의외로 요란했다. 남의 집에서 좀처럼 수저를 들지 않는 철화였으나 이 집이 다름아닌 지태봉로인의 집이어서 차려놓은것을 아주 달게 먹었다. 제집에 있는것 같은 편안하고 단란한 시간이었다. 상을 물렸을 때 철화는 우선우선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면목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는것이 그만...》

《호남이일때문에 그러나? 알고있네.》

《그 사람이 앞강으로 내려간데는 내 불찰도 많지요.》

령감은 질은 담배연기를 거쳐 내뿜더니 곱배기로 담배를 재워넣었다.

《잘 도와주지 못했던 말이겠지. 사실 자네를 원망도 했었지. 하지만 사람이 만날 남의 등에 업혀서만 살겠나. 제발걸음을 해야지. 그너석이 철길원때에는 일을 좀 제끼는것 같더니 소대장이 되어서는 움쭉 못하거던. 알고보니 남들의 그늘밑에서 좀 팔딱거리본 셈이더군. 아마 내가 철길대장이라면 그너석을 소대장직책에서 당장 떼어버렸을거네.》

로인의 한탄을 접하는 철화의 마음은 개운치 못했다. 아마도 로인은 호남이가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였다면 그를 제때에 도와주지 못한 나를 나무랐을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호남이만 저렇듯 질책하고있는것이다.

《나는 그너석이 제 어미 배꼽에서 떨어졌을 때 범처럼 용맹한 사내가 되라구 호남이라고 이름지었지. 한데 허리 부러진 환갑나이때부터 저렇게 쇠여빠지고있지 않나. 기가 막히네. 젊어서 치르어야 할 몫을 모르는놈 같거던.》

《소대를 지휘하는것은 제앞의 일이나 제끼던 평대원때와는 다르지요. 멀지 않아 호남이답게 솟아오를겁니다.》

철화가 자리를 뜨자 로인은 철길까지 따라나왔다. 《어루만지지 말고 단단히 닦달시켜주게. 그놈은 제 애비 닳을 보아서도 자네 말을 들을거야. 이 지태봉이가 철길에 시라소니를 두고 떠났다는 뒤소리를 안듣도록 잘 도와달라구.》

로인과 헤어져서 홀로 철길을 걸어가는 철화는 자기가 로인이 믿고있는것처럼 호남이에게 가깝지 못하다는것을 괴롭게 느끼었다. 그는 애기메꽃덤불사이에 대가리를 내민 어미다람쥐가 자기를 뵈히 쳐다보는것도 감촉 못한채 깊은 사색에 잠겨 걸었다.

×

우철화는 자기 방에 들어서자 텅텅빈 작업복 저고리를 벗어 말코지에 걸어놓고 책상에 마주앉았다. 부서책임자들과 통계원이 두툼한 문서철을 들고 뻗질나게 드나들었다. 현장에 다니는 며칠 동안에 퍼그나 많은 사무가 밀렸던것이다. 그는 결제할 문건들을 간간스레 훑어보며 수표를 해주었고 부서장들의 여러가지 물음에 짹막하면서도 명확한 대답을 주었으며 계획외의 자재를 무단출고하게 한 자재지도원을 불이나게 닦아세웠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을 때 접수실처너가 오늘 온 신문을 들여왔다. 내용들을 훑어보던 철화는 갑자기 앓음세를 고쳤다. 범골소대에 대한 기사가 큼직하게 실렸던것이다. 며칠전 도일보기자가 찾아왔길래 철길상태가 훨씬 좋아진 박성춘소대가 담당한 범골구간의 실태를 세세히 말해주었었다. 기사는 그달음으로 성춘이를 찾아 떠났었는데 벌써 이렇게 신문에 나왔다. 3면 웃단에 짹 들어찬 기사를 두번이나 곱잡아 읽어보고난 철화는 신문을 서랍에 집어넣었다. 소대마다에서 독보를 시킬 작정이었다. 흡족한 기분으로 선인장화분에 물을 주는데 전화종이 다급히 울리었다. 전화를 받는 철화의 목소리는 차츰 거칠어지더니 낮가죽이 팽팽해졌다. 앞강 철길구간에서 렬차의 흔들림이 심하다는 앞강역장의 통보였다. 튕기듯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온 철화는 대기진동차에 몸을 실었다.

앞강 현장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마치 소나기 내린 뒤의 들판처럼 조용하다. 수평측정기를 든 호남이와 소대원들이 이미 든든하게 고쳐진 철길을 검열하고있었다. 땀에 흠뻑 젖은 호남이를 살펴보면 철화는 《11 형기중기》로 불리우는 류달제와 그 또래의 몇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어데 갔느냐고 물었다.

《목욕을 하겠다기에 강에 보냈습니다. 서너시간 동안 땀독에 빠졌었으니까요.》

《보낼바엔 모두 함께 가야지.》

《……》

철화는 퍼그나 풀이 죽어보이는 호남이가 측은해졌다. 철도모를 약간 제껴쓰고 측정기를 군데군데 대어보는 손놀림은 재빠르고 능숙했으나 살집 좋은 둥그스름한 얼굴은 매우 우울해보였다. 탄피처럼 허리에 두른 레루고정못페미도 몸에 붙지 못하고 제멋대로 절렁거렸다. 퍼그나 지친 몸매였다. 철화는 쇠뭉치에 놀리운듯 가슴이 답답해왔다. 등

무들을 먼저 들여보낸것은 어찌보면 좋은 일로 여길수도 있다. 하나 엄중한 후과를 저지른번한 문제들을 두고 심각한 분석과 비판이 있어야 할 이 시각에 배운 늑거리 《해택》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자는건가. 보다 높은 목표와 요구의 시발점으로 되어야 할 순간에 나타난 맹목적인 인정, 소대장의 《무뎀한 대답》 한마디에 가버린 대원들과 뒤수습을 하느라고 혼자서 땀을 흘리는 소대장, 평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낮아진 철길, 제구실을 못하는 아들을 두고 안타까와하던 지태봉로인 …

일을 말끔히 끝낸 뒤 철화는 호남이와 나란히 걸었다. 저녁빛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두사람의 발치에 길다란 그림자를 그려놓았다.

《아무리 바빠도 수염이나 좀 밀고 다니라구. 그게 뭔가?》

요즘에 와서 더욱 꺼칠해진 호남이에게 하는 말이였다.

《좀 더 길렀다가 불을 싸지르렵니다.》

심사가 뒤틀린 대답에 철화는 쓰겁게 웃었다.

《얼굴에 화전이라도 일구려나? 좋아. 내 이제 자네의 그 더부룩한 수염뿐아니라 앞강소대에 돌아나기 시작한 쑥대발에도 불을 질러놓을테네.》

호남이는 무뚝 걸음을 멈추었다. 철화는 스택스적 내쳐 걸더니 뒤따라선 호남이에게 얼굴을 돌렸다.

《래일부터 한달동안 자네네 소대에서 지내겠네. 쫓아버리지야 않겠지?》

호남아는 능청스러운 기색을 짓고있는 철화를 치며보더니 푸뜩없이 대꾸했다.

《대장이 하는 일을 소대장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대대장이기보다 평대원으로 있겠소. 마음놓고 지시도 하고 작업분공도 달라구.》

그 이튿날 아침, 소대작업실앞에 두줄로 정렬한 소대원들속에는 작업복차림의 우철화도 섞여있었다. 그는 하루에 한것정도 대장사업을 보고 다음에는 여기서 살리라 마음먹었다. 대렬앞에 나선 호남이는 오늘부터 우철화동지는 류달제가 속한 2조에서 일하게 된다는것을 정식으로 공포했다. 일순 대렬은 야릇한 분위기에 휩싸이며 술렁거렸다. 작업배치가 끝났을 때 철화는 놀랍고도 의아쩍은 눈길을 보내오는 대원들에게 스택스적 다가가서 유압식자갈다짐기에 기름을 치고있는 류달제의 등을 탁소리가 나게 내려쳤다.

《이녀석, 사람을 왜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야 응?》,

일부러 엄살을 피우던 달제는 뽕심 좋게 받아넘겼다.

《혹시 관료주의라도 쓰다가 내려먹었나 해서.》

청년들은 웃음을 터쳤다.

《말할줄 아는군. 내려먹었다 해도 좋구 올려줬다 해도 좋아. 또 무쇠기동령감태기라고 불러도 반대 없구. 함께 일해보자구.》

모두가 유쾌해진속에 철화는 일손을 잡았다. 소대원들이 작업장으로 나간 다음 호남이는 소대휴기실에 홀로 앉아있었다.

앞은뱅이책상에 펼쳐진 사업일지에는 소대에서 한달동안에 해야 할 전투계획이 촘촘히 적혀있었다. 어제 밤늦도록 철화와 이마를 맞대고 면밀하게 짜놓은것이였다. 낡은 침목과 레루 교체, 로반 다지기, 대소구조물의 보수공사 등 매 공정별로 세워진 계획은 호남이로서는 상상도 못해본 아름답것이었다. 하나 지금 호남이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것은 까마득히 쳐다보이는 그 목표보다도 우철화의 돌연한 출현이였다. 확실히 우철화대장은 이 지호남이라는 존재를 못미덥게 여긴 나머지 여기에 머물러있기로 결심했을것이다. 남들의 지나친 관심과 이끌림 속에 산다는것은 이룰데없이 쑥스럽고 피로운 일이다. 호남이는 이 아침처럼 우울중에 시달리며 자신을 불만스럽게 여겨본적은 없었다. 동시에 우철화에 대한 반발심이 치솟았다.

창고에 들러 공구주머니를 집어든 호남이는 썩하니 작업장으로 내달리였다.

철길의 강도를 표준 평점에 올려세우기 위한 작업이 매일 치열하게 벌어졌다. 철화는 호남이가 작업을 면밀하게 짜고들도록 도와주면서도 항상 소대원들과 휩쓸러 일했다. 대원들과 함께 유압식다짐기로 자갈다짐을 해나가는 우철화의 여유있고 경쾌한 일숨씨는 대원들의 사기와 흥취를 한결 북돋았다. 우철화는 마치도 소대에 갓 들어오자바람으로 동무들을 끌어당긴 숙련공파도 같았다. 이 며칠사이에 철화의 잔등은 여느 대원들처럼 해벌에 타서 고동색으로 알른거렸다.

우철화는 일에 몸을 푹 잠그고 들뛰면서도 소대원들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폈다. 호남이는 역시 한다하는 철길원이였다, 그는 무슨 일에서나 남들의 두세몫을 해냈다. 하나 철화는 제앞에 일만 해대는 호남이의 단순한 일본새가 매우 불만스러웠다.

보슬비가 내리던 어느날. 작업총화가 끝났을 때 철화는 호남이를 조용히 만났다.

《무슨 작업총화를 그렇게 단마디명창으로 짓나?》

철화의 그 말에 호남이는 심드렁히 대꾸했다.

《하루종일 비를 맞으며 일한 사람들에게 여러말 할게 있습니까. 모두가 똑같이 수고를 했는데.》

《똑같이 수고를 했다? 류달제네 조가 여느 조보다 자갈다짐을 20메터나 더 하지 않았나. 그리고 희태는 오후작업에 좀 늦어졌지.》

《아니 그런것까지 어떻게 시시콜콜 다...》

《뭐라구?》

철화는 호남이의 말허리를 자르며 눈을 지릅떴다.

《일본새가 틀려먹었군. 그렇게 두리몽실하게 넘겨버리는것은 동무들뿐아니라 자신을 속이는거야. 일군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태사람들의 일체 움직임을 세심하고 명확하게 가려볼줄 알아야 해. 성과는 제때에 내세워주고 잘못은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주어야 하거든.》

철화가 앞강에 내려온지도 어느덧 한주일이 지났다.

하루일을 끝마친 철화는 호남이와 함께 소대휴게실 프락에 들어섰다. 프락가녁에 서있는 게시판에는 힘있는 필치로 쓴 여러장의 속보가 나붙어있었다. 오늘의 성과들을 소개한것이였다.

《류달제동무 로반다지기에서 200%!》

《숨은 영웅들처럼.》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속보들의 내용을 죽 훑어가던 철화는 호남이에 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조별 작업목표를 더 높이 세우는게 어때?》

한쪽 귀가 떠들던 속보장에 손다림질을 하고있던 호남이는 놀라운 기색을 지었다.

《지내 욕심을 부리는게 아닌가요. 일거리가 좀 호락호락해야 의욕도 생기는 법이지요. 목표가 지내 아름답보이면...》

《아니야.》

철화는 성급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동무들은 지금 더 벅찬 일거리에 맞다들기를 바라고있어. 기세들이 하늘을 찌를듯 하단말이야. 동무는 그 기세속에 담긴 힘을 아직 모르는것 같구만.》

호남이는 얼굴을 약간 붉히며 철화를 마주보았다.

《모르지야 않지요.》

《안다면 좋소. 그 힘을 믿자구. 믿는 사람일수록 일거리를 맡기기마련이라는것을 저 소대원들도 잘 알고있는거야. 두고보라구. 대원들은 보다 높이 세워진 목표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나. 큰 믿음은 반드시 큰 힘을 낳는다는것을 알아야 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일에 대한 열성을 동무자신보다 낮추 봐선 안돼. 그렇지 않은 경우 얹잡아 보는것으로 되지.》

곧 소대협의회가 열렸고 보다 높은 결의목표가 세워졌다.

분명 소대원들속에서는 이전에 볼수 없었던 패기와 정열이 넘쳐났다. 조별, 개인별, 작업경쟁도 표의 붉은줄들은 키돋움하듯 쑥쑥 솟아올랐고 휴식참의 하모니카소리와 무릎씨름은 더 활기를 띠었으며 작업방법과 기술문제에 대한 논쟁은 회수가 더 잦아졌고 맹렬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점심참에 소대휴게실에 들어서던 철화는 책을 열심히 읽고있는 류달제를 보았다.

《단편소설집이로군 재미있나 ?》

청년은 시무룩이 웃었다.

책을 받아들고 군데군데 펼쳐보던 철화는 책갈피에 끼워있는 독자증을 뽑아들었다. 대출란에 빈틈없이 적혀있는 책이름들을 더듬어보고난 철화는 의미있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군도서관의 열성독자로군. 그런데 나쁜 버릇이 있구만》

《?》

《이런 좋은 책을 혼자서만 끼고다니면 되나. 나누어보거나 읽어주기도 해야지.》

그날저녁 철화는 호남이에게 휴식참에 소설독보를 조직하는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소설독보라니요 ?》

호남이는 금시초문이라는듯 눈이 휘둥그레졌다.

《달제가 소설을 아주 좋아하더군. 일도 억척같이 해대지만 감정도 풍부한 친구야.》

철화는 관공이 두드러진 볼편에 잔주름을 모으며 밝게 웃었다.

《달제가 지금 읽고있는 책에 〈자기 위치 앞으로〉라는 단편소설이 있어. 내용이 아주 좋아. 그걸 시켜보자구.》

호남이는 철화의 제의가 썩 마음까지 않았으나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날저녁 호남이는 래일 달제가 독보할 단편소설을 읽어보았다. 호남이도 한때에는 소설을 탐독하였었는데 소대장이 되면서부터 일에 잡히워 독서를 멀리했었다. 철화의 말대로 소설의 내용은 좋았다. 오래간만에 소설을 읽고나니 마음이 깨끗해지며 머리가 건뜻해졌다. 뒤이어 로동자들과 함께 숨쉬며 지휘성원의 위치를 빛내여가는 작품의 주인공인 지배인에게 비할 때 자기는 너무나도 까마득히 뒤떨어졌다는 뉘우침이 커졌다.

다음날 아침 호남이는 작업배치를 끝내자 달제를 불렀다.

《소설랑독을 좀 하자구.》

《아니 제가요 ?》

《사로청위원회와도 토론이 있었소. 회수는 매주 두회, 오늘 할 제목은 〈자기 위치 앞으로〉야.》

호남이는 명령조로 말하며 책을 쥐여주었다. 지금 호남이는 철화의 추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가 바라고있던 일을 실천하고있는듯한 기분이였다. 시뭇하게 책을 받아든 달제는 접어놓은 갈피를 펼치고 성급히 읽어보았는데 글줄을 따라 움직이던 눈이 차츰 빛을 뿜었다. 얼마후 책에서 눈을 떼 달제는 호남이를 마주보았다. 언제나 장난기 어린 미소가 잔물결치던 얼굴은 전에없이 다감하면서도 순진한 빛을 띠었다. 그것은 자기가 즐겨하고 귀중히 여기는것을 살뜰히 헤아려주는 사람에게만 지어보일수 있는 표정이기도 했다.

소설랑독은 2호지점의 로반다직작업을 한차례 치르고난 첫 휴식시간에 있었다. 억양과 감정을 붙여가며 담담히 읽어나가는 달제의 소설랑독은 소대원들의 인기를 끌었다. 작업이 다시 시작되자부터 소설의 내용이 화제에 올랐다.

이전에 벌어지군하던 문제성 없는 산만한 논쟁은 전개력 있는 지배인과 25톤기동기, 《다람쥐착상》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졌으며 그것은 유압식자갈다짐기와 철길의 강도문제까지 번지여갔다. 철화는 지나가는 말처럼 호남이에게 말했다.

《보라구, 얼마나 활기를 띠는가.》

《대장동지는 언제 저 소설을 읽었습니까?》

《읽지는 못했지만 내용은 이미 알고있었지.》

사실 철화는 소설을 읽기도 좋아했지만 듣기를 펴 좋아했다. 놀랄만한 기억력을 가진 철화는 공사장의 휴식참이나 철길소대 수직실에서 청년들에게 얻어들은 많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새겨두고있었다.

《좋은 소설이야. 그 지배인이 정말 마음에 들거던. 동무도 점잖게 입을 다물고만 있지 말구 저 논쟁에 끼여들라구. 조직한 다음에는 휩쓸릴줄도 알아야 해.》

소설독보는 지정된 날자에 어김없이 진행되였다.

×

섬광같이 번쩍이며 흘러가는 나날속에 계획했던 일거리들이 하나하나 아귀를 지어갔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침묵의 고정못에 썩기를 박아나가던 소대원들은 로변의 나무그늘밑에서 땀을 들이고있었다. 경쾌한 기적소리를 울리며 러객렬차가 달려왔다. 차창밖을 내다보는 러객들의 명랑한 얼굴과 창턱들에 올려놓은 과실이며 사이다병들이 언뜻언뜻 지나갔다. 맨 뒤칸의 승강대에서는 말쑥한 여름옷차림을 한 젊은 남자가 이쪽을 향해 손을 짓고있었는데 넥타이와 옥색치마자락이 가볍게 날리였다.

《히야 저거!신혼부부로구만.》

고요나무밑에 앉아있던 희태가 큰거나 본듯이 소리를 쳤다.

《멋있는데.》

결에서 손을 마주 흔들던 달제도 탄성을 올렸다.

《넌장, 누구는 저렇게 신흔러행이나 다니구. 철길원이라는건 이런 때에 영 죽여준단말이야.》

멀어져가는 렬차를 심란하게 바라보던 희태가 혼자소리로 두덜거렸다.

《시시한 소리 작작하라우.》

통을 놓는 달제에게 희태는 불끈하고 대들었다.

《아니, 내가 못할 소리를 했냐?》

《그건 철길원다운 말본새가 아니야. 저 동무들에게도 땀흘려 일하는 초소가 있거던.》

티각거리는 두 청년을 바라보던 철화는 호주머니에서 큼직한 사과를 하나 꺼내더니 레루고정못으로 가볍게 때렸다.

사과는 칼로 벤듯 두쪽이 났다. 철화는 그 한쪽을 호남이에게 주며 가볍게 한숨을 지었다.

《저 희태란 녀석이 아직 잠에서 덜 깨여났군. 노는 꼴을 보니.》

아니다나를가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루일을 마치고 작업장을 되돌아보던 우철화와 호남이는 썰기질을 한 고정못 하나가 솟아나와 거들거리는것을 발견했다. 호남이는 그것이 낮에 희태가 박아넣은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냈다. 철화의 눈살은 대뜸 꺾혔다.

《작업총화때 단단히 비판을 주어야겠소.》

《일은 썩 잘합니다.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걸 가지구 뭘...》

철화는 호남이를 마뜩지 않게 흘겨보았다.

《그렇게 어루만지는건 동무들을 따돌리는것이야. 사람들을 그런 본새로 대하면 그들이 자네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속을 주지 않는 소대장으로 치부하고 더는 따르지 않을걸세. 타이를 때엔 뜨끔하게 타일러주어야 해. 귀한 자식 매 한개 더 때린다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

철화는 마른기침을 뉘번 툇더니 목소리를 추슬렀다.

《우리는 철길을 보수만 하는것이 아니라 두어깨로 떠받들고있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자각하고있는 사람은 렬차가 지나갈 때면 렬차보다도 그것이 구울러가는 철길을 살펴보며 그 상태를 몸으로 감각하군하지.》

손에 들고있던 검사마치를 공구주머니에 찔러넣은 철화는 나직이 계속했다.

《썰기가 솟아난 고정못은 희태가 달제와 함께 휴식하던 바로 코앞에 있었소. 희태에게 다문 얼마간의 책임성이라도 있었다면 지나가는 렬객들에게 잡소리를 던질 대신 자기가 박은 고정못의 견딤상태를 살펴보았을거요. 모두가 희태같다면야 누가 마음놓고 기차를 타고 다니겠소. 그래 이게 그냥 스쳐버릴 일이란 말이에요?》

이날 작업총화가 끝나자 우철화와 호남이는 소대작업실로 향했다. 호남이는 방금전 희태에게 자기로서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추궁을 한지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희태에게 준 나의 비판이 너무 지나쳤던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린 동문데.》

속이 알찌근해있는 호남의 말이였다.

《마음이 언짢을수 있지.》

철화는 눈길을 먼곳에 돌린채 떠떠떠떠 뇌이였다.

《진실한 비판이란 받는 사람 못지않게 주는 사람에게도 가슴아픈것이지.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해선 안돼. 비위에 맞지 않는 음식은 익지 않아도 되고 실끔한 구경은 보지 않아도 되지만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사람의 병집은 눈감아버릴수 없는거야. 상대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하지. 처음엔 괴롭지만 그 비판으로 해서 깨끗하지 못한것이 가시여질 때에는 괴로왔던 그 일이 기쁨에 찬 믿음을 낳게 하거던.》

두사람은 지름길인 강쪽에 들어섰다.

강물은 제방의 석축을 활으며 쉬임없이 흘러가고있었다. 석양빛이 어린 강물은 오늘저녁따라 기이한 인상을 자아냈다. 금빛 락조를 받은 강복판은 금붕어비늘처럼 번쩍였으나 그늘진 강굽이는 깊은 호심마냥 침침하다. 짙은 명암속에 단조롭게 주절대는 강물소리는 자기들만이 간직하고있는 간절한 무엇에 대하여 속삭이는듯싶었다.

저녁을 치르고난 호남이는 소대휴게실에 앉아서 사업일지를 펼쳐놓았다. 이 방을 침실로 쓰는 철화는 불일이 생겨서 방금 철길대에 올라갔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벽시계소리와 책장 번지는 소리뿐 조용하다. 이 달은 아직 한주일이 남았으나 오늘까지 기본적인 작업대상들을 끝냈다.

철길은 표준강도인 0점수준으로 판정되었으며 예견했던 구조물보수도 거의 마무리를 지었다. 남은것은 02호 암거보수작업인데 그 일은 극상 나홀이면 충분하다. 큰집을 벗어놓은듯 어깨가 가벼워졌으나 속은 후련치 못했다. 보이지 않는 눈길이 아직도 탐탁치 못한 자기의 걸음새를 지켜보는것 같기도 하고 눈앞에 얼른거리면서도 선뜻 잡히지 않는 귀중한 무엇때문에 원심을 쓰는듯한 야릇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했다.

가벼운 손기척소리와 함께 깨끗한 철도복차림의 달제가 향수대를 풍기며 들어섰다. 울적해있던 호남이는 전에없이 소탈한 달제의 얼굴을 대하니 마음이 한결 개운해졌다.

《어디 선을 보려 가겠냐?》

《내 색시감이야 소대장동무가 골라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가.》

두사람은 유쾌하게 웃었다. 무간한 사이에 있기 마련인 긴치 않은 말마디가 얼마쯤 오갔을 때 달제가 먼저 정색을 했다.

《오늘 작업총화때 희태가 소대장동지에게 비판 받는것을 보며 많은것을 생각했습니다.》

《어째 동정이 가던가?》

《동정이라니요. 희태로서는 그 비판이 보약으로 될겁니다. 속통이 큼직한 친구니까요. 이제부터 일을 본때나게 제길겁니다. 사실 빠개놓고 보면 희태보다 제가 더 문제거리지요.》

《그건 무슨 소리야?》

《아무때고 털어놓으려 했었는데 기회가 생기지 않아서, 성을 내지는 않겠지요.》

《이거 심각한데. 어서 말하라구.》

달제는 보다 온건한 생각을 가다듬는듯 아래 입술을 뒤편 감빨더니 나직이 말꼭지를 떼었다.

《나는 이 한달동안에 제멋대로 놀아나던 때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귀중한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은 철길이 변변치 못했던것은 저같이 너절 한 축들이 있었기때문이지요.》

호남이는 의젓하게 뇌이는 달제를 마주보았다. 스물두살이란 나이 보아서는 숙성한 축이었으나 보르르한 솜털이 채 자리잡지 못한 불편과 덧없이 허둥거리는 머루알같은 눈은 그를 껴 애되어보이게 했다.

《저는 얼마전까지도 소대장동지를 맞갖지 않게 보았했습니다. 소대장이라기보다 제 할일밖에 모르는 보통 철길원처럼 보이더군요. 우리에게 좋다가거나 그르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 할일만 해했으니까요.》

《줄장부로구만. 그런 속대를 왜 진작 터놓지 않았나?》

《말할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일밖에 모르는 저런 무감정의 소대장밑에서는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도 평가는 고사하고 씨원한 칭찬 한마디 들어보지 못할거라고 두덜대며 되는데로 지냈지요.》

달제의 말은 퍼그나 예리했으나 걸치레가 없는 한마디한마디에서는 가슴을 치는 진정이 풍기었다. 한껏 너그러워진 호남이는 이 순박한 청년이 자기 속을 마음놓고 터놓도록 키질했다.

《그러니까 달제는 여직껏 평가를 바라고 일해왔구만?》

달제는 얼굴이 약간 상기되며 말이 좀 빨라졌다.

《평가를 바라고 일한것은 아니지만 알아주지 않는것은 좀 섭섭했습니다. 하긴 알아준다는것은 곧 평가를 말하는거지요. 명확한 평가가 있어야 뒤떨어진 사람의 분발도 있을게 아닙니까. 뽕어번지고

부대끼는 속에서 자기를 건주어보아야 발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그때의 소대장동지한테서는 미지근한 인정은 받을수 있었지만 뜨거운것은 기대되지 않았습시다. 정 수틀리면 범골로 달아빠려고 했었으니까요.》

호남이는 시무룩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호남이로서는 퍼그나 서글픈것이였다. 하지만 그런 내색은 비치지 않은채 바람벽에 비스듬히 기대여앉았다.

《이제라도 보내줄가?》

《아무리 등을 떠밀어도 안가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소대에 정이 들었던말이지?》

침중했던 달제의 눈은 등불을 켜듯 반짝이였다.

《뒤편하고 할가요. 잔잔할줄만 알았던 바다가 용을 쓰며 뒤편지는것을 본듯합니다. 일해볼 맛이 납니다.》

두사람은 밤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

우철화는 02호 암거보수작업 마감고비에 들어섰을 때 다시 나타났다. 호남이와 함께 콘크리트타입작업을 한참 해대고난 철화는 잠판우에 걸터 앉았다.

《그동안 일을 엄청나게 했구만. 수고했소.》

《나야 뭐, 동무들이...》

철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대동무들이 모두 괜찮아. 이런 동무들을 데리고 애를 먹어온 자네가 리해되지 않누만.》

《모두가 합일을 스스로 찾아합줄로 믿었지요. 어째서인지 동무들더러 이래라저래라 하고싶지 않더군요. 부질없는 잔소리같아서... 그것이 옳은 사업방법이려니 했는데 결국은 동글동글이였지요.》

철화는 어깨에 걸쳤던 옷옷에 팔을 꿰며 가늠 못할 낯색을 지었다.

《알만해. 자네는 애송이 철길원때 남이 일러주는 말엔 기어코 엇가군했지. 그후 4급기능공이 된 어느날에는 <일에서 오는 피곤은 달콤한것이지만 싫은 소리를 해준 사람의 뒤소리는 뼈가 저리다>고 말했다가 나에게 욕을 먹었었지. 달제또래의 새세대들은 자네의 애송이적과는 다른 사람들이야. 그들은 강한 요구와 엄격한 총화를 받고싶어하고 그런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며 쉬임없이 내달리려는 사람들이거든. 사람들을 잘 알아야 해.》

멀리 광산으로 들어가는 철도인입선쪽에서 야무진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그쪽에 잠시 얼굴을 돌렸던 철화는 웅글은 청으로 물었다.

《술개철다리공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았소?》

술개철다리는 범골구간에 놓여있는 32미터 높이의 철교였다. 철화는 며칠전에 이 철교의 침목교체공사가 끝 진행된다는것을 말한적이 있었다.

선뜻 대답을 못하는 호남이를 여겨보던 철화는 길게 코숨을 쉬었다.

《강건너 불보듯 하고있었구만,》

《제 코도 못씻는 주제에 어떻게 그런 큰일거리까지...》

《뭐라구 ?》

철화는 미간에 고량을 파며 얼굴을 붉히었다.

《자기 소대가 할일이 아니란말이지. 그래, 동무네 소대가 맡은 철길토막만 가지고 기차가 다닐수 있어 ?》

철화는 담배를 성급히 붙여물었다. 어찌나 세관게 들이빨랐던지 서너모금에 절반이나 타들어갔다.

《류달제동무는 어딜 갔소 ?》

《대휴를 받았습시다.》

《무슨 일로 ?》

《급한 불일이 있다면서...》

《그래 ? ...》

철화의 낮에는 묘한 웃음이 피어났다.

《그 동무가 오늘 술개철다리에 가있더군.》

《?!》

《정찰을 간 셈이지. 동무가 남먼저 가야 할곳에 달제가 대휴를 받고 갔단말ियो.》

철화의 말을 묵묵히 듣고있던 호남이는 짙이는 바가 있었다. 자기의 속을 허물없이 터놓던 잇을수 없는 그 밤에 달제는 자기들을 철다리공사에 참가시켜줄것을 제의해왔었다. 우리 소대는 아직 그런 큰 공사를 맡기에는 이르다고 하는 호남이에게 달제는 이렇게 말했다.

《안되다니요. 우리 소대가 남만 못한게 뭘니까. 해낼수 있습니다.》

열변 그 목소리를 되새기는데 철화의 굵직한 음성이 귀전에 울려왔다.

《청년들을 옳게 이끌자면 자신이 청년으로 되어야 해, 물론 일에서 앞장서는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되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데서도 앞질러나가야 해. 동무들로 하여금 우리 소대장이 하는 일이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드팀없이 실천해 나가는 가장 옳고 빠른 길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말아야. 그것이 부족할 때는 강한 요구를 내세울수도 없구. 또 밑에서 받아물지도 않아...》

은근하면서도 무게있게 울리는 철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호남이로 하여금 오만가지 생각에 잠기게 했다. 사실 철화의 말은 새로운것은 아니였으나 호남이의 머릿속은 일군들 그 누구나가 응당 갖추어야 할 본도를 뻔히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몹시 번거로웠다.

...술개철다리 침목교체공사를 위한 참모회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다. 모임에는 철길대 참모일군들과 소대장들이 참가했다. 술개철다리는 레성강 상류가 뽕질하듯 흘러내리는 골짜기의 랑쪽 절벽을 건너지른 아찔하게 높은 철교였다. 이 다리는 우철화철길대가 맡고있는 3백리구간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시설물이었다.

며칠전 철길대 지휘부에서는 《5.18무사고정시건인초파운동》에 호응해나선 중요전투목표의 하나로서 술개철다리의 침목을 일시에 전량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참모회의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오고갔으나 30여년의 철길원 경력을 가진 철화가 무릎을 칠만한 신통한 방도는 나오지 않았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 때 나이지숙한 한 소대장이 일어섰다.

《그렇게 한꺼번에 바꾸자고 들면 아무리 머리를 짜야 신통한 수가 없을거우다. 차라리 서너번에 꺾어서 하는게 어떻습니까?》

철화는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김빠진 소리 작작하오... 력량을 집중해서 단번에 해치워야 하오. 그것도 렬차운행을 정시에 보장하면서 말ियो. 밤새껏 울다가 누가 죽었소 한다더니 동무는 아직 회의분위기도 모르고있었구만,》

책망조의 그 말에 허둥거리며 주저했던 그는 앞에 놓인 재털이를 엮지르는바람에 사람들을 웃기였다.

뒤이어 창문결에 앉아있던 몸매가 갱뽕한 청년이 일어섰다. 범골소대장 박성춘이었다. 그는 호주머니에 찔러넣었던 수첩을 펼치더니 면적이 극히 제한된 철교우에서 최대의 능률을 낼수 있게 짜진 작업공정을 열띤 소리로 조리있게 설명했다.

《...침목교체는 한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로력은 두개소대...》

그 방도는 크게 새로운것은 못되었다.

오히려 비상한 작업속도를 전제로 하는 그 공사안에 적지 않은 우려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형편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는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나머지 안건은 공사에 참가할 소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방안은 갑자기 폭풍을 앞둔 바다처럼 조용해졌다. 비범한 투지와 높은 작업속도를 요구하는 영예롭고 벅찬 그 과업이 과연 어느 소대에 떨어질것인가, 물론 가장 적중한 방도를 찾아냈으며 범골의 술개철다리구간을 직접 맡고있는 박성춘소대일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한개소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소대장들 치고 혁신과 위훈에 대한 열망으로 가슴불태우지 않는 사람이 그 누구이라.

하나 사람들은 영예와 보람이 크고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것일수록 거기에 남먼저 손을 내밀기를 저어하기마련이다.

한쪽 구석에 수긋하고 앉아있는 호남이도 이런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감히 남들과 어깨를 겨루어볼 위치에 서있지 못하고있음을 뼈아프게 느끼고있었다. 꿈틀거리는 자존심을 쫓버리고 남에게 이끌려오던 자기의 초췌한 몸과 함께 술개철다리공사를 열렬히 탄원하던 류달제의 얼굴이 채바퀴처럼 엉켜돌았다. 무능하고 존재가 없는 소대장을 만난것으로 하여 한껏 기를 펴고 날지 못하는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가. 아, 내가 좀 더 빨리 자신을 취세웠더라면!...

우철화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방안에 울려왔다. 《공사에 참가할 소대 선발은 이미 토론되었습니

다.》 철화는 손에 들고있던 종이장을 잠시 굽어보더니 방안을 위엄있게 둘러보았다.

《침묵교체공사는 지호남소대가 맡게 됩니다. 보조작업조는 박성춘소대와 청년돌격대... 의견이 있으면 말하십시오.》

《!!》

호남이는 꿈결에서처럼 들려오는 그 목소리와 와들 놀랐다. 심장이 세차게 뛰며 자신의 존재조차도 흥미해지는데 일제히 쏘려오는 믿음과 선망의 시선도 미처 감축 못했다. 현훈중이 나도록 두근거리는 가슴을 눅갓히며 천천히 고개를 들던 그는 철화와 시선이 마주쳤다. 철화는 성이 난것 같기도 하고 웃는것 같기도 한 기색으로 약간 고개를 끄덕였다. 일순 호남이의 눈은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더니 초점없이 방향하다가 창가에 놓인 화분의 선인장에서 머물렀다. 선인장과와 사이에 갇힌 인연을 감감하게 잊고있던 호남이는 부러진 잎에서 돌아나 퍼그나 크게 자란 새 이파리를 신기하게 여겨보았다. 그것은 언젠가 우철화에게 그토록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던 이파리였다.

×

술개철다리 침묵교체공사는 사흘후에 시작되었다. 아찔하게 솟은 다섯개의 원추형교각에 떠받들려온 철교는 험상궂은 기복을 이룬 산밭을 배경으로 높이 솟아있었다. 까마득한 철교우에서 내려다보이는 강물은 실로 이채로웠다. 하늘이 그대로 비껴 담긴듯한 푸른 강물은 물흐름의 굴곡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까딱 움직이지 않는듯했으며 바위를 타고넘으며 뒤번져지는 물거품들은 푸른 바탕에 흰색으로 그려진 선명한 그림같았다.

공사에 앞서 면밀한 준비작업이 선행되었다. 구역별 번호별로 미리 가르어놓은 침묵들이 전동차

에 운반되어와서 철다리의 량쪽공지에 순위대로 쌓이였다.

...오색기들이 꽃힌 벼랑밑에서는 순회공연을 나왔던 도예술단의 취주악대가 《3대혁명 기치높이 전진 또 전진》을 련이어 불어댔으며 판리국과 린접역들에 련결된 로천지휘부의 전화기앞에서는 철화가 1분이 멀다하게 전화를 하고있었다. 지태봉로인과 함께 인민반들에서도 로력지원을 나왔다. 로인은 큼직한 비닐통을 들고 공구를 정비하는 소대원들에게로 갔다.

《이런 큰 공사를 할 때에는 먼저 속을 씨원하게 추겨야 해.》

령감은 젓빛이 나는 걸죽한 액체를 반리터짜리 대포잔에 가득히 부어 류달제에게 내밀었다.

《아니 이건?!》

달제가 손을 저으며 기겁을 하자 령감은 껄껄대며 웃었다.

《술인줄 아나? 감자농마로 담근 단감줄세. 맛이 괜찮아.》

모두가 즐거워졌다. 잔이 몇사람의 손을 걸쳤을 때 로인은 새로 부은 잔을 호남이에게 주었다.

《너도 마셔라.》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표정은 엄했다. 호남이는 잔을 두손으로 받아들며 아버지를 마주보았다.

하많은 이야기를 담은 부자의 눈길에 말없이 오고갔다.

(이놈, 여기가 바로 네가 쫓겨난 범골이다. 네가 넘어졌던 그 자리란 말이다!)

(알고있습니다. 쓰러졌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립니다. 모든것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제구실을 온전히 못하면 남의 축에 빠지게 되구 사람들의 믿음을 살수 없다. 참다운 일꾼이란 동무들에게 믿음을 받는 사람임을 명심해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마시라는데두.》

철화가 다정히 어깨를 건드려서야 등을 돌려대고 단숨에 들이켰다. 멀리서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철화의 신호에 따라 소대원들은 모두 자기 위치로 흩어져갔다. 레루를 울리는 달그락소리가 차츰 커지더니 건설자재와 석탄을 만재한 중량화차들이 길게 잇달린 화물열차가 달려왔다. 마지막차량이 철교를 지나자 호각소리가 길게 울렸다.

작업시간 신호였다. 이 시각부터 다음번 평양행 려객열차가 오기전까지의 58분간이 차단승인시간이다. 이 짧은 시간에 침묵교체공사를 끝내여야 한다. 철교의 량끝에서부터 맹렬한 기세로 작업이 시작되었다. 보장조인 박성춘소대가 순식간에 레루를 짓혀버리자 본격적인 침묵교체가 벌어졌다.

철화는 작업진행을 예리하게 살폈다, 처음엔 현기증이 날만큼 까마득한 철다리에 위축되어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대원들이 비호같이 날래고 자신만만한 소대장에게 끌려들어 번개같이 침목을 갈아냈다.

《아래를 보지 말고 앞과 손놀림만을 살피라.》

《108번 침목을...》

짙막하고 발음이 정확한 호남의 목소리와 쇠붙이 부딪치는 소리가 들릴뿐 조용하다

소대원들은 호남이의 간결한 말마디와 손짓으로 모든것을 알아채고 기민하게 움직이군했다.

시간은 빨리도 흘렀다. 차단시간은 이제 28분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에 비하여 기적적인 능력을 냈으나 아직 적지 않은 작업량이 남아있었다.

철화는 재빨리 속구구를 해보았다. 지금의 속도대로 내밀면 나머지 시간도 충분하다. 그러나 팍투성이가 된 사람들의 동작은 벌써 탄력을 잃기 시작했으며 퍼그나 지친 얼굴들도 간혹 눈에 띄었다. 철화는 활시위처럼 팽팽해지는 긴장속에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기가 해야 할바를 소스라쳐 느끼며 웃옷을 벗기 시작했다.

순간 철화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며 호남이쪽에 얼핏 고개를 돌렸다.

호남이는 철다리복판에 철기둥처럼 뻗치고 서서 촉박한 시간으로 하여 덧없이 헤뎀비기 시작하는 대원들에게 침착하게 요구도 하고 지시도 하며 불트를 채 맞추지 못한 침목들에 배치했다. 그리고는 량손에 나사틀개를 거머쥐고 레루런결나사를 붙이 나게 죄여나가기 시작했다.

《소대장이 량손치기를 한다!》

류달제의 고탍소리에 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호남이에게 쏠렸다. 과연 호남이의 일손씨는 볼만했다. 똑같이 움직이는 두손은 재빠르면서도 군손질이 없었다.

신통히도 서로 이길내기를 하는 두사람의 손을 방불케 했다. 룰동적으로 들썩이는 어깨우에서는 목에 걸린 수건이 기폭처럼 나뭇꼴다. 그것을 본 소대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예비나사틀개를 뽑아 들더니 소대장처럼 량손치기에 달라붙었다. 갑자기 쇠붙이 마주치는 소리가 갑절로 늘어나며 작업은 다시 열을 올리였다. 침목과 레루들이 신속하게 조립되는속에 경간우의 빈 공간이 폭폭 줄어들었다. 호남이는 결눈 한번 팔지 않고 일손을 죄여냈다. 날과람 있으면서도 침착한 그를 따라 소대원들은 하나와 같이 움직이었다. 그들을 미덥게 지켜보는 철화는 이제부터는 자기가 여기서 떠나도 일없

다는것을 느끼였다. 하나 그들과 오래도록 함께 있고싶었다...

멀리서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33호 추도에서 울리는 기적일것이다. 렬차는 어김없이 5분후이면 이곳에 달려올것이다. 마지막 침목의 수나사를 째싸게 맞추는 호남이의 등뒤에서 웅글은 목소리가 울려왔다.

《넉넉하다. 덤비지 말아라.》

호남이는 얼핏 고개를 돌렸다. 거기에는 철화와 함께 아버지가 서있었다. 가슴속에 파스한것이 그들먹이 차오르며 마음이 든든해졌다.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뿐아니라 철화며 류달제, 희태 등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흘러드는것이라...

다시 일손을 죄여대는 호남이의 뇌리에는 앞강으로 떠날 때 그토록 아픈 말을 해주던 철화며 그와 함께 지낸 한달동안의 나날들, 밤중에 찾아왔던 류달제와 비판을 받던 희태의 모습들이 련이어 스쳐지나갔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품속에서 뜨겁고 진실하게 나누어지는 서로의 믿음은 주는 사람에게나 받는 사람에게 다같이 귀중한것이며 크나큰 힘을 날게 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젊음을 더욱 윤력하게 해주며 혁신의 창공으로 보다 높게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이기도 하다.

침목교체작업을 말끔히 끝낸 그들이 철교밖으로 철수하여 숨을 돌리는데 저쪽 굽인돌이에 렬차가 나타났다. 평양행려객렬차였다. 우철화는 공구함에서 꺼낸 푸른 기발을 호남이에게 내밀었다.

호남이는 림름하고 의젓한 자세로 기발을 펼쳐들었다. 응답기적과 함께 육중한 기관차가 쏜살같이 철다리에 들어섰다. 뒤이어 풀빛도색이 알른거리는 객차들이 획획 지나갔다. 차창마다에서는 한껏 명랑해진 얼굴들이 손을 짓기도 하고 웃음을 보내오기도 한다. 호남이가 수평으로 쳐든 푸른 기발이 렬차가 풍기는 세찬 선풍에 호기있게 나뭇긴다. 그의 등뒤에 담벽처럼 둘러선 소대원들에게서는 득의양양하고 호방한 기개가 넘쳐났다. 저쪽에 몰려선 박성춘소대원들도 이쪽을 향해 뭐라고 손짓하며 친근한 웃음을 지었다. 렬차가 달려가는쪽의 첩첩한 산밭우로는 구름한점 없이 말쑥한 하늘이 펼쳐져있었다. 지레봉로인과 나란히 서있는 철화에게는 청년들의 가슴에도 한가득히 비껴올 저 하늘이 지금 호남이가 들고있는 신회기발과 색깔이 똑같아보였다.

렬차는 멀리 사라졌으나 호남이는 기발을 펼쳐든채 그린듯이 서있었다.

탄 생 외 2 편

리병철

승업함이

하냥 물결치며

가슴에 밀려드는 혁명박물관

빛나는 화폭앞에 나는 서있다

얼음장을 떠실고 흐르는 강물

젖빛 물안개 피어나는 철은 봄철

아마도 고유수나 오가자 땅이리라

수난의 절정에서 허덕이는 머슴군들에게

삶의 새길을 열어주시려

우렁우렁 울리시는 친근한 음성

경애하는 수령님은 말씀을 이으시고...

한생 가대기를 끝머

지계를 지며

흘리는 자신들의 그 피땀이

결코 물이 아님을 머슴군들은 깨닫고...

-나라를 찾자!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자!

사람으로 살자!

마디마디 가슴을 두드리는 말씀

참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빼앗긴것이

무엇인가를 심장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저리히도 눈에서 불이 일고

저리히도 눈에서 기쁨이 샘솟는것인가

어둠던 그 세월에

밝은 해빛을 안고

새시대

새 인간으로 탄생한

맨 첫사람들

그때 이들이 처음 본

푸른 저 하늘이

그때 이들이 처음 안은

땅우의 그 기쁨이

오늘은 정녕 온 조국의 뭉으로 되었구나

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받드는 길

이 땅 어디서나 나는 만난다

이 화폭속에서 낮익은 사람들

그들은 수령님을 따라

저 안도의 수림을 떠난

영광의 대오에도

총을 메고 척척 발을 맞추었으리

해방된 조국땅에서는

마치를 들고 공장도 일떠세웠으리-

모두가 수수하고 평범하다

그러나 아름다운 모든것을 속에 감춘듯

눈이 가장 빛나고

담이 가장 큰 사람들

아득히 멀던 인류의 미래에

맨 선참으로 들어서서

거기서 남먼저 본 푸른 저 하늘을

거기서 남먼저 안은 땅우의 이 모든 기쁨을

오늘은 온 세계의 뭉으로 넓혀가는 조선사람

우리는 새시대의 대표자!

하나가 천을 이기는...

말없는

저 청산과 더불어

조국강산의 한부분인듯...

창날같은 비살이

땀절은 군복등에 억수로 내려도

전호턱에 심장을 비비며

바위마냥 움푹도 하지 않던 전사

한사람

돌출부 전호에는 혼자였다
그러나 미제침략군의 대대도
련대도
여기로는 단 한발자욱도 넘어서게 못했다
신성한 조국의 고지에는...

하나가 백을 당해내고
천을 이기는 이 힘
견장에 한줄짜리
조선인민군 한 전사의 힘을
수학으로 어떻게 계산하라

해방의 날에야 제이름을 찾은
어제날의 머슴군
아버이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발머리에
패말을 꽃으며 불을 적신 농민

갓 난 아들의 미래를 그리며
양지바른 산기슭
마을의 첫 학교터에 기둥을 세우고
바위를 까낸 보도랑으로 물을 끌어
건갈이밭에 푸르른 벼모를 심고...

그러다가 왔다 여기로
그는 총을 잡고 겨누기보다
낫으로 풀베기를 더 좋아하였다
하지만 원쑤에게는 무자비하고 또 무자비
해야 함을
알았다!

...전호의 면적은
한평방도 되나마나

조국땅의 넓이에 비긴다면
작은 하나의 점

그러나 작은 이 한 지점속에
온 조국땅이 담겨져있음을 잊지 않았다
사랑하는 고향마을
거기 아기의 꿈과 푸른 논벌도
수령님 계시고 당중앙이 있는 평양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명령받은 인민군전사
하늘같은 긍지로
계급의 총을 잡은 억척같은 자각으로
움짹도 하지 않았다

촛촛히 위장망 뜬
그날의 군복 인제는 물도 날았건만
다하지 못한 임무
임무를 기어이 끝내기 위해서인가
전사는 아직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다

말없는
저 청산과 더불어
조국강산의 한부분인듯
수류탄 입에 문채 앞을 노려보는 전사

참으로 그가 떨쳐낸 힘은
우리 땅의 무기에 담겨
봄이면 억만 꽃송이를 피워올리며
가을이면 누런 이삭바다를 받쳐들며
조국의 강대성을 영원히 받들고있어라

더는 늘을수 없다

못다한 일이 많다
못다간 길이 부르고있다

베짱이를 입고
짚신을 신은채 나는
영광스러운 대오에 들어선
락동강기슭 마을의 한 전사

원쑤가 열번을 때면

열한번 고쳐달던 인민위원회 간판
이 손으로 방수포에 싸서
사나이 주먹같은 눈물과 함께 땅속에 묻고
미국놈들과 결판을 짓기 위하여
그 밤에 나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

군사지도우에
최고사령관동지 그으신
붉은 화살표따라

원썹을 죽치며 줄창 급보로만 걸었다-나는
발바닥의 물집을 밟아서 터뜨리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의 길
고향마을 높은 기둥에
인민위원회 간판을 다시 달기 위한
혁명의 길...

이 길에서
어제날의 병사배낭을 내려놓은곳 그 어디서나
짐이라면 참으로 짐이라면
그 크지 않은 배낭에 어려있는
사랑하는 고향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내 말은 일에 어깨를 들이밀었고

충충계라면
그 어느 작은 바람결에도
내 어머니 날 부르는 소리 들려오는듯하여
한걸음에 두충계씩 건너뛰며 오르내렸고

정녕 어디서나 나는 잊지 않았다
영광스러운 년대에 들어서며
통일의 날을 앞당겨가는
가장 위대한 힘의 한부분으로
자신을 합친 전사의 임무를...

아 어찌

우물에 물도 다 마른 그곳에서
잔디도 돌아나지 못하는 그곳에서
늙으신 내 어머니
이 아들을 기다리고있기때문만이라

강산을 적신
저 영웅 광주의 피
생흙무지속에 눈감지 못한
민주항쟁의 원통한 넋들이 날 부르고있음에라

백천번 흰서리 머리에 내려앉고
잔주름 이 얼굴에 감출길 없어도
더는 늙을수 없다
늙을수 없다!

저 백두고원의 이갈숲과
파도치는 남해기슭의 대숲
은혜로운 한 해빛아래
설레일 그날

통일연의 높은 단상 우러러
수령님께 내 어머니 허리굽혀
한생 소원이던 큰절을 올릴수 있도록
맨 앞자리로 나는 그 손길을 이끌어야 할 사람

못다한 일이 많다!
못다간 길이 부르고있다!

정 문 환 영 외 1편

김우협

꽃을 흔들어 환영곡을 울리며
오늘도 정문에선 춤판이 벌어졌다
춤추는 안해의 걸을 지나
남편들이 정문으로 들어들었다

아, 가장 기쁘고 환희로운
그 명절날의 춤판이
여기 내 고향 철의 도시에선
어찌하여 레사로운 아침일파로 되느냐

남이 한걸음은 옮길 때
제힘으로 열걸음 백걸음을 걸으며
우리 당과 함께 가는 길은
마음도 즐거운 명절날

춤의 물동, 노래의 선물에 실려
구내에로 굽이쳐가는 철의 대오

그 무슨 출입증처럼
손에 꽃다발을 든 유치원아이들
경비원도 눈시울이 뜨거워
말없이 차단봉을 올린다

쇠물보다 뜨거운것이 가슴에 끓어
빈손으로 들어갈수 없는 정문
춤추는 꽃물결속을 헤가르며
나도 함께 이 정문에 들어서노라

운명도 미래도 그 품에 맡기고

끝없이 충성하는 인민의 기쁨이
춤과 노래로 된 여기 야금도시
들끓는 제철지구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거니

아, 새 7개년의 승리봉에 올려퍼진
그 환영곡에 앞서
또 하루 강철전사들을 축복하는
조국의 이 아침인사
이보다 좋은 노래 어데 또 있으랴

로문을 사이두고 함께 뛰놀자고
나를 부르며 사품치는가 쇠물
사품치며 빛을 뿜으며
이 땅에 장엄한 해돋이를 부르는가 쇠물

늘 보는 쇠물이어도
언제나 황홀한 용해기의 쇠물
작은 해를 반들어올리는듯
로장은 기쁨에 넘쳐 시료를 뜬다

아, 용해기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뛰노는 때여라
충성의 한마음 출강시간 앞당기면
이제 여기서 해돋이는 시작되고
여기서 빛은 빛을 뿌리리라

여기서 조국의 하늘은 붉게 타고

이렇게 살자
백두의 행군길을 오늘에 이으며 이렇게
장엄한 우리 당의 진군로를
춤과 노래로 장식하며 이렇게

미래를 확신한 생활의 춤과 노래는
쇠물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끓고있거니
아, 우리 당 6차대회가 밝힌
높은 강철고지예로의 행군은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여
이렇게 올라서리라!

쇠 물

여기서 인민의 기쁨은 커만가리니
이 세상 그 어데 비길데 있으랴
우리의 마음이며 노래인 쇠물

아, 출강구를 열자 쇠물을 뿜자
환희로운 이 쇠물의 백광으로
조국의 얼굴이 더 환해지도록
우리 인민의 얼굴이 더 환해지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수령님 기뻐하시도록

한물 또 한물
지동화로 흥겨이 뿜아내는 쇠물속에
하루 또 하루
가까이 다가오는 행복의 나날을 본다
조국의 크나큰 발걸음소리를 듣는다

금나락 설레이는 들길로 외 1편

장호건

흥치며 일렁이며
금나락 설레이는 들길로
치너는 걷는다
어버이수령님 가까이 불러주시며
함께 보자 하시던
그 한이삭 강냉이를 안고...

드넓은 포전마다 돌아보시며
몸소 걸으신 어버이 그 자욱을 따라
걸고 걸으며 이삭과 속삭이고
눈물속에 기쁨속에
소중한 그 이삭을 다시 안아보는
치너분조장의 행복한 마음

이 땅에 태어나
제손으로 가꾼 첫열매라고
그것으로 더없는 사랑을 느꼈더니
그 수수한 하나의 이삭이
아, 어버이수령님께
그처럼 큰 기쁨을 드린것인가!

들도 설레이고
노을도 불타라
달아오른 불에
이삭을 비벼보는 처녀분조장
그 이삭 알알이
온 한해 정성속에 익혀진 낱알

사랑스럽다 나어린 처녀
기특하다 너의 그 정성
부영이 우는 깊은 밤
부러진 한포기 강냉이를 두고도
안타까이 눈물짓던 네가 아니냐

땅김이 피여오르던 그 아침
부드러운 발이랑에 모를 옮기며
깨어진 하나의 영양단지를 들고
그토록 가슴아파하던 네 마음
오늘의 강냉이바다로 펼쳐진것 아니냐

가없이 설레이는 풍년벌을 보며

분조처녀들과 함께
달뜨는 마을로 돌아올 때
그 누군가의 선창에 맞춰
어제날 학창시절의 그 희망을
마음껏 노래부르던 포전길이 아니냐

정녕 웃음도 많았고 눈물도 있었던
주체농법 꽃피워온 그 모든 날들이
이 하나의 이삭에
크나큰 기쁨으로
한없는 영광으로
해빛속에 알알이 빛나는구나

그렇게 가꾼 이삭이어서
그렇게 무르익힌 열매들이어서
귀중한 한이삭의 강냉이를 안고
새해엔 더 큰 풍년 마련하자고
어버이수령님을 다시 모시자고
뜨겁게 속삭이는 그의 마음이런가
넓은 벌 풍년벌이 설레이누나

아, 수령님 다녀가신 포전길
사랑의 그 이삭 알알이
처녀의 가슴에 씨앗으로 뿌려져
은혜로운 해빛아래
포전마다 언덕마다
만풍의 금나락으로 끝없이 물결치리라!

아슬한 하늘가에 말없이...

노한 먹장구름
모진 폭우속에서
미친듯 퇴성을 지르는 번개를 맞받아
한가닥 피뢰침이 싸운다
갈수록 사납게 날뛰는
시퍼런 섬광의 심장에 창끝을 박으며...

결사의 싸움은 그 얼마
울부짖는 비바람을 헤치고
툭날같은 불의 장검들을 꺾어내쳤는가
깨어져 흩어지는 구름장
열리는 푸르른 하늘가엔
칠색무지개 황홀히 비껴흐른다

아

그 뉘의 손길도 바람이 없이
그 뉘의 눈길조차 바람이 없이
광란하는 대자연의 횡포를 물리치고
너는
아슬한 하늘가에 조용히 솟아있구나

화창한 날엔
눈에 잘 띄우지도 않는 너
그처럼 준엄한 때엔
오로지 제 한몸을 굽힘없이 내대어
소문없이 큰일을 하고도
언제나 말없는 네 모습

아
아 가슴에 새기노라

로동당시대 우리 인민의 정서를 훌륭히 구현한 가사

송찬웅

가사창작에서 시대정신을 옹계 구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선들과 함께 인민들속에 널리 불리워야 할 가사의 특성과 관련하여 절박하게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의 가사는 로동당시대에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깊이 있고 진실하게 형상한 명가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노래는 반드시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지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노래가 진실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자면 시대의 벽찬 숨결과 인민들의 생활감정을 옹계 형상하여야 한다.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가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명명한 당을 따라 나가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 깊은 정서가 가사의 구절구절에 맥맥히 넘쳐흐르기때문이다.

그러면 이 가사에 담겨진 로동당시대 우리 인민의 정서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싹트고 키워진 가장 고결한 사상감정 즉 뜨거운 충성의 열정을 그대로 한몸에 체현한 숨은 영웅들처럼 자신의 명예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이 보건말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지해도 열정도 짝그리 바치는 공산주의혁명가-주체형의 인간들이 지닌 숭고한 정신세계이다.

가사에는 이러한 정신세계가 풍만한 정서속에 훌륭히 형상되어있다.

대학을 함께 졸업하고 연구사업을 같이 하던 동무들마저 새들처럼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나간후 주인공이 홀로 남았을 때 울리는 노래의 가사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따뜻한 곳을 찾아 새들은 가도
찬바람 부는 길을 처녀는 가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 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

좋은 철이 지나가고 음산한 계절이 다가오자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가는 새들과 바람부는 들길을 홀로 걸어가는 처녀, 이 두 형상적인 대조속에서 고난에 찬 과학탐구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는 주인공의 내면세계가 얼마나 시적으로 잘 표현되었는가.

우리는 이 가사의 1 절만 읽어도 앞으로 헤쳐나갈 주인공의 운명을 내다볼수 있으며 보람찬 탐구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성실히 바쳐갈 주인공의 드림없는 신념의 세계까지도 엿볼수 있다.

이 가사는 비록 오늘의 숨은 영웅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노래하고있지만 가사를 읽느라면 그보다 앞서 반세기전 백두밀림의 설한풍을 헤쳐간 항일녀성투사들을 생각하게 되는것이다.

그것은 이 가사의 전반에서 느낄수 있지만 특히 영화의 제 2 부에 나오는 두편의 가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눈보라 사나운 길 앞을 막아도
새봄을 안고가네 이 마음속에
옮기는 발자욱 눈속에 묻힌다 해도
새싹은 돌아나고 꽃은 되리라

가사만 보아도 알수 있는것처럼 사나운 눈보라가 앞을 막아도 또 싸우다 눈속에 묻힌다 해도 오직 장군님 따라 가는 그 길에 조국해방의 새봄이 오리라는 굳은 신념을 안고 청춘도 가정도 사랑하는 자식마저 남의 집에 맡기고 서슴없이 혁명의 길을 떠나간 항일녀성투사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느끼게 된다.

이처럼 항일투사들이 지녔던 숭고한 사상감정은 오늘 숨은 영웅들의 가슴속에 꽃으로 피어나 우리 인민의 확고한 생활신조로 되고있다.

가사는 우리 인민의 이러한 신념의 세계를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였을뿐아니라 표면에는 다 표현되어있지 않지만 화면과 함께, 선들과 함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많은것을 련상시켜주는 생활세계를 펼쳐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사색할수 있도록 깊은 여운을 안겨준다.

머나먼 산기슭에 바람세차도
푸른 꿈 안고사는 처녀의 마음
찬서리 눈속에 묻혀도 묻힌다 해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남먼저 찬서리와 눈속을 헤치며 가는 과학탐구의 길에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봄을 먼저 알리는 시대의 선구자가 되리라는 이 절절한 서정토로는 비단 주인공 한사람만의 심정인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굶이치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이며 의지와 신념인것이다.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이처럼 시대의 거창한 숨결과 로동당시대 우리 인민의 정서를 세련된 시형상속에 집중적으로 훌륭히 발휘함으로써 오늘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친근한 길동무로 될수 있었다.

이 가사 전반에서 특징적으로 찾아볼수 있는것은 또한 생활감정이 구체적이고 진실하며 정서가 풍만한것이다.

이 가사에는 생활정서를 떠난 그 어떤 허황한 묘사나 과장도 없으며 인위적으로 꾸며낸 미사려구는 더욱 없는것이다.

가사에는 풍만한 생활정서가 진실하고 소박하게 형상되어있을뿐아니라 매 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

어져있고 운율이 또한 류창한 선율을 타고 불리워질수 있게 매우 순탄하고 평이하게 되어있다.

이 가사에서 특히 매절 세번째단,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쥬도 몰라준대도》
《찬서리 눈속에 묻혀도 묻힌다 해도》
《청춘의 사랑은 소중해도 소중하여도》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대조와 반복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를 강조해주고 있으며 정서적색갈을 더욱 뚜렷이 해주고있다.

이 가사가 그처럼 성공할수 있는것은 당에서 가르쳐준대로 철두철미 생활에 발을 붙이고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인민의 정서를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세련된 시적형상을 통하여 진실하고 소박하게 노래한데 있다.

이 기사를 비롯하여 최근년간에 창작된 명가사들은 모두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당의 정력적이고도 세심한 지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앞으로 우리 가사문학의 전반적인 형상수준을 한계단 높이는데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주게 될것이다.

작가결의

현실은 그대로 노래

최원근

영광의 새해 1981 년이 밝아왔다.

당 제 6 차대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총진군길에 오른 이 뜻깊은 새해에 나는 가보고싶은곳도 많고 쓰고싶은 작품도 많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의 불길속에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야 하며 투쟁하는 로동자, 농민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현실생활을 볼수 있게 되여야 합니다.》

휘황한 80 년대의 사회주의경제건설 10 대전망목표를 향해 총돌진하고있는 새해의 벅찬 현실.

올해 나는 푸른 바다를 정복해가는 간석지건설장으로 그리고 농장벌로, 탄광지구로 달려가 현실 체험을 더 많이 더욱 실속있게 하겠다.

간석지에 가면 청년개발자들의 랑만에 찬 생활속에, 농촌에 가면 풍년씨앗 가꾸가는 근면하고 소박한 농장원들의 보람찬 생활속에 그리고 지하천척 막장에서 충성의 구슬땀을 흘리는 탄부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겠다.

이리하여 현실속에서 창작한 나의 가사 한편한편이 우리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는 투쟁의 노래, 혁명의 노래가 되게 하겠다.

가사문학의 철학성과 여운

안정기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의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명곡을 낳은 명가사의 모범으로서 최근년간 우리 가사문학이 거둔 대표적인 성과작의 하나이다.

이 가사는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깊은 감명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 당에서는 이 영화의 주제가가 성공한 노래라고 하면서 철학적깊이가 있고 사색할수 있는 여운이 있는 작품이라고 가르쳐주었다.

그것은 이 가사에 인간생활의 진리를 세련된 시형상속에 담았기때문이며 한가지를 써서 열가지를 표현하고 열가지를 써서 백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철학적깊이와 여운을 심어주었기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사가 명실공히 명가사로서의 모든 중요한 특징들을 충분히 갖추고있기때문이다.

명가사란 인민들이 두고두고 향구적으로 부르며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 그러한 노래의 가사이며 시대와 함께 세상에 널리 전해지는 그러한 가사이며 심오한 철학성으로 하여 문장에 표현하지 않은 많은 이야기를 심장에 들려주며 또 누가 권하지 않아도 사람들스스로가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노래의 가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162 페이지)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의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우리의 생활속에 있는 진리이면서도 남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다는 모르던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 재현함으로써 보다 새로운것을 인식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더 훌륭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고무하여 주는 힘을 가지고있다.

때문에 이 가사는 자기의 작은 그릇과는 비할바없이 커다란 진폭을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에 메아리치고있는것이다. 이것이 곧 가사가 가지는 철학성이며 여운이라고 말할수 있다.

원래의 의미에서 철학이란 만물의 근원과 원리를 밝히는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로서 계급성과 당성을 띤 세계관에 관한 과학이지만 이 원리는 문학예술분야에서도 예외로 될수 없으며 다만 그것을 사회학적으로나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형상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그 특성이 있는것이다.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바로 이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한 명가사로서 우리 가사문학의 본보기의 하나로 된다.

따뜻한 것을 찾아 새들은 가도
찬바람 부는 길을 처녀는 가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 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

보는바와 같이 여기에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인생의 철학이 굵이치고있으며 사람마다 자기의 립장과 처지에서 인간의 참다운 길이 무엇인가를 사색하도록 하여준다. 남들은 행복의 보금자리를 찾아 새들처럼 날아가지만 주인공만은 고난에 찬 과학탐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였고 그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오직 당과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길로 희망을 안고 간다는것을 정서화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청춘들이 지닌 포부와 희망이며 인생관이며 세계관이다.

또한 이것이 바로 이 가사의 철학성이며 여운이다. 다시말하면 이것이 인간의 참다운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값있게 사는것인가에 대한 예술적인 해답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대학을 졸업한 주인공앞에는 과학실험실이 훌륭하게 갖추어진 연구소도 기다리고있었으며 아름다운 청춘의 미래도 약속되어있었지만 그 길을 다 버리고 바람 세찬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강毅한 의지에 대하여, 나어진 처녀의 몸으로 찬바람을 맞지 않아도 되었으나 오히려 이 길에서 청춘의 희망과 아름다운 꿈을 찾은 그 고결한 정신세계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리해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며 또 걸어갈 인생의 행로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게 된다.

이것은 이 가사에 시인이 써놓은 분량보다 그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느끼게 하며 그렇게 행동하도록 추동하는 힘이 작용하기때문이다.

마치도 성공한 조선화에 여백과 공간이 더 많지만 볼수록 깊은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것처럼 이 가사에 이야기는 적지만 그에 의하여 환기된 사색의 연장선은 매우 길고 비상히 크다고 말할수 있다.

다음으로 이 가사는 높은 시적형상으로 하여 철학적깊이와 사색의 여운을 더욱 강화하여 주고있다.

머나먼 산기슭에 바람 세차도
푸른 꿈 안고 사는 처녀의 마음
찬서리 눈속에 묻혀도 묻힌다 해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여기에서는 찬서리 눈속에 묻힌다 해도 봄을 먼저 알리는 시대의 선구자로서의 《꽃》이 되겠다는, 다시말하여 당과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충성의 《꽃》이 되겠다는 고결한 심정과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고있다. 이 가사의 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주체의 인생관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는가!

여기에서 꽃과 찬서리 그리고 봄은 모두 자연이지만 그것을 인격화하여 주인공의 지향과 념원, 신념과 의지를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형상적으로 표현하는데 성공한것이다.

이 노래에는 정치적인 구호나 직선적인 단어의 표현이 하나도 없지만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해온 우리 시대의 숨은 영웅들의 고상한 정신세계가 잘 부각되어있을뿐아니라 자연과 인간, 심리적인 것과 표상적인것들이 유기적으로 훌륭히 결합됨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격렬하게 자극하고있다.

시인은 《찬서리》를 주인공의 앞을 막아서는 역경으로 보았으며 《봄》을 희망의 상징으로 그리고 《꽃》을 념원의 실현으로 형상하였다.

이와 같이 자연현상을 인간의 운명과 적절하게 밀착시킴으로써 직선적인것을 피하고 정서적인 향기가 더욱 풍기도록 높은 형상으로 노래하였다.

물론 지난날에 우리들이 쓴 일부 작곡되지 않은 가사들에도 자연현상을 생활감정과 결부시켜 노래한것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꽃》이요, 《별》이요, 《하늘》이요, 《땅》이요 하는것들이 이 가사에서처럼 그렇게 빛을 뿌리지는 못하였으며 철학적인 사색과 결부되지도 못하였다.

다시말하여 표현된 자연현상이 그저 서정성의 외피를 갖추거나 음악성을 노리는데만 많이 작용하고 생활의 진리와 인간의 운명선과는 밀접하게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런 가사들은 배외없이 철학성이 허약하고 여운도 희박하다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단어나 문장이 주는 의미외에는 더 느낄것이 없으며 우리의 생활을 위하여 얻어낼것도 별로 없다.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의 주제가의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우리에게 가사의 철학성과 여운문제는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인간생활을 높은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체현된 진리를 일반화하는데서만 가능하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 전개하여 말하면 가사에서 인간의 사회적 및 심리적 현상은 물론 자연현상들을 평면적으로 해설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그 모든것을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활감정과 결부시키며 그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립체화하며 집약적으로 형상화해야 한다는 그것이다.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또한 우리들에게 가사의 철학성과 사색의 여운문제는 서로 별개의것이 아니라 밀접히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산이 깊으면 그들이 큰것처럼 가사의 철학성이 깊으면 그만큼 사색할수 있는 여운도 크다는것을 실증하여 주고있다.

가사에 철학성이 없거나 빈곤할 때는 거기에서 환기되는 울림도 그만큼 적으며 그의 생명력도 그만큼 길지 못할것이다.

이러한 가사는 한번 부르면 더 듣고싶지 않으며 억지로 부른다 해도 감동을 주지 않을것이다.

결국 가사의 생명은 바로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세련된 시형상으로 밝혀내는데 있다.

이렇게 되자면 가사에 철학성이 있어야 하고 그 철학성은 문학으로 담보되어야 하는것이다.

우리는 이 모범을 가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에서 보았다.

한편의 가사를 써도 철학적깊이가 있고 사색할수 있는 여운이 있는 명가사를 쓰자!

모든 시인들이 명가사창작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의 가사문학을 더 높은 경지에로 끌어올림으로써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아가야 할것이다.

새로 나온 책

중편소설 《불꽃》 (박찬은 작)

4×6 판, 310 페이지, 문예출판사 발행

얼마전에 문예출판사에서 출판한 중편소설 《불꽃》은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을 안고 현대적인 화학공장건설에 펼쳐나선 주인공 김강호와 최호산을 비롯하여 신기수, 순정, 옥별 등 각이한 성격과 취미를 가진 청년건설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진취적인 생활을 예술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더욱 밝아지는 거리에서

리금녀

함박눈 송이송이
다정한 사연 속삭이며
지붕에 트랙에
내려앉는 아침

출근길
새날의 인사인듯
따라서며 엇갈리며 주고받는
너인들의 목소리

-우리 분공장에서
이불장이 또 나와요
-뜨개옷이 나왔어요
가내작업반에서

토끼무늬 유치원가방
달랑이며 앞서는 딸애모습을
흐뭇이 바라보는 어머니들 가슴마다
봄물같은 기쁨이 출렁

초록빛 등빛... 솜옷
나는듯 가쁜한
처녀들의 얼굴에도
해빛같은 웃음이 남실

아, 어버이수령님 다녀가신 산촌읍
수령님 잡아주신 터전에
강기슭 막돌이 벽이 되어
일어서던 지방산업 공장들

제고장 흔하디흔한 원료로
첫 조업의 날 기대소리
문화주택 트랙에
노래처럼 울려가더니

오늘은 나날이 명절처럼
팔고루 안겨주는
가지가지 일용품
물라보게 늘어주는 살림살이

거리를 보라
진렬장을 보라
때아닌 봄꽃이
길우에 피었는가
볼수록 아름다운 차림새들

밭목을 잡아 이끄는
상점매대
일곱색무지개 비끼며
높이 쌓인 상품들

아, 인민의 생활 꽃피워주시려
수도에서 머나먼
천리 또 천리
싸리재 구름령 넘어오신
다함없는 그 사랑

어버이수령님 그 은정 못잊어
내리고내리는가
전할 사연이 하도 많아
쌓이도록 내려도
그칠줄 모르는가
함박눈 송이송이

어깨에 머리우에
감돌아앉으며
송이송이 눈송이
꽃보라로 날리는 이 길을
내 오래도록 걷고싶구나

싸리재 령은 높아도
내리는 눈송이속에
더욱 밝아만지는 거리
도시를 밝아가는
산촌의 모습이어

청 춘 외 1 편

변홍영

시원한 강바람이
땀젖은 머리칼을 어루만진다
머리희숙한 영웅용접공
하늘가에 아슬히 뻗어간
배관을 타고앉아 잠깐 쉬인다

서글서글한 눈매
가까이 해빛에 반짝이는 강물이
눈에 부신듯
푸르른 강반
아득히 펼쳐진 대화학기지우에
감회깊은 시선을 보낼뿐
그는 말이 적다

가끔 나의 물음에
깊은 추억이 가슴에 차오르는듯
푸릿한 담배연기사이로
실눈을 지은 눈가에
다감한 웃음이 스쳐지난다,

비날론공장, 웅기, 서두수...
레사로이 이야기하는 그의 말속에서
그처럼 위훈많은 도시들과 지명들을 새기며
내 가슴은 불현듯 흥분으로 뛰논다
아, 나는 조국의 년대기우에
크낙한 발자국을 남긴 청춘과 마주앉은것이다

너무도 겸허하구나
무수한 세월을 불꽃처럼 누벼온 흔적인듯
쇠물찌가 박힌 용접면을 배관우에 걸쳐놓고
천천히
용접봉을 새로 갈아끼울뿐

구태여 그는 말하지 않는다
갓스물 젊디젊은 시절에

비날론도시를 일떠세운 때로부터
두만강변 철도공사장에서
북방의 거친 바람을 마시며
서두수의 급한 물살우에언제를 박으며
뼈대 굵어진 건설자
줄기찬 로동속에 드바빠 살아온 나날에 대해서는

그는 말하지 않는다
진펄과 눈보라
천막과 모닥불
따뜻한 아래목의 평온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의 희열속에 살아온 사람
조국땅 가는곳마다
시대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운
그토록 자랑스런 위훈에 대해서는-

겪어온 모든 일들을
한순간의 추억으로 미소속에 묻은듯
그는 말이 없어도
묵묵히 당의 뜻을 받들어가는
성실한 마음의 불꽃인양
하늘을 불태우는 용접불빛이
저 웅장한 탑의 도시우에 빛발치나니

그의 눈가에
그저 생긴 주름살이 아니다
그의 귀밑머리에
흰머리칼도 그저 희지 않았다

아, 젊은시절의 열정과 웃음과
생활의 그 모든 꿈을
조국땅우에 펼쳐놓은 영웅이여
언제나 당의 부름속에
그대 바친 삶은
청춘기의 조국과 더불어 영원한것이구나

철창가에서

-통일혁명당원의 수기중에서-

또 하루
어둠이 서린 강토우에
동은 트는가
푸름한 새벽빛이 흘러드는 철창가에
또다시 날새가 반가이 찾아왔구나

내 혁명의 전구를 찾아
들길을 걸어갈 때면
봄아지랑속에 지저귀던 그 새는 아닌가
정의가 깃뻗힌 대학창가에서
씨앗을 묻지 못한 밭머리에서
울분에 찬 가슴들에 불씨를 묻어줄 때
내 가슴에 뛰놀던 그 벚찬 기쁨아

파쑸의 살풍속에서도
봄날을 우짚던 너의 울음소리
저 녹슨 쇠창살을 다 녹이는데
압제의 세월이 어둡던 감방속으로
따스한 해빛이 비쳐드는듯
채찍에 피멍이 든 내 가슴을
다정히도 어루만지는구나

나는 철창가에 다가선다
네 부드러운 몸매를 가까이 보려고
그러면 조그마한 가슴이 놀란듯
할딱이며 하늘가로 날아올랐다가도
잊은듯 다시 철창가에 내려앉는구나

놀라지 말라
내 뿌려주는 몇알의 밥알을 쪼으며
눈알을 데룩이는 새야
내 몸에 무거운 쇠고랑이 운다고
무서운 상처자욱 내 몸을 덮었다고

여기엔 화창한 봄날의 숲과
꽃망울을 터치는 해빛도 없다
싱그러운 바람결과

거침없이 날아오를 맑은 하늘도 없다
여기엔 피비린 살륙과
저 침침한 담벽을 울리며
미제가 풀어놓은 개무리들이 어슬렁거린다

그러나 상심일랑 하지 말라
드넓은 벌판에서
너의 작은 먹이조차 얻을길 없어
내 다가서는 철창가에 찾아온 새야
언제까지나 이 땅우에 네 보금자리 없고
너의 구슬같은 노래 대신에
철쇄소리 하늘가에 울릴것이나

아니다, 하나의 조선 하나의 강토우에
어찌 낮과 밤이 따로 깃들것이나
위대한 태양이 빛나는
저 북녘은 우리의 미래

나는 믿는다 내 뿌린 피가
네 피떡이며 날아오를 푸른 하늘과
풍만한 황금의 들판으로 꽃필것을
주체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혁명은
이 땅에도 락원을 일으켜 세우리란것을

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
온 겨레가
통일의 눈물겨운 환희에 목메일 때
노래하라, 그토록 그리던 새 세상을
미제와 매국노를 쓸어버린 자유의 강산을...

아 죽음을 이기는 억센 투지가
내 온몸에 굵이치나니
날으라 봄의 화신 투쟁의 상징!
너의 거침없는 날음처럼
이 땅의 행복한 미래로 달리는
나의 신념과 아름다운 꿈을
아무도 다치지 못한다!

단편소설의 양상을 다양하게 살리자

김흥섭

다른 문학형태들과 마찬가지로 단편소설의 정서적색깔은 작품마다 서로 다르다. 감동을 주는 단편소설은 한 작가의 작품인 경우에도 작품마다 양상이 다르다.

돌이켜보면 강한 인상을 주어 오래동안 독자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단편소설들은 다 독특한 양상으로 둔구어진 작품들이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작품마다 보여주는 생활이 다르고 그 생활을 담는 형식이 같지 않으며 또한 작가들의 창작적개성도 다르기 때문에 작품들은 서로 다른 양상을 가지게 된다.

단편소설들이 서로 다른 양상을 가지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작품마다 보여주는 생활이 다르기때문이다.

작은 그릇을 가진 단편소설은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생활가운데서 어느 한 측면만을 자기의 그릇에 담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의 생활은 지난날의 생활보다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현대영웅들의 복잡하고 풍부한 생활내용을 잘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에는 다양한 생활과 풍부한 생활정서가 풍부하게 담겨져있다.

단편소설문학이 우리 시대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생동하게 형상하기 위해서는 그 생활적정서의 다양성에 맞게 양상을 잘 살리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양상을 살림에 있어서 단편소설이라는 그 형식의 특성을 잘 고려하는것이다.

단편소설은 끝없이 넓은 생활의 바다속에서 어느 한 측면만을 그리기때문에 다양한 생활의 정서적색갈중에서 흔히 그 어느 한 색갈만을 그리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단편소설의 양상의 다양성은 단편에 그려진 생활자체의 요구이며 그를 진실하게 재현하기 위한 응당한 요구이다.

장, 중편소설과 같은 큰 형식의 작품들에서는 비교적 오랜 력사적시기의 생활을 반영하기때문에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정서적색갈이 채색되지 않을수 없다. 물론 대형식의 작품도 작품전체로서는 하나의 주도적인 정서적색갈이 있고 그것이 일관되어야 하겠지만 그의 구성요소들을 보면 무거운 색갈뿐만아니라 가벼운 색도 있고

어두운 색뿐아니라 밝은 색조도 있을수 있으며 흔히 그를 대조시키고 엇바꾸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일관된 양상을 둔구게 된다.

가령 장편소설에서는 처음에 비통하고 불안스러운 감정을 그리다가 그를 가시면서 희망과 기쁨의 정서를 주고 그 다음은 혁명적열정으로 끓어번지게 할수 있을것이다. 혁명전통주체의 장편소설들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주제분야에서 그런 실례들을 찾아볼수 있다.

이것은 큰 형식에 담기는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자체의 요구인것이다.

그러나 작은 용적을 가진 단편소설은 그에 담기는 생활이 현실속에서 어느 한 측면만이기때문에 자연히 그 어느 하나의 정서적색갈을 더욱 뚜렷이 둔구지 않을수 없다. 그래서 단편소설마다 차이거나 대조되는 독특한 양상을 띠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풍부한 우리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하자면 생활의 본색대로 단편소설의 양상을 다양하게 살려야 한다.

단편소설마다 양상이 같지 않은것은 또한 생활을 담는 형식이 단편소설은 다른 형태와 다르며 또 같은 단편소설형태라도 작품마다 추구하는 생활이 다르기때문이다.

단편소설에서 생활을 담는 형식들인 구성과 갈등, 성격창조수법 등에서 나타나는 형태적특성은 다른 문학형태들은 물론 같은 소설형태인 중, 장편소설들과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있는것이다.

무엇보다 묘사를 기본수단으로 하는 소설의 방식자체가 다른 형태들과는 다른 양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주체의 단일성과 성격창조에서의 집중성, 구성의 간결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단편소설의 형태적특성이 같은 소설형태이지만 단편소설은 중, 장편소설과는 다른 양상을 요구한다.

형태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 생활을 놓고보아도 단편소설마다 담기는 생활이 다르기때문에 그의 표현형식인 구성과 성격창조수법도 단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구성을 짜는 방식도 줄거리를 조직하는 수법도 사건선과 감정선을 결합시키는 본새도 갈등을 날카롭게 하는 수법도 생활의 요구대로 진실하게 하자면 단편소설마다 다를수밖에 없는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작품의 형식의 요구에 맞게 양상을 살리는것이 단편소설의 형상수준을 높이는데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를 잘 반증해주고 있다.

단편소설마다 양상이 서로 다르게 되는것은 또 한 창작적개성이 소설가마다 다르기때문이다.

작가의 창작적개성은 묘사대상의 선택이나 언어, 구성의 기교나 성격창조의 솜씨 등에서 중요하게 나타나지만 창작과정의 모든 요소에 걸쳐 표현되는것으로써 특히 양상에서 인상깊게 나타나는것이다.

사실 재능있는 우리 단편소설가들을 보면 어떤 작가는 사색깊은 철학적인 단편을 줄곧 쓰고있는가 하면 누구는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작품을 주로 쓰고 또 다른 사람은 극성이 강하고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단편을 쓰고있고 또 누구는 거창하고 웅엄한 정서적색갈만을 진하게 그리고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소설가는 담담하나 감칠맛이 있게 쓰며 또 다른 단편작가는 힘찬 기백으로 불을 토하듯 쓰고 또 다른 사람은 발랄하고 경쾌한 정서로 자기 단편들을 일관시키고있다.

이런 다양한 양상의 정서적색갈로 하여 우리 단편소설의 화원은 그처럼 아름답고 화려하며 다양하고 풍만한것이다.

그러기에 자연이 창조한 아름다운 꽃들가운데는 향기가 풍기지 않는 꽃들도 있지만 우리 소설가들의 미적리상에 의하여 창조된 단편소설에서는 독특한 정서적향기가 풍기지 않는 작품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단편소설의 양상을 다양하게 살리는것이 작품의 독창성과 작가의 창작적개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양상은 작품의 독창성과 작가의 창작적개성이 발현되는 중요한 분야이다.

지난 시기 독창성이 뚜렷한 성과작들을 보면 다양한 양상이 돋구어진 작품들이었으며 창작적개성이 선명한 소설가들은 양상을 살리기 위해 커다란 관심을 돌려왔다.

오늘 단편소설의 양상을 다양하게 살리는것은 문학작품에 대한 요구성이 나날이 높아지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미학적요구이기도 하다.

우리 독자들은 이야기전달이나 하는 단편소설이 아니라 단편마다 다양한 색깔을 요구하며 다양한 성격의 정서를 맛보고싶어한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형상성과 정서적특성이 강한 단편소설을 요구한다. 그런데 단편소설의 양상을 다양하게 살리는것은 작품의 형상수준과 정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그것은 정서적특성이 형상의 본질적속성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작품에 정서적 특성이 진해지면 형상성이 높아지기마련이며 정서적색갈인 양상이 살아나면 작품의 정서가 풍부해지기마련이다.

단편소설들이 형상을 딱딱하지 않고 메마르지 않으며 기쁨기가 돌고 감칠맛이 있게 하자면 거기에 정서가 있어야 하며 생활이 다양해야 한다. 좁이 없고 맛이 없는 단편들을 보면 대개가 정서가 없고 무미건조한것들이다.

이것은 양상을 살리는것이 단편소설의 형상수준을 높이는데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단편소설의 양상을 옹게 살리기 위하여서는 단편소설이 가지고있는 양상적특성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단편소설의 양상은 그의 형태적특징으로 하여 다른 형태들과는 다른 특성을 띠게 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작품의 양상은 예술의 형태상 특성을 옹게 살려나가면서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비위에도 맞게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단편소설의 형태적특징은 그의 양상의 특성을 규정하게 된다.

단편소설의 종자는 의의있으면서도 아담해야 하며 주제는 단일하고 구성은 간결해야 하며 줄거리는 흔히 한둘의 사건으로 조직되고 주인공의 주도적성격을 집중적으로 그리고게 된다. 이와 같이 단편소설은 작은 용량에 맞게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모든 요소를 간결하게 다듬어야 한다.

이런 단편소설의 형태적특성은 단편소설의 정서적색갈이 필연적으로 하나의 정서적색갈로 일관될것을 요구한다. 하나의 정서적색갈, 이것이 단편소설의 양상의 기본특징이라고 말할수 있다.

숭고한 정서적빛갈로 단편소설의 정서를 그려나간다면 그 한색을 선명히 돋구어나가는것이 단편소설의 양상적특성이라고 할수 있다.

단편소설에서는 다양한 정서적색갈을 대조의 수법으로 강조하여 효과를 거두리라고는 타산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작은 형식인 단편소설에서 양상의 농도를 진하게 선명하게 보장할수 없게 될것이다.

단편소설의 양상을 진하게, 선명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색갈을 교차시키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단편소설의 종자와 주제, 성격과 구성의 요구에 맞게 한가지 정서적색갈을 두드러지게 선명하게 보여주는것으로 그것을 해결하여야 한다.

물론 단편소설의 양상의 기본특성이 단일색에 있다고 하여 세부묘사들에서 다양한 정서적색갈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의 기본특징에 있으며 단편소설가가 양상을 인상깊게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자세를 하나의 정서적빛갈을 선명히 살리는대로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있다.

오늘 우리 단편소설문학이 양상을 더 잘 살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지난 시기 우리 단편문학이 양상적특성을 살리는데서 이룩한 고귀한 창작적경험을 배우고 일반화하여야 할것이다.

오늘 우리 단편소설문학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다양하고 풍부한 우리 인민의 현실생활속에서 보석의 각면처럼 빛나는 생활의 한모를 잡아쥐고 그의 본색에 맞게 양상을 살려낸 단편소설들은 다 정서적색갈이 독특하여 불맛이 있고 인상에 남아

있으며 독자들의 가슴을 정서적으로 쓰다듬어주는 것이 있다.

우리 단편소설들의 양상은 그 빛깔에 따라 크게 몇가지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을것이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높이 모시고 그이의 혁명적가정을 형상한 단편소설들의 양상은 생활의 본색과 교양적목적에 맞게 정서적색깔을 밝게 송엄하게 훌륭히 살리고있다.

이 주제의 단편소설들에 담겨지는 생활은 전인민적인 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역사적사변이며 그 생활은 어느것이나 위대하고 거창하며 송엄하다.

그러기에 이 단편소설들의 양상은 일반적으로 송엄하고 무게가 있으며 밝고 순결하며 희망차고 낙천적이다.

이런 정서적색채는 이 주제의 단편소설의 형상을 더 선명히 하며 또 그것은 우리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도 맞는 빛깔이다.

단편소설 《미루별전설》(《조선문학》 1979년 4호 김삼복)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모신 작품으로서 송엄하고 뜨거운 정서로 특색이 있는 양상을 띠고있다.

남편을 전선에 보낸 방옥실이가 달구지로 물을 싣고 오다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달밤장면에는 아름답고 기쁜 감정이 흐르고있으며 옥실이가 강운철의 안해임을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은정을 베푸실 때에는 어둠을 가셔내는 밝은 정서가 달빛에 어울려 흐르고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업일군으로부터 미루등조사보고를 받으시는 장면의 정서는 방옥실이의 피눈물나는 지난날의 생활감정과 결합되어 심각성을 띠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옥실이의 집을 몸소 돌봐주시며 크나큰 사랑을 베푸시는 세부에서는 독자들도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며 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에 목매이며 행복감에 눈물짓게 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험한 미루등에 오르시여 미루등 개간의 의의를 밝히시면서 《이 등판을 전부 개간해서 여기에 미루별-황금별이 펼쳐지게 해야 하오.》라고 선포하시는 이 작품의 절정에서는 송엄하고 희망차며 기쁨과 감격에 겨운 정서가 가슴 가득 안겨온다.

그러기에 작품의 첫부분과 중간부분의 정서적색깔은 점차 밝은 빛을 더해가며 결국에는 장마뒤에 파란 하늘이 열리고 해빛이 쏟아져내리듯이 송엄하고 밝은 정서가 힘있게 흐르고있다.

반영된 생활과 인물형상, 주제사상적과제와 교양적목적에 맞게 양상을 옹골치게 잡고 둔구였기때문에 이 작품은 전반적인 형상을 밝고 송엄하게 할수 있었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단편소설의 양상은 생활의 특징으로 하여 끝없이 다양하고 풍부해지지 않을수 없다.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우리 인민들은 과학기

술수준이 높고 사회주의문화를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

우리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은 참으로 풍부하며 따라서 생활정서도 다양하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면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은 아름답고 고상하며 혁명적이고 영웅적이다.

그러기에 사회주의현실주제 단편소설들의 양상은 다양하면서도 크게 보아서 밝고 낙천적이며 희망차고 약동하는 기백으로 차있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나날이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현실생활을 담은 단편소설의 색깔은 어둡거나 불안할수 없다.

그러면서도 작품마다 생활정서의 구체적표현들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단편소설의 양상은 더욱 다양하지 않을수 없다.

생활에 기초하고있는 양상이라도 자기에 의하여 뚜렷하고 생동하게 살려질 때 비로소 공고한것으로 된다.

소설가는 다양한 생활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양상을 잡으면서도 그를 재창조하여 양상이 더욱 다양하고 선명하게 향기를 풍기게 해야 한다.

단편소설 《밝게 웃어라》(조선문학, 1980년 1호 서능석)는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하에서만 있을수 있는 독특한 생활분야를 그리고있으며 그에 맞게 양상을 밝게 살리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상업은 전적으로 개인의 치부를 위한 수단으로 되고있으므로 남을 속이고 더 많은 리운을 짜내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상업은 인민들의 복리를 높이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팔고루 공급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소설은 평산지구와 립산마을, 읍거리가 갈라지는 중간빠스정류소옆에 자리잡은 덕동령중턱의 작은 상점에서 두 판매원치녀들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생활을 그리고 있다.

덕동령의 경치좋은 자연모사와 열아홉살난 금주와 그보다 좀 우인 숙영이의 즐겁고 보람찬 생활에 어울리게 작품은 티없이 맑고 끝없이 밝은 양상으로 독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준다.

소설에 반영된 생활은 처음부터 상냥한 웃음으로 가득찼다. 우리는 숙영이의 함박꽃같은 웃음과 좋은 인상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게 되며 깔깔거리는 금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유쾌한 마음을 달래지 못한다.

판매원치녀들의 웃음에 찬 생활속에서도 단편은 사회적문제성을 찾아내고있다. 작품은 봉사일군들이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진심으로 대하여야 하는가, 사회주의상업의 목적에 맞게 근로자들의 편리

를 위해 상업일꾼들이 어떻게 봉사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있다.

금주는 숙영에게 림산사업소 청년돌격대장이 부락했던 뉴똥치마를 비오는 밤인데도 읍에까지 가서 가져오다가 그가 물고오는 차를 만나 같이 타게 된다. 사연을 알게 된 청년돌격대장의 병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금주는 이렇게 생각한다.

《참, 시부모들이 이렇게 기뻐할 때 맘머느리 마음도 이렇겠지, …》

그러면서 금주는 속으로 다음과 같이 중얼거린다.

《언니, 우린 정말 배우가 아니예요. 그리고 손님들은 극장의 관람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부모>들이예요.

때문에 우리의 웃음은 얼굴에 피는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피어야 해요.

심장속 깊은곳에서 피어나는 가장 밝고 깨끗한 웃음으로…》

금주의 이 내면세계에는 그의 주도적성격이 빛나고있으며 소설의 종자가 심어져있다.

소설의 해결부분에서 숙영이가 마음속으로 자기 비판 하는것처럼 이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는 봉사일꾼의 웃음은 입술에 떠오를것이 아니라 심장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밝고 깨끗한 진정어린 웃음이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런 이 작품의 생활과 종자, 주제사상적과제는 밝고 순결하며 약동하는 양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종자와 주제에 맞게 설정된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순진하고 낙천적이며 상냥한가 하면 깔깔거리며 웃어대는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여기에 청년돌격대장까지 너스레를 피우며 익살을 부리기에 명랑하면서도 낙천적인 정서가 전편에 줄기치게 흐르고있으며 양상을 더욱 밝게 하고있다.

소설은 밝은 양상을 살리기 위하여 갈등설정과 해결에서도 정면충돌을 피하고 내면세계의 묘사와 심중의 호소로 그것을 대치하고있다. 이리하여 심각하고 무거운 정서를 될수록 피하고 경쾌한 양상을 더욱 살려내고있다.

뿐만아니라 소설에 그려진 적지 않은 생활세부들은 양상에 잘 어울리는것들이며 그를 돋구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신경질을 낼줄 모르는 숙영을 부러워하며 내물에 발을 잠그고있는데 발가락을 간지럽히는 고기새끼와 그 물우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보고 입술을 삐죽 내미는 금주의 행동세부에 대한 묘사, 손님들의 룡담에 혼자 속으로 안타까와하며 성내는 순정어린 금주의 내면세계의 묘사.

금주가 비오는 60리 밤길을 혼자 걸으면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소장아바이가 어째서 그전처럼 막냉이라 하지 않고 《금주동무》라 했던가 하면서 우습고 즐거운 생각을 하는 세부묘사 등이 다 자기의 기본형상적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양상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이 소설의 대사와 표현들도 낙천적이고 밝은 정서를 잘 돋구주고있다.

이와 같이 이 소설의 모든 형상요소들은 담고있는 생활과 주제사상적과제에 맞게 양상을 살리는데 한결같이 돌려지고있다. 그리하여 행복하고 보람차며 즐겁고 밝은 양상을 훌륭히 살려내고있다.

이 단편소설의 강한 인상과 선명한 형상은 양상을 잘 살려낸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단편소설 《갈매기》(조선문학 1980, 2호 황영도)는 같은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이지만 《바게 웃어라》와는 다르게 양상을 가져갔다.

이 작품의 특색은 양상의 특성과 크게 관련되어있다.

직포경기를 줄거리로 하는 소설은 흔히 활기에 넘치고 유쾌하며 전투적이고 요란스러울수 있다.

그러나 이 단편의 양상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 작품의 양상을 제약한 생활과 형상요소들의 특성때문이다.

주인공 선희는 담당수리공이며 남달리 가까운 사이인 광호에게 정색해서 말한다.

《…광호동문 이 경기가 무엇을 위해 하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순 개인기록을 세우려고 한다면 무엇때문에 자기 공장에서도 할수 있는데 우수한 기능공들을 뽑아왔겠어요? 우리 직포공들이 창조한 훌륭한 경험들을 일반화해서 더 많은 천을 짜내자는게 아니예요?…》

주인공 선희의 이 대사에는 소설의 주제사상적과제가 명백히 밝혀져있다. 소설은 바로 그것을 생활과 이야기줄거리를 통해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주인공 선희의 성격은 밝고 순결하지만 군말을 좋아하지 않고 대바르며 사색적이다.

이런데로부터 이 작품의 양상은 밝고 행복한 정서를 깔아주면서도 사색적이고 심각하다.

이 두 단편소설은 같은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에서도 창작의도에 따라 양상을 끝없이 다양하게 살릴수 있으며 또 살려야 형상수준을 높일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술고개집딸》(조선문학 1980, 5호 차승철)은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있고 문학적인 이야기가 재미있을뿐만아니라 양상에서도 특색이 있다.

평화롭던 날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행복을 소중하게 여겼기에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그 행복을 목숨바쳐 지킬수 있었다는 주제사상적과제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리러받드는 사람의 진정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빛을 낸다는 고귀한 진리를 체현하고있는 술고개집딸이며 소비조합상점 판매원인 선희의 전형적성격은 이 단편에 독특한 구성과 생활을 요구하였고 그것들은 특색있는 양상을 창조케 하였다.

소설의 첫부분부터 웃음이 남실거리고 퍼그나 귀엽게 생긴 판매원 선희의 보람차고 행복한 민주건설시기의 생활이 펼쳐지고 있으며 상냥하고 슬

기로운 선희의 성격이 몇개의 세부묘사를 통해 생동하게 밝혀지고있다. 전쟁물을 취급한 다른 단편과는 다르게 이 부분이 작품의 근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부분에서는 전쟁시기 이숙이가 도하직업관의 임무를 엄격하게 수행하는 선희를 본 이야기를 하고있으며 선희에게서 온 편지도 소개하고있으나 거기에서도 민주건설시기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많이 회상하고있다.

이런데로부터 이 작품의 양상은 즐겁고 생기가 있으며 밝고 맑다.

소설은 행복에 찬 정서적색갈을 유지하면서도 전쟁물의 특성을 살려 선희의 영웅적최후와 이숙이가 술고개집을 찾아간 해결부분에서 엄숙하고 비장한 정서를 채색하고있다.

그러기에 소설에서는 주제사상과 주인공의 성격, 구성에 맞게 밝은 정서를 안겨주면서도 마지막에 무게와 정서적여운을 주게 되었고 작품전체로서는 밝고 정가로운 양상을 살릴수 있었다.

이리하여 조국해방전쟁주제 단편소설로서 독특한 정서와 향기를 풍기는 작품으로 되었다.

이 단편의 양상은 조국해방전쟁주제를 비롯한 혁명투쟁주제작품에서도 창작의도와 창작적개성에 따라 양상을 끝없이 다양하게 살려야 한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작가결의

외우기 쉽고 읊을수 있는 시를

조성관

언제나 새해를 맞으면 새로운 결의로 가슴뜨거워오는 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 제6차대회에서 펼쳐 주신 웅대한 구상을 안고 새해를 맞는 올해 1981년은 더욱 그러하다. 나는 한편의 서정시를 써도 당대회결정관철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심장에 불씨를 안겨줄수 있는 참말로 그들의 생활의 길동무가 될수 있는 그러한 서정시를 쓸것을 올해의 창작목표로 세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실속에서 우리나오고 대중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된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될수 있는것입니다. 실생활을

이와 같이 단편소설의 양상을 다양하게 살리는 것은 그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여 강한 인상과 여운을 안겨주고 사상미학적감화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래전부터 독자들의 가슴속에 인상깊게 새겨져 있는 단편소설들의 양상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랑만적이고 시정적인 《<해주-하성>서 온 편지》(김병훈), 활동적이고 사색적인 《자기 위치앞으로!》(엄단웅), 비통하고 절절한 《영원한 련락원》(성혜량) 등의 성과의 중요한 요인은 그 작품들의 양상이 뚜렷하고 특색이 있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우리 단편소설들의 성과와 경험은 양상을 인상깊게 하기 위하여 큰 창작적노력을 기울인 작품은 생활의 색깔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감명깊게 살려냄으로써 형상수준을 크게 높였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소설가들은 시대적미감에 맞게 양상을 적극 다양하게 살려냄으로써 단편소설의 형상수준을 높이고 그 화원을 여러가지 색조로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야 할것이다.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인민들의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정서를 통하여 그려내는 시만이 인민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것이다.

뜻이 깊고 참신한 시의 주제사상이 선언이나 서술로서가 아니라 운률을 타고 흐르는 정서를 통하여 느껴지며 길지 않아 외우기 쉽고 읊을수 있는 시만이 인민들의 참다운 생활의 길동무로 될수 있을것이다.

그런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현실체험을 진지하게 하며 문제성있고 의의있는 종자탐구에 피타는 열정을 기울이며 또한 시대감정에 맞는 운률조성으로 특색있는 작품을 창작하여 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겠다.

빨간 수기

리신현

누구든지 포연이 스민 전선생활을 맛본 사람이면 이 말의 참뜻을 이해할수 있을것이다. 이를테면 거기 전선에서는 이전의 평범한 나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순조로이 흘러보낸 일이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첨예화되는 벼라별 경우가 다 있게 된다는것을- 사단군의소 오명신간호원이 전선에서 박병기포장과 두번째로 만난 뜻하지 않은 상봉이 바로 그런 실례의 하나였다고 할가...

오명신간호원은 대학에서 전선을 탄원한지 꼭 여덟달만에 이미 사단 포중대 박병기포장과 감격적으로 만난바 있었다. 그는 다름아닌 자기들 두사람의 전투담과 사진이 가지런히 전선신문에 실린일을 전선에서의 인연깊은 첫상봉처럼 가슴속에 소중한 간직하고있었던것이다.

그때 그 신문지면을 통하여 박병기가 자기와 같은 사단에 복무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오명신의 눈앞에는 입대전 수도의 으리으리한 대학강당에서 입학시험을 치던 광경이 어제런듯 방불히 되살아올랐다. 조국의 복방 어느 야금공장에서 대학추천을 받은 박병기포장, 오명신은 시험치기 전날 그와 같은 열차를 타고오며 서로 얼굴을 익혔고 또 같은 학교를 지망해가는것으로 하여 저도모르는 사이 어려움도 있고 자리까지 같이하였다. 려행중 잠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그들은 갑론을박하며 론쟁도 활발히 벌렸다. 그러다가 자연히 웃음으로 끝나군한 론쟁에서는 박병기보다도 오명신이 이긴 회수가 훨씬 많았다. 그때 고집이 센 박병기였지만 시종일관 허심하게 배우는 립장을 취했다. 오명신 역시 장차 자기네 용해장을 기계화할 불타는 열망을 지닌 로동청년의 소탈한 태도에 은근한 호감을 가졌고 그가 허물없이 물어보는 모든 질문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열심히 대답해주었다. 처녀는 매 역들에 나오는 갖가지 특산물들도 사오군 하며 려행길을 한결 뜻깊게 했다. 그리하여 열차에서 내릴적에 어느덧 동향친구이상으로 친숙해졌던 그들은 시험을 친 당일에는 한 책상에까지 나란히 앉았다.

첫시험은 수험자들이 가장 까다로와하는 수학이었다. 오명신은 수백명의 수험생들중에서 누구보다도 운수가 좋았다. 시험시간의 절반도 품들이지 않고 손쉽게 답안을 완성했으니말이다. 반면에 박병기의 신수가 궁했던것을 그는 지금껏 잊지 않고 있다. 박병기는 별로 하찮은 단순한 수학공식을 까먹고 머리칼을 쥐여뜯었다. 그래서 처녀는 차마 자리를 뜰수 없었다. 실인즉 박병기한테 얼른 한마디

귀띔해줄 기회를 보느라 그날 그가 얼마나 조바심을 쳤던가. 그런데 열차를 타고오며 오명신의 방조를 조금도 허물함이 없이 받아들인 박병기가 시험마당에서는 자기의 량심을 기만하지 않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시험지를 그대로 내고 밖으로 나갔다. 오명신은 그제야 점직한 생각이 들어 남몰래 귀밑을 빨갱게 물들였다. 차라리 혼자 남아 문제를 마저 풀게 가만 돌걸 그랬어... 처녀는 그한테 사죄하고싶었지만 왜선지 깨끗하고 진실한 그 마음앞에선 부끄럽게만 생각되어 끝내 아무런 말도 못하고말았다.

다만 오명신은 그후 자기한테 보내오는 입학통지서보다 그가 불합격되면 어찌랴 하는 근심속에 줄창 잠겼고 개교식날 입학자명단에서 박병기의 이름을 찾아봤을적엔 자기 일생에서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났을 때처럼 기뻐했다. 하지만 조국앞엔 준엄한 시련이 닥쳐와 그후 일년이 되나마나하여 많은 학생들이 전선을 탄원하여 떠났다. 박병기도 용약 그 대렬속에 뛰어들었다. 그날 박병기는 전선결기모임연단에서 평화로운 이 땅에 침략의 불을 지른 미제날강도놈들이 자기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이 깃들어있는 용해로를 무참하게 파괴해버린 야수적만행에 대해서 격분에 차서 토론까지 하며 대학생들을 전선지원에 힘있게 호소하였다. 전쟁이 일어난지 아직은 얼마 되지 않는 그때 벌써 조국을 수호하지 않고선 어떤 개인적인 리상과 포부, 행복도 실현할수 없음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박병기는 것처럼 불타는 복수의 일념을 안고 오명신이와 헤어졌다.

처녀가 그의 장래에 대해 몹시 우려했던 일은 그로써 무의미하게 끝나고말았다. 박병기포장과는 달리 어버이장군님의 품속에서 고스란히 학창의 나날을 보내다가 대학에 입학한 처녀는 모든것을 소원대로 성취한 자신의 행복에 너무나도 깊이 도취한 나머지 그후로 박병기포장에 대한 기억마저도 차츰 잊어버렸다.

대학에서 전선을 탄원하기 위한 학생집회가 련달아 열린 어느날.

그자신 학생복을 군복으로 갈아입으면서도 한번 흐려진 박병기의 얼굴은 두번다시 그의 머리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입대후 사단군의소 간호원으로 복무하며 전선신문을 통하여 박병기포장과 상봉하게 된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그런 나날의 우연한 매듭이었다 할가.

단지 오명신은 그때 자신을 신문지상에서 법석 떠들만한 인물로 상상하지 못했던것만큼 가슴이 두근거리었고 또 한편 얼마나 송구스러웠던지 몰랐다. 그는 자신을 별로 특출한 공훈이란 없는, 환자들의 침대결에서 밤을 새운다든가 간혹 남몰래 수혈해준것이 고작인 간호병으로 여기었다. 그래서 자기와는 달리 전투에서 공로가 큰 박병기에 대한 부러움과 존경심까지 은연중에 품게 되였었다.

(적막트를 석대나 까부셨으면 나같은 쫓내기간호원쯤은 우습게 볼거야.)

약속없이 찾아온 감격의 그날은 포연속에서 마련되였다...

오명신은 전선신문은 읽으며 자신과 대조적으로 가슴속에 깊이 새긴 박병기포장과 이번엔 천만뜻밖에도 사단군의소에서 직접 만났다.

밤하늘의 자갈한 별들이 아직 무수히 남아 깜박이던 어둑새벽, 박병기포장이 중상당한 몸으로 군의소에 실려왔던것이다.

오명신은 그때 위생차의 급정거소리에 깜짝 놀라 선잠을 깼으나 박병기포장이 후송되어왔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있었다. 군의소생활에서 습관된대로 그날 새벽도 차가 멎어서기 바쁘게 정신없이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어느새 환자를 등에 업은 후송병이 그의 앞으로 급히 달려들어왔다.

《중상잔가요?》

《그래요. 우리 포장동지가 중상당했어요. 포장동지가요!》

애젊은 후송병은 자기네 포장이상 중한 사람이 없는것처럼 급한 소리를 치며 되젠 떠들어대였다. 그 순간이었다. 오명신은 첫눈에 환자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 우뚝 굳어져버렸다. 그가 바로 박병기포장이였던것이다. 마침 박병기포장도 오명신이쪽으로 얼굴을 돌리었다. 그들의 눈길은 한순간 불꽃처럼 마주쳤다. 하지만 너무도 돌발적인 사실앞에서 당황한 오명신은 갑자기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몰랐다. 인사라도 반갑게 나누어야 할그였으나 선뜻 말이 나가주지 않았다. 어쩐지 지난 대학시절의 일만 불현듯 생생히 돌이켜지며 가슴속으로 향수와도 같은 짜릿한 감정이 흘러들었다. 박병기포장도 오명신이란테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것 같았다. 학창때의 인상과 달리 어딘가 없이 파묵해보이는 검스레한 얼굴에서 그의 두눈은 류다른 광채를 띠고 린광처럼 번쩍였다. 그 정열적인 눈빛은 오명신한테 백마디의 말보다 더 뜨겁게 그리고 더 가슴 뭉클히 안겨왔다. 그러나 서로 말없는가운데 오간 그 열렬한 감정의 교차는 불과 한순간 지속되는데 지나지 않았다. 한데 박병기포장이

도로 얼굴을 돌려버리고 후송병이 옆으로 바람처럼 휩 지나가버리자 오명신은 그만 랑볼이 불돌같이 핫핫 달아올랐다.

(아이참, 망신스럽게 왜 저럴까? 날 알아보지 못했을까? 내가 잘못 봤을까? 아니 그 사람이 분명해.)

좁은 군의소복도는 울상이 된 처녀의 마음엔 아랑곳없이 어린 후송병이 성급히 달려가는 발구름소리로 한동안 요란히 울리었다. 그의 등에 업힌 박병기포장은 봉대로 감은 비대한 한다리를 땅에 질질 그을다싶이하며 어느덧 복도 저쪽편으로 사라져가고있었다. 뒤이어 소음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복도로 몇명의 간호원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시들히 얼굴을 내밀었울뿐... 오명신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한자리에 굳어진듯 망연히 서있었다. 쯔전의 서운한 마음도 마음이라니와 부상당한 박병기포장의 다리가 다시금 눈에 확 박혀들며 저도모르게 입술이 가늘게 떨리었다. 전선신문에서 포장의 전투기를 읽어 전투의 가렬성에 대해 알고있었지만 정작 그가 입은 상처를 보니 조국을 위하여 얼마나 성실히 싸웠는가 하는것이 너무나도 날날이 헤아려졌다. 그렇게 한참 혼자속으로 가슴뜨거운 생각을 더듬던 그가 얼마후 자기 방으로 돌아온 때였다.

오명신은 갑자기 군의소장실에서 찾는다는 전달을 받고 까닭없이 가슴이 설레였다.

(무엇때문일까. 왜 나를 불렀을까?)

한데 사람좋은 군의소장은 그가 찾아가자 뜻밖에도 애젊은 후송병과 마주앉아 방안이 떠나갈듯 큰소리로 결결 웃어대고있었다. 그는 겨우 웃음을 참고나서 손바닥으로 벌개진 얼굴을 쓸어만지며 이렇게 뚱뚱처럼 말하였다.

《명신동무, 어서 와서 통성을 하오. 글썄 이런때군은 보다 처음이라니까. 나보고 자기네 포장을 보름안짜에 치료해내라고 졸라대면서 기어코 담당간호원이 누군지 만나보고 가겠단누만.》

(?!)

오명신은 아무런 대답도 못했다. 군의소장이 범상히 들려준 그 한마디 말이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띠고있는것처럼 생각되였다. 그중에서도 박병기포장의 간호를 담당하게 되였다는 말은 자신도 알지 못할 독특한 선물로 가슴에 울려오는것이였다. 마치도 그것이 전쟁으로 중단된, 박병기포장과인상깊었던 대학생활의 연장으로 되여주기라도 할듯이... 아직 숨털이 채 가시지 않은 후송병은 멋지게 뒤덜미를 쓸어만지고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명신을 덩돌히 쳐다보는것이였다. 그가 왜서 그렇게 놀란 표정을 띠는지 알수 없었다. 군의소장도 거기에 대해선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듯 박병기포

장이 대퇴골에 심한 증상을 입는데 대해서와 멀지 않아 어려운 수술이 예견된다는 것을 루루이 강조 하고나서 곧 그들을 돌려보냈다.

오명신은 복도로 나왔을 때에야 어린 후송병이 날듯이 뒤따라나와 귀속말처럼

《저 우리 포장동지와 대학때부터 아는 사이지요? 난 오명신이란 이름을 듣자 제격 알아맞혔어요. 됐어요. 우리 포장동진 전선을 떠나며 얼마나 피로와했는지 몰라요. 그럼 부탁해요.》하고 소근 거리는 말을 듣고 그만 돌처럼 굳어져버렸다. 금방 위생차의 발동소리가 부르릉거리기 시작한 마당으로 출추듯 뛰어나가며 손까지 저어보이는 나어린 전사, 그의 애된 얼굴에선 귀여운 웃음이 남실거리고 다른 손에선 난데없이 자그마한 기발이 팔락거리었다. 보아하니 포장들이 전투를 지휘할 때 내흔들군하는 빨간 수기였다.

순간 오명신은 장소만 허락한다면 그를 친동생처럼 꼭 붙잡고 《동무, 어떻게 그 모든걸 다 알아요?》하고 꼬치꼬치 캐어묻고싶은 마음을 걸잡을 수 없었다. 박병기포장한테서 받은 좀전의 서운한 마음도 그 애젊은 후송병의 따뜻한 말로 하여 가뭇 잊어버린채...

(정말 포장동무가 아까 부상당한 율화때문에 그랬을까?)

오명신은 조금후 박병기포장한테 갈아입힐 환자복을 한벌 타가지고 그를 찾아가면서도 어린 후송병의 얼굴이 자꾸만 되살아올라 모든것을 것처럼 자신한테 유리하게 추측하였다. 일단 포장의 병실 안으로 들어선 때만은 조금도 그런 내색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내심 몹시 애썼다. 그는 저도몰래 눈길을 발부리에 떨구었다. 하지만 여간 감성적이고 눈썰미가 빠르지 않은 처녀는 박병기포장앞에 나타난 순간 너성적인 예민한 룩감으로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던 포장이 상반신을 벌떡 일으켜세우며 반가와하는 섬세한 표정까지 여유있게 분별할수 있었다.

《이거 정말 명신동무가 아니요? 글썄 어딘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까 그만... 그래 참 여기 전선엔 언제 나왔소?》

박병기포장은 몹시 흥분한 사람처럼 두서없이 묻고나서 오명신의 손까지 당겨잡았다. 다만 오명신은 기쁜 마음에도 뒤늦게야 그런 친절한 인사를 받는 일이 쑥스러워 한동안 고개를 숙인채로 귀밀을 붉게 물들이었다.

《벌써 여덟달이 됐어요.》

《정말 그랬다구 했지. 난 동무가 사단군의소에 있다는것도 전선신문을 읽고 알았소.》

《저도 그래요.》

그 말에 박병기포장은 잠시 처녀의 심중을 음미해보듯 덤덤히 앉아있다가 계면쩍게 아래턱을 쓸어만졌다.

《참 오늘 명신동무와 오래간만에 만나서 대단한 실례를 했구만.》

《아이참 별말씀을 다 해요. 그럴수도 있는 일이지요 뭐. 자꾸만 그러면...》

오명신은 도리어 미안한 생각이 들어 침대우에 들고온 환자복을 놓기 바쁘게 이내 자리를 떴다. 그가 방에서 나온후에도 박병기포장은 오래도록 문건을 우두커니 지켜보며 앉아있었다.

어느때가 오명신간호원이 사라진 허전한 공간에서 천천히 시선을 옮긴 박병기포장은 저도모르게 짙 움켜쥔 주먹을 주름잡힌 이마에 가져다대며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었다.

(내가 너무 그를 땡대하지 않았는가?)

박병기포장은 불편한 몸을 간신히 움직여 침대에 누우면서도 무거운 마음에 잠겨 길게 모두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앞으로는 어느덧 오명신간호원과 전선신문에 함께 소개된후 자기 생활에 부닥쳤던 레사롭지 않은 일들이 화면처럼 다시금 천천히 흘러갔다.

...오명신간호원이 전선신문에서 박병기에 대한 기사를 각별한 관심과 존경심을 품고 읽을 그 시각 포장은 굶은비 내리는 진창길을 눈섭 한번 붙이지 못하고 행군해갔다. 행군은 런이틀 계속되었다. 놈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달고 도로와 교량들을 파괴하였다. 그래서 기준포와 함께 중대의 앞장에 선 박병기포장은 행군직전에 받은 그 신문을 전투가 방속에 넣은채 이틀동안 감감 잊어버렸다. 행군뒤 포병들한테는 휴식할 짬이 생겼지만 포장은 자지 못했다. 또다시 화력부관과 함께 포진지를 굴설하기 위해 현지에 나가 돌아왔다. 모두는 눈이 별경게 충혈되어 뛰어다니는 그를 무슨 말로 위로했으면 좋을지 몰라했다. 박병기는 그 눈치를 직감하고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난 포장이기때문에 못했는데 이 친구들은 괜히 미안해한단말이야.) 그가 그런 생각에 잠겨 얼마후 한잠 늘어지게 자고난 포병들을 데리고 새로 정한 포진지로 나가 땅을 팔 때였다. 옆에서 결눈질하던 대원이 슬슬 다가와서 어두운 밤에 흥두께 내밀듯 불쑥 말을 붙였다.

《포장동문 좋겠던데요. 군의소 미인과 사진까지 같이 나서...》

《허, 이 친구가 또 싱겁게 성화먹이는걸 보니 쉬자는 소리로군.》 그렇게 되어 휴식명령을 떨군 박병기는 흙몬은 손으로 전사의 코등을 사랑스럽게 통겨주며 《군의소엔 무슨 말라빠진 미인이 있대구 그래, 거 엉터리없는 소린 하지 말구 설참에 독

보나 하는게 어때?》하고는 전투가방을 열어 점잔을 뺐다. 포병들은 그 말에 모두 키득거렸다.

《왜들 웃어?》

박병기포장은 그렇게 물으며 전선신문을 펼쳐든 때에야 자신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소리로 웃고말았다. 뜻밖에 자기에 대한 기사가 크게 소개된 신문이기도 했지만 포병들이 빈정덜만큼 이쁘장한 처녀가 다감한 눈매로 그를 마주봤던것이다. 평소에도 고지식하달 정도로 거짓을 모른 포장은 《참 묘한 일이로군. 이 간호원동문 내가 잘 아오. 대학으로 입학시험을 치러 갈 때 한 열차를 탔고 시험도 한책상에 앉아서 쳤됐지- 전선으로 나오는바람에 깊이 사귀진 못했지만 그때도 이따금 더러 생각은 나더란말이야. 허허》했다. 포병들은 그런 내막까지는 몰랐던터이라 귀가 항아리만해져서 들었다.

사실 박병기포장은 전투의 여가면 자주 전쟁이 승리한후의 자기의 장래를 입대전 대학강당에 나란히 앉았던 그 아름답고 총명한 처녀와 결부시켜 보곤했다. 그럴적이면 박병기는 자기들이 학생과 대학교원의 사이가 되어 다시 만나는 경우를 상상하여보며 (다음번 입학시험을 오명신간호원앞에서 치게 되면 어떡한다?) 하는 엉뚱한 생각에 잠겨보기도 했다. 실인즉 그래서 눈코 뜰새 없는 전투의 나날속에서도 오명신의 모습만은 눈앞에 섰었던지 모른다. 일이 그쯤되자 포병들은 《포장동문 부상당해도 군의소에 돌봐줄 처녀가 있어 걱정이 없겠다》는 등 《포장 덕분에 군의소에 가도 대우를 받게 됐다》는 등 하며 한층 떠들어올렸다. 포병들은 기세충천하여 진지를 뺐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전투에서 박병기포장이 대퇴골에 심한 중상을 입었을 때 포병들은 병어리가 되어버린듯 침묵을 지켰다.

다섯차례에 걸친 맹렬한 전투로 아군의 공격을 보장한 포중대엔 세문의 포박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동안 가슴아픈 희생도 적지 않게 입어 모두는 침울한 얼굴빛이었다. 포진지를 떠나게 된 박병기는 포병들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다.

어느덧 위생차에 오른 포장은 자기가 후방으로 실려간다는것을 깨닫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공연히 옆에 앉아가는 어린 후송병한테 신경질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고 소리쳐 물었다.

《사단군의소로 갑니다, 포장동지.》

박병기는 후송병의 그 당돌한 대답에 그만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조금후에는 뜻밖의 온화한 음성으로 다시금 혼자소리처럼 이렇게 반문하였다.

《사단군의소, 그래 사단군의소로 간단말이지?》

드디어 그의 눈앞에 꿈속에서처럼 오명신의 얼굴이 방불히 떠올랐다. 동시에 바로 며칠전 그와 함께 전선신문에 나란히 소개된 일이며 과학탐구로 불랐던 대학시절이 별많은 하늘처럼 평온히 펼쳐지는것을 느꼈다. 이제 사단군의소에 가면 불현듯 전선에 나타난 그 다감한 눈매의 처녀와 만나게 될테지... 지긋게 갈마드는 그런 생각은 어떤 행복한 예감처럼 자신도 건잡을수 없으리만큼 야릇한 흥분을 자아내며 그의 가슴을 몹시도 울렁이게 하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박병기는 어린 후송병이 갑작 놀라 《포장동무!》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그만 모질게 신음소리를 냈다는것을 깨달을수 있었다.

(전선에서는 포병들이 조국이라는 크나큰 존재밖에 모르며 죽음도 두려움없이 피흘리며 싸울텐데...) 하는 량심의 가책과 몸부림이 포장으로 하여금 어린 전사앞에서 부끄러움도 잊게 만든것이였다. 사단군의소에 도착한 박병기포장은 마중나온 간호원이 다름아닌 오명신간호원임을 첫눈에 알아보고도 그런 피로운 마음때문에 본의아닌 무뎡뎡한 감정으로 대할수밖에 없었던 일이였다....

전선을 떠나며 박병기의 심중에서 뒤흔던 또 하나의 자못 심각한 그런 자책감을 알지 못한 오명신간호원의 하루하루의 생활만이 계속 그에 대한 특별한 관심속에 흘러갔다.

부상당한 박병기포장의 다리수술은 군의집단속에서 론의가 분분할뿐 좀처럼 결론되지 않았다. 그때에도 누구보다 먼저 심상치 않은 예감에 불안을 느낀 사람은 오명신이였다.

박병기포장은 자주 무거운 표정에 잠기였다. 이따금 병실창문을 두드리며 전선가까운곳에서 아군의 포성이 울려오면 그는 자기의 상처받은 다리를 고통스럽게 매만졌다.

가뜩이나 후방으로 들어오며 오명신간호원에 대한 남다른 감정을 품었던 일이 좀처럼 가셔지지 않으며 군의소생활을 더욱 못견디게 했다. 오명신이 간호를 담당한후 상종의 기회가 잦아갈수록 그의 무거운 마음은 날로 깊어만졌다. 그래서 하루에도 두세차례씩 처녀의 더없이 각별한 관심속에 치료를 받으면서 언제한번 담당간호원과 조용히 마주앉아 살뜰한 이야기를 나뉘본적이 없었다.

다만 오명신에 대한 포장의 태도가 아무의 눈에도 별다르게 띄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어느 누구의 따뜻한 호의와 친절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사실로 해서였다. 매일같이 포병들의 곁을 떠난 피로움에 부대끼는 박병기포장의 눈에는 주위의 각별한 관심과 친절이 동정의 빛갈로 채색되는것이였고 그때면 그의 마음속에서 손상당한 자존심이 달궈질없이 머리를 들군했던것이였다.

한편 오명신은 담당간호원으로서 나날이 포장한 테로 한발자욱 한발자욱 가까이 접근하며 그를 따 뜻이 돌봐주는데 온 신경을 썼다. 물론 처녀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의 열렬한 마음을 포장이 오히려 더 큰 정신적부담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 가끔 포장의 얼굴에서 질어가는 고심의 흔적이 눈에 띄적이면 (포장동문 전선에서 적땅크와 맞서 싸울 땐 얼마나 담대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제탄의 안타까운 마음에 싸여 그를 무슨 말로 위로했으면 좋을지 몰라했다.

그러던 어느날, 박병기포장의 병실로 찾아갔던 신입간호원이 무슨 모욕이라도 받은것처럼 울상이 되어 달려와선 막 속상해하였다.

오명신은 벌써 그 까닭을 짐작하고 마치 자신에게라도 호소하듯 어른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타일렀다.

《진정해. 난 포장동무가 전선을 떠나며 얼마나 피로운 심정이였는가를 알어. 그가 간호원들이 찾아가도 별뚝스레 성난 사람처럼 대해주는건 그런 마음때문일거야. 전쟁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인데 나보고도 그래. 그러니 특별히 기분 상해할건 없어. 알겠니?》

《아이참 중사동진 그저 너무 마음이 무뎠해 야 단이예요.》

오명신은 그 웅골찬 말엔 말문이 막혀버리고말았다.

오명신은 그날처럼 깊은 생각에 오래동안 잠겨본적이 없었다. 그럴것이 그도 박병기포장의 간호를 담당하며 포장의 피로운 심정에까지 마음을 쓰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던가...

오명신은 그날 박병기포장의 병실로 찾아가서 마침내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하였다.

《포장동문 군의소에 온후로 너무도 많이 달라진것 같아요.》

《.....》

박병기포장은 한동안 그를 놀란 눈매로 쳐다보기만 했다.

《물론 전선을 떠난 피로운 심정때문에 그러리라고 봐요. 하지만 언제나 마음만은 굳게 가져야...》

오명신은 가슴속에서 오래 다듬어진 말이었으나 너무나 절절한 하소연이다보니 그만 뒤를 잊지 못하고말았다.

《그렇다고 군의소침대우에서 덩구는 신세에 멋없이 떠들어 댈순... 그렇잖소?》

박병기포장은 마지못해 한마디 하고는 어딘가없이 몹시 면구스러워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물론 오명신은 박병기포장의 그런 태도에서 별다른 기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그것은 전쟁이라는

준엄한 환경에 오히려 어울린 《둔감한》 감정이라 해야 할것이였다. 그저 처녀는 모처럼 벌렸던 그와의 이야기가 너무도 어색하게 동강난바람에 마음이 흐려졌을뿐... 여하튼 오명신은 그런 일이 있는 뒤로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 쉬운 박병기포장의 간호를 그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는 일로 여기였고 아무한테도 부탁한적이란 없었다.

며칠이 지나 그가 군의소에서 약 시오리가량 상거해있는 보병중대의 예방치료를 맡고 급히 떠날 차비를 하며 몹시 망설였던 리유도 다른데 있지 않았다. 평상시 굶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던 오명신의 그 불안한 심정을 알지 못한 군의소성원들만은 눈치없이 제깅에 떠들어대며 처녀가 보병중대까지 내내 가파로운 산길을 타고 가게 된 일에 대해서 걱정해주었다.

떠나기 앞서 오명신은 포장한테 잠깐 들려보았다.

한데 웬일인지 박병기포장은 침대우에 꼼짝않고 누워있었다. 머리로 폭 뒤집어쓴 뺨은 모포며 그 밑에서 세차게 들썩이는 어께... 그를 찾아 급히 병실로 들어선 오명신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고 대뜸 가슴이 뭉클했다. 그의 침대밑에는 오명신이 이제껏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한번도 띄여보지 못한 한장의 편지가 떨어져있었다. 오명신은 성미가 격진 사람의 얼굴에서 너무도 쉽게 찾아보게 된 눈물인데다가 그우에서까지 눈물자욱을 발견하고선 가슴이 와락 미여지는것 같았다. 처녀는 그때에야 낮에 기통수가 왔다간 생각이 나서 편지를 얼른 집어들었다. 다음순간 그의 눈앞은 단박 부엌에 흐려왔다. 포장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전사를 잃은것이였다. 그가 바로 박병기포장이 군의소로 실려온 어둑새벽 함께 나타났던 어린 후송병일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그 애젊은 전사가 희생되었다고 믿기엔 너무나 잊혀지지 않는 생동한 모습이 아직도 오명신의 눈앞에서 살아움직이고있었다. 그날 무렵없이 군의소장실에 뛰어들어 자기네 포장밖에 없는것처럼 떠들어대던 일이며 담당간호원까지 직접 만나 것처럼 간절히 간호를 부탁하고 떠나갈 때 그의 손에서 사랑스럽게 팔락이던 포장의 빨간 수기... 그가 자기 고향에 두고온 동생처럼 귀염성스럽게 생각되던 일이 방금 어제런듯 떠올랐다. 더는 입어갈수 없었다. 것처럼 귀중한 전우였기에 어린 후송병의 희생은 자나깨나 전선을 애타게 그리워한 포장의 강마른 가슴을 추기며 그토록 한꺼번에 많은 눈물을 사정없이 퍼낼것이다. 한데 자기는 과연 그의 피로움을 얼마나 함께 가슴아파했던가! 그런 찌릿한 생각에 박병기포장의 지난 군의소생활까지 겹쌓이며 밀려오자 오명신은 그 자리에 서있지 못하고 그만 방에서 와락 뛰쳐나오고말았다.

설핏이 지는 해를 초조하게 바라보며 줄땀을 흘리면서 보병중대로 찾아간 오명신이 불일을 마치고났을 때는 밤이 이슬했다.

저녁무렵부터 구질구질 내리기 시작한 비를 먹은 처마밑에선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락수물 떨어지는 소리가 귀등그럽게 툭랑툭랑 들리더니 어느덧 그 소린 간데없고 하늘을 무너뜨리는듯한 억수가 병실지붕을 요란히 두드려대었다. 오명신은 불의에 퍼붓는 그 비소리로 하여 오싹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며 소스라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방안으로 뛰어들어온 중대지휘관이 금방 떠날 차림을 하고있는 오명신을 의아히 쳐다보며 질겁한듯 소리쳤다.

《간호원동무, 정신있소? 이고장 태생도 밤에 저〈범바위골〉을 넘었다는 사람은 없소. 우리한테 왔다가 밥 굶을가봐 그러오?》

《전 꼭 가야 해요.》

오명신은 괜히 우물거리다간 고집이 세단 말을 들을것 같아서 얼른 밖으로 나섰다. 때를 같이하여 대줄기같은 굵은 비발이 얼굴을 되게 후려갈기고 방금 나온 출입문이 광 벽에 부딪치며 부서지는 소리를 냈다. 그바람에 어지간히 급해맞은 지휘관은 자기 비옷을 얼른 벗어 오명신이한테 던져주고는 직일병을 떠들썩 불러대었다. 아마도 캄캄한 밤중에 혼자 보내기가 안되어서 따라나서기라도 하려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오명신은 벌써 어둠속으로 깊이 사라져버리었다. 《중대장동무, 고마와요.》 하는 야무진 목소리만이 휘몰아치는 공간속에서 겨우 그의 존재를 알리며 울려왔다.

오명신은 그때 자기 일생에 그런 무시무시한 밤길이 처음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그저 낮에 목격한 포장의 눈물에 젖은 얼굴만이 떠올랐다. 동시에 며칠전 담당간호원인 자기를 대신하여 박병기포장한테로 찾아간 그 신입간호원이 하던 말이 귀전을 쳤다. 과연 간호원들이 환자들을 치료할 임무만 지니고 박병기포장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은 외면해도 된단말인가? 그렇다면 왜 자기는 포장의 그 피로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못했던가. 사랑하는 전사를 잃은 슬픔은 비록 커도 눈물을 거두고 주먹을 부르쥐며 일어나 앉게 못했던가. 오명신간호원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때 포장의 가슴에 자기에 대한 쓰라린 감정이 잠재해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었다, 그래서 처녀는 박병기포장앞에서 조금도 구애됨이 없이 오직 그한테 시들줄 모르는 생기와 활력을 안겨주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속일수도 일부러 꾸밀수도 없는 자기 량심의 힘을 확신하며 것처럼 비바람속을 대담히 걸어갈수 있었다. 처녀는 너무도 가슴아픈 마음을 안고 걷다간 비물이 팔팔 흘러내리

는 자기의 얼굴을 만져보기도 하였다. 차거운 비발이 얼굴에 휘뿌릴 때면 포장의 눈물에 잠긴 모습이 떠오르며 자신이 먼저 이 사나운 밤길에서 한바탕 모진 비바람과 싸워보고라도 싶은 심정이었다.

길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엉망인 길을 그는 걸고 있었다. 열기설기한 나무뿌리와 흠타기투성이의 오솔길은 한발자욱을 옮겨 딛기에도 땀발이 내쫓았다. 그래도 그는 잃어지면 잃어졌지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산속에 집어들수록 앞은 먹물을 끼얹은듯 캄캄해지고 울창한 수림은 자연의 황포한 광란 밑에서 우우 아우성쳤다. 문득 보병중대 중대장이 《범바위골》이라고 하던 말이 귀전을 쳤다. 과연 범바위는 어디쯤에 웅크리고 앉았는지, 이 산중에 호랑이가 많이 피서 그렇게 불렀을가? 아닌게아니라 바로 지척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났다. 머리칼이 쭈뼛 곤두섰다. 생나무아지가 딱-하고 부러지는 아츠러운 소리도 짐승의 비명같고 이 소리도 저 소리같은게 도무지 아무것도 분간해들수 없었다. 어디가 협곡이고 등성이인지 가량하기 어려웠다. 그저 나무숲이 태질하며 와수수하는데가 언덕배기이고 골개물과 돌맹이 굴러내리는 소리가 나면 거기가 골짜기라는것을 깨달았다. 세차게 훑날리는 비발은 점점 기승을 부리며 그를 쓰러뜨릴것처럼 탈린 비옷앞자락을 물어뜯는가 하면 잔등을 얼얼히 두드려대었다. 오명신은 후련한 비옷의 고깔모자를 깊숙이 당겨쓰고 손은 편리하게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때 바른쪽 주머니안에서 성냥곽을 감축한 오명신은 무슨 진기한 보물이라도 발견한것처럼 기뻐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옛날 사람들이 밤길을 다닐 때 몸에 불을 가지고 다녔다고 했다. 그러면 호랑이도 피해달아나고 무섭증을 타지 않게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때 어머니의 말을 동화속의 신비한 세계처럼 들으며 (아마 불을 가진 그 사람들은 모두 장수들이었을거야.) 하고 생각했었다. 오명신은 바람을 등지고 비옷자락속에서 두손을 오그려 조심히 성냥을 켜다. 세찬 비발이 비옷자락안으로 사정없이 끼쳐들며 뒤편을 놀았던것이다. 그는 몇번이나 성냥가치를 부러뜨리며 헛수고를 했는지 모른다. 한데 겨우 간난신고하여 일군 불꽃은 그가 미처 걸음을 옮겨놓을 사이없이 파르르 떨다가 홀 꺼져버리고말았다, 앞은 더 캄캄해졌다. 심술궂은 바람은 것처럼 그에게서 가냘픈 불빛마저 사정없이 앗아갔다. 순간에야 오명신은 한가닥 불빛에 대한 어리석은 갈망에 사로잡혀 공연히 걸음을 지체한 자신을 깨닫고 아래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곤 다시 희망을 가질나위 없이 늑둑해진 성냥갑을 손에 꼭 쥔채 비바람속을 마구 달음박질쳐갔다. ...

군의소에 당도한 오명신의 얼굴은 온통 비와 땀에 흠뻑 젖어버렸다. 박병기포장의 병실창문에서는 남포등불빛이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뚫려진 창문구멍으로는 포장이 팔베개를 하고 침대에 기대 옆모습이 비스듬히 들여다보였다. 병실 환자들이 군잠이 든 이 밤 포장이 왜 것처럼 늦도록 잠 못드는지는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래서 오명신은 자기가 젖은 옷차림을 한대로이며 손에는 성냥까지 쥐고있는 그 모든 생각을 까마득히 잊은채 방안으로 들어섰다.

박병기포장은 아님밤중에 군의소에 다시 나타나 그를 놀랍게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왜 아직 주무시지 않아요?》

오명신은 박병기포장의 침대모서리에 살며시 걸터앉으며 여느때와 다름없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그리곤 손에 쥔 성냥갑을 옆에 놓으며 그의 부상당한 다리에 따뜻한 눈길을 주었다.

《상처는 어때요?》

박병기포장은 그 어느 물음에도 응대가 없었다. 그는 오명신을 쳐다보다말고 성냥갑우에 무거운 시선을 가져갔다. 그러다가 그것을 집어 무릎우에 올려놓고 오래도록 말없이 손가락끝으로 굴리었다. 마치도 처녀가 이 사나운 밤에 험한 산길을 기적적으로 혼자 넘어온 비결이 거기에 숨어있기라도 한듯이 …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그래 이 밤중에 성냥을 켜며 왔소?》 하고 물었다.

《예, 제가 어렸을적에 어머니는 옛날사람들이 밤길을 다닐 때 불을 가지고 다녔다고 했어요.》

오명신은 저도몰래 가벼운 웃음을 지었다. 박병기포장은 여전히 성냥갑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채 묵묵히 듣고있었다. 그러자 오명신이한테도 어떤지 금방 걸어온 밤길이 의미깊게 생각되는것이었고 거기에 동반된 사연을 박병기포장과와의 사이에 보다 인상적으로 남기고싶어졌다.

《그러나 전쟁이 승리하면 전 아마 이 밤을 회상하며 어머니한테 다른 말을 하게 될지 몰라요. 성냥불은 한순간 길을 밝혀주었을뿐이예요. 바람에 꺼지고말면 앞은 더 캄캄해지지만 하여 아무런 동무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전 그날밤 불보다 밝고 뜨겁고 강한것이 바로 인간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는것을 너무도 쉽게 깨달을수 있었다고 말하게 될거예요.》

하지만 오명신은 그 말끝에 갑자기 공리가 막힌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었다. 낮에 보병중대로 떠나기 앞서 박병기포장의 병실에 들렀다가 목격한 가슴아픈 광경이 다시금 눈앞에 밝혀와서였다. 바로 그런 큰 슬픔에 잠긴 포장을 도와주어야

했다는 생각, 자기 량심이 스스로 지닌 의무로 하여 그는 어둠도 휘몰아치는 비바람도 이겨내며 혼자서 험준한 산밭을 넘어올수 있지 않았던가. 그것이 다름아닌 자신에 대한 이야기임으로 하여 차마 포장앞에서 뒤말을 이어덜수 없었던것이였다.

그후 박병기포장이 군의소에서 퇴원한지 석달만 이였다. 오명신은 사단의 포중대성원들이 놈들의 한개 련대 기갑무력을 본때나게 녹여낸 무명고지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면 박병기포장과의 세번째 상봉을 소원대로 이루지 못했을것이였다. 아마 전쟁이 승리한 마감날까지도… 하지만 그 시기 사단군의소가 날로 격렬해지는 전투환경에 대처하여 전방과 거의 림접해있었던것만큼 그들은 군의소가 아니라 최전선에서 다시 만날수 있었다. 단지 아직은 그 어떤 불행에 대한 예고도 천진한 그의 가슴을 놀래우지 않았고 처녀로 하여금 고지에 도착하자 비발치듯 쏟아져내리는 포탄속을 뚫고 반나마 허물어진 진지와 진지사이를 달리며 포병들의 간호에만 여념이 없도록 부추겼다. 이미 세차례의 가렬한 전투에서 승리한 포병들은 계속 보병중대의 방어를 기본종게 엄호해주고있었다. 고지옆의 군용도로를 차지할 기도로 분별없이 달려든 놈들한테는 그때마다 매번 맹렬한 포화가 들썩워졌다.

그러나 네번째 공격에서도 뒤통락을 얻어맞은 놈들이 얼음판에 박 밀리듯 퇴각해가기 시작한 때였다. 부상당한 한 포병의 곁에 무릎을 꿇고앉아 열심히 붕대를 감아주던 오명신은 갑자기 귀청을 찢는 아츠러운 폭음과 함께 뽕얀 흙먼지속에서 《화력지휘관동지, 포탄이, 포탄이 떨어져갑니다.》라고 다급히 웨치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음순간 그는 《알겠소, 사격을 중지하고 사단참모부와 보병중대에 급히 연락하십시오.》라는 말을 분명히 가려들었다. 대뜸 가슴이 철렁했다. 그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놈들은 아직 저들의 야망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였다. 그렇다면 보병중대전투원들은 사단포의 지원이 없이 적땅크와 맞서 피어린 싸움을 벌리게 될것이 아닌가? 오명신은 저도모르게 고지앞의 평퍼짐히 펼쳐진 룡선, 아군보병들이 차지한 계선을 바라보았다. 적개심에 불타는 그의 두눈엔 눈물이 핑 어리었다.

《제기랄, 불장 다 봤군. 포병이란 이래서 개관이 라는거요. 포탄만 떨어지면 손털고 나았을수밖에 없으니말이요.》

부상당한 포병이 투덜대며 말하였다.

《그래도 보병들이 저런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 무슨 방도가 없을가요?》

오명신은 안타까운 눈매로 그를 쳐다보았다.

《글쎄 내가 박병기포장쯤 된다면 모르겠는데 유감스럽게 중대에서도 맨 꼬랑지에 이름이 달려있단말이요.》

《정말 박병기포장동무가 어데 있어요?》

오명신은 고지에 도착하여 아직 만나보지 못한 박병기포장이 화제에 오르자 반갑게 물었다.

《아니 그럼 포장동무와 아는 사인가요? 저기 저게 중대 기준포진지인데 거기 가면 혹 속시원한 대답을 듣게 될는지 모를거요. 여기선 모두가 박병기 박병기하고 떠받드는 포장이니까.》

오명신은 그 말을 듣자 저도모르게 위생가방을 추슬러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석달전 박병기포장과 군의소에서 헤어지며 조국이 승리한 그날까지 전선을 떠나지 말자는 뜨거운 말로 작별인사를 나누었던 그는 마치도 자기들의 상봉에 이 가렬치절한 싸움의 운명이 달려있기라도 한것처럼 생각된 것이었다. 오명신이 자기만이 느낄수 있는 그런 이상야릇한 흥분을 안고 어느덧 기준포진지에 당도하였을 때였다. 마침 거기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격선 가운데 흥분된 목청들이 찌렁찌렁 울리고있었다.

《그럼 어떡하자는겁니까. 포탄이 도착하기만 앞서 기다린단말인가요. 젠장, 난 대담하게 적땅크의 기지로 나가 놈들이 기동하기전에 까부시자는겁니다.》

《안될 소린 그만하오. 포병이 포결을 떠날수 없다는거야 동무도 잘 알지 않소? 나한테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포병들을 내몰 권한이 없소.》

오명신은 드디어 박병기포장의 귀에 익은 그 응글진 목소리를 듣고 그만 포진지위로 한발 주춤 물러섰다. 아마도 포장은 자기의 전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체기를 밀막아버리는것이리라 생각되었다. 그럴만도 한것이 사단군의로에 입원한 때만해도 포장은 희생된 어린 후송병의 가슴아픈 소식을 듣고 얼마나 몸부림쳤던가! 포장은 지금 준엄한 싸움을 목전에 두고 그때와 다른없는 심정일 것이었다. 다음순간 오명신은 포병들의 불덩이같은 말을 더 듣고 서있을수 없어 열결에 두손을 귀에 가져갔으나 소용이 없었다.

《저도 포병들이 준수해야 할 규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놈들이 최후발악을 하며 달려들겠는데 포만 부동켜안고있어서야 무슨 포병인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병중대를 지원하여 전투승리를 보장해놓고봐야 할게 아닙니까!》

박병기포장은 가슴을 쥐어뜯는듯한 그 안타까운 호소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포탄이 몇발밖에 남지 않은 형편에서 포병들은 전투승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지휘관은 자기의 사랑하는 전사들까지도 생각하지 않을수 없을것이

였다. 포진지의 입구에 붙어섰던 오명신은 누구도 몰래 그만 발길을 돌리고말았다. 그리고 얼마후에는 보병들이 차지한 계선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가렬한 싸움은 이제 거기서 한바탕 격렬히 벌어질 것이었다. 오명신의 가슴은 그런 판가리마당에서 그자신 보병중대전투원들과 생사를 같이하며 부상병들을 간호할 결심으로 뜨겁게 고동쳤다.

한데 그 불같은 마음에 사로잡힌 그가 한동안 황량한 벌판을 가로질러 짙은 포연속을 정신없이 달려가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지척에서 누군가의 벽력같은 고함소리가 그를 멈춰세웠다.

《동무, 어디로 가오!》

적땅크의 무한계도자국이 발고랑처럼 깊이 패운 등판에서 어깨에 기관단총을 멘 병사가 벌떡 몸을 솟구었다. 련이어 그 옆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띠엎띠엎 매복한 보병전투원들의 구리빛 얼굴들이 언뜩언뜩 눈에 띄었다.

《돌아가시오. 동무 여기가 어딘줄 알고 왔소?》

성난 목소리는 두번째로 요란히 울렸다. 오명신은 한발자욱도 움직이지 않고 당황히 서있었다. 보매 보병중대전투원들이 틀림없는데 무엇때문에 만나자 큰소리로 대해주는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그때 다른 대원이 허리를 굽히고 그의 앞으로 구보로 달려와 랑해라도 구하듯 자못 친절한 음성으로 물었다.

《간호원동무 어떻게 되어 여기로 왔습니까?》

오명신은 너무도 뜻밖의 푸대접을 열열히 받고 난 뒤인지라 얼른 말이 나가지 않았다.

《가만, 저리로 감시다. 여긴 매복구역입니다.》

그리하여 오명신은 그 대원의 뒤를 따라 여라문명의 보병전투원들이 잠복한 전호속으로 뛰어들수 있었다. 그때에야 알고보니 그들은 보병중대전투원들속에서도 적땅크를 파괴할 목적으로 일선에 선발되어 나온 결사조원들이었다.

참말로 놀라운 일이었다. 포병들의 지원사격을 바랄수 없게 된 이들은 희생을 각오하고 여기에 나와 적땅크를 기다리는것이 아닌가?

《간호원동무, 노여워마시오. 여기가 녀성들이 접근할 장소가 못되다보니 그만...》

금방 오명신이한테 엄포를 놓은 대원이 미안한지 땀에 젖은 군모를 거울진 손에 벗어쥐고 주물럭거렸다.

《여하튼 금방 큰소릴 친 주체에 안됐소만 청이나 받아주소. 난 얼굴에 상처기 하나 없는 사람이니 왔던김에 거 귀맛좋은 노래나 한곡조... 개놈들이 지레 뉘쳤는지 심심해 죽을 지경이라니까.》

그의 반죽죽은 익살에 모두는 한바탕 큰소리로 웃어댔다.

오명신은 그들의 통쾌한 웃음소리를 듣고선 더구나 가슴이 뭉클해지는걸 겨우 참았다. 전사가 등을 기대 전호의 흉장우에는 두개의 큼직한 반땅크 수류탄이 보란듯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이제 놈들이 달려들면 전사는 량손에 저 수류탄을 쳐들고 적땅크를 맞받아 육탄이 되어 뛰어나갈것이 아닌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아연해지는 노릇인데 어디서 그런 배짱좋은 폭소가 터져나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간호원동무, 저 친구한테 걸려들었다간 재미없수다. 하다못해 코노래라도 부르는 시늉을 내야지. 그러니 빨리 뺄소널 치시오. 이제 곧 놈들이 달려들텐데 그땐 돌아가기도 조런치 않을거요.》

갓 면도한 수염자리가 푸릿한 그 대원은 놈들이 나타날 시간을 가량하듯 손목시계까지 쳐들어보며 익살을 부렸다.

모두가 얼마나 야끼고 사랑해주고싶은 사람들인가? 오명신은 한동안 말없이 그들 매사람의 얼굴을 눈이 익혀둘것처럼 뜨겁게 바라보았다. 벌써 그의 머리속에는 것처럼 귀중한 전우들의 곁을 무정히 떠날수 있다는 생각이 꼬물만큼도 없었다. 실사 몇분후에 그들이 장렬한 최후를 마치게 된다 해도 조국은 오늘의 보병중대 결사조원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두고두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게 될것이 아닌가. 만약 그때 사람들이 자기보고 《간호원동무 그날 보병중대결사조원들과 한 전호속에 있지 않았소?》라고 묻는다면 무슨 말을 할수 있단말인가? 난 간호원이였기에 그들과 함께 남아있을수 없었다고 하겠는가? 아니 그렇게 부끄럽게 살고싶지는 않았다. 자기도 그들처럼 먼 후날 사람들앞에서 떳떳한 대답을 할수 있어야 할것이였다. 조국이 준엄한 시련에 처한 엄숙한 시각 우리의 믿음직한 전사들 누구나가 병종과 직분을 따로 가리지 않고 자기 량심이 가리키는 가장 빛나는 지리에 스스로 나설줄 알았다고! ... 오명신은 그런 비장한 생각이 들자 저도모르는 사이 두눈에 흠뻑 물기가 피어오르는것을 느끼며 피가 나도록 떨리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저도 조국의 한치한치 땅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고있는 전사예요. 전 왜 여기에 남아있을수 없단말이에요.》

《동무, 철딱서니 없는 소릴 작작하오. 이 동무가 웃으며 듣기 좋게 말하니까 도무지 썸관을 모르는 구만. 시간이 없소!어서 잔말 말고 떠나오.》

결사조원들이 룡담이 아니라는듯 오명신이한테 단단히 오금을 박으며 안타까와한 시간은 그후 계속된 말싱갱이로 하여 몇분 더 흘러갔다.

《동무 정말 못가겠소. 썩 사라지오. 이젠 명령이요!》

누군가 또 성깔진 소리를 쳤다.

그 긴장한 시간도 지나가버렸다.

그러나 여전히 적땅크가 나타나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실은 놈들이 어떤 력량으로 언제 어느 방향에서 불쑥 나타날것인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다. 매번 아군포의 강력한 반격에 맞아 얼혼이나간 놈들은 교묘하게도 땅크기지를 유동해가면서 은밀한 기습을 기도하고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직 놈들의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난데없이 아군포진지에서 요란한 포성이 울리였다. 그바람에 성내던 보병도, 검질기게 늘어불던 간호원도 한결같이 놀란 눈길로 머리우를 쳐다보았다. 쿵쿵쿵... 적땅크가 출현하기 앞서 불의에 터진 그 맴판 포성은 대지를 진감하며 조국의 하늘을 울리였다.

《동무들, 이게 어떻게 된 일ियो? 우리 포가 지원사격을 하지 않소!》

마침내 누군가 먼저 전호속에서 벌떡 뛰쳐일어나 두손을 번쩍 쳐들고 아군의 맹렬한 포화가 누벼대는 드넓은 하늘을 쳐다보며 목청껏 웨쳤다.

오명신은 불시에 목구멍이 확 메여올랐다. 과연 정말 어떻게 된 일인가? 그가 포진지를 떠날 때만 하여도 포병들은 불과 몇발밖에 남지 않은 포탄을 두고 모두들 가슴을 치며 안타까와했다. 고지에 새로 포탄이 보충된것인가? 보병중대결사조원들과 불과 몇분동안 함께 있었지만 거기에 너무나 가슴 아픈 희생이 동반된것으로 하여 그 짧고도 짧은사이에 자기의 웅근 일생을 체험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오명신, 그는 그저 눈앞의 일이 꿈같기만 한 생각에 목구멍으로 비집고 나오는 흐느낌소리를 겨우 참았다. 그의 옆에서는 보병중대결사조원들이 마치도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처럼 서로 꼭 부둥켜안으며 환성은 올렸다. 처녀는 그 모양을 감격의 눈물속에 겨우 가려보았다. 포중대의 모든 포진지들에서는 이미 로출되어 일어맞기 시작한 적땅크의 기지에 계속적인 일제사격의 드세찬 화력을 안기며 기세를 올리고있었다.

때마침 중대가 위치한 밤나무곶앞에서 먼저 《돌격 앞으로!》의 퇴성같은 함성이 터져올랐다. 그 힘찬 구령에 따라 결사조원들이 불바다속에 잠긴 적땅크의 기지를 향하여 일시에 전호를 차고 뛰쳐일어났다. 오명신이라도 그들을 뒤따라 입술을 감쳐 물고 힘껏 내달리였다. 만세의 환호성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폭풍같이 일었다. 그 순간이였다. 오명신은 놈들의 기지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우뚝 굳어졌다. 은밀하게 유동하며 숨어배겼던 적땅크기지에서 한점의 빨간 수기가 불꽃마냥 세

차게 나뭇기고있었다. 처음에 오명신은 혹시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하지만 차근차근히 눈여겨보면 볼수록 그 모습은 점점 더 선명히 안겨오며 눈뿌리를 자극하는 것이었다. 검은 구름마냥 타래쳐오르는 불연기에 가리어 사라졌다간 다시 나타나며 광풍에 날리듯 팔락이는 작은 기발, 그것은 무엇인가 안타까이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오명신은 거기에 더 오래 눈길을 팔며 서있을 경황이 없었을 뿐이었다. 보병중대결사조원들이 너무도 멀리 그의 앞으로 달려갔던 것이었다. 그의 뒤론 어느새 보병중대의 기본대오가 바짝 따라잡고있었다.

오명신은 다시금 그들속에 싸여 앞으로 내달렸다. 그가 화염속에 휩싸인 어느 한 적땅크의 앞을 지나칠 때였다.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풀밭 위에는 한 대원이 의식을 잃은채 누워 구원을 바라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다른 한 전사가 허리를 굽히고 앉아 애타는 목소리로 부르짖고있었다.

《포장동무, 포장동무. 정신차려요.》

(아니, 포장이라니? ...)

오명신은 그 말을 듣고서야 잠전에 놈들의 기지에서 나뭇기던 기발생각이 얼핏 떠올라 정신없이 그리로 달려갔다.

다음순간 황급히 그들의 곁에 가서 부상병의 얼굴을 녀없이 들여다보던 오명신은 그만 《앗-》하고 입밖으로 새어나가는 비명소리를 겨우 눌렀다. 뜻밖에도 그는 박병기포장이었다. 게다가 그의 거룩진 손에 아직도 으스러지게 틀어잡힌채 있는 포장의 수기는 오명신의 눈시울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도 남음이 있을만큼 가슴아픈 추억을 자아내었다. 박병기포장이 군의소에 실려온 그날 나 어린 후송병이 포장의 간호를 부탁하고 즐거움에 차서 춤추듯 전선으로 달려갈 때 그 사랑스런 전사의 손에서 팔락이던 작은 기발, 바로 그 낮익은 박병기포장의 빨간 수기가 방금전 적땅크의 기지에서 세차게 나뭇긴 것이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어떻게 포장동무가 여기서 부상당했어요?》

오명신은 박병기포장의 량어깨를 부여잡고 마구 흔들다말고 눈물이 그렁하여 옆에 앉은 포병을 바라보았다.

《간호원동무, 우리 포장동무에 대해선 더 묻지 마요. 너무도 자신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니말이요. 오늘도 적땅크의 기지를 까부시려는 포병들의 제기는 목살하고 자신이 직접... 제길, 아마 누구도 자기를 제외한, 남에게만 관대한 그의 권한은 박탈하지 못할거요. 전쟁이 승리한후 우리모두가 자기의 직제를 떠나게 된다 해도말이요...》

오명신은 울먹이며 겨우 더듬는 대원의 그 말을 더는 들을수 없었다. 박병기포장은 몇발밖에 남지 않은 포탄으로 놈들을 목사발내기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고 교묘하게 음폐한 적땅크의 유동기지로 달려나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자신이 사격목표가 되어 적진속에 불사신인양 거연히 지켜서서 수기신호로 명중사격을 지휘하며 놈들에게 불벼락은 안긴 것이었다. 더구나 박병기포장이 것처럼 영웅적으로 구출한 보병중대전투원들속에 바로 자기도 함께 있었던 일을 상기하자 오명신은 그저 뜨거운 눈물만 북받쳐올랐다.

때마침 다행히도 의식을 회복한 박병기포장이 천천히 눈을 떴다.

《... ...》

그러나 오명신은 박병기포장의 눈빛을 다시 본 그 순간 눈앞이 흐려지는 자신을 견잡지 못하였다.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가슴속에서 굽이치는 흐느낌소리를 애써 억누르던 그는 갈기갈기 찢긴 포장의 군복앞자락을 헤치다말고 너무도 험악한 상처를 발견하고는 끝내 두손으로 얼굴을 와락 싸쥐고 말았다.

과연 조국이란 그 한사람한테만 귀중한 것인가! 오명신은 아까 보병중대전투원들이 전호속에서 적땅크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리며 반땅크수류탄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을 때 그것을 누구나 조국앞에서 똑같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의무로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도 그들속에 서슴없이 남게 되었던 일이었다. 한데 박병기포장은 무엇때문에 매번 이렇게 자신을 확대한단말인가! 오명신의 마음속 그 뜨거운 호소를 알기나 하는지 박병기포장은 운신할수 없는 몸으로 누워 포연이 흘러가는 조국의 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있었다. 마치도 그의 강직한 심장은 조국땅에 기여든 원수를 짓부시기 위하여 자기의 피 한방울까지 짱그리 바친 기쁨과 궁지에 잠겨있는 것 같았다.

그러던 그가 웬일인지 문득 지난 군의소에 입원했을 때의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물었다.

《명신동무, 그때 보병중대에 갔다가 밤중에 혼자 사단군의소 뒤산을 넘어온 일이 생각나오?》

그리고나서 따뜻한 눈길로 자기의 가슴앞을 가리켰다.

《그날밤 동무가 나한테 두고간 성냥갑이 이안에 있소.》

《네?》

오명신은 그의 말을 믿을수 없었다. 그러나 박병기포장의 군복웃주머니에서 모가 이그러진 성냥갑을 꺼내든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었다. 남자들의 호주머니에서 사흘이 멀다하게 교체되는 흔하디

흔한 물건이 성냥인데 그날밤의 그 성냥갑을 여태껏 간수해두었을줄은 정말 몰랐다.

《놀라지 마오. 그날 동무는 보병중대에 갔다가 그 밤으로 돌아와야 할 아무런 의무도 지고있지 않았소. 동문 순전히 나를 위해 녀성의 몸으로, 그것도 혼자서 그 캄캄한 밤길을 스스로 걸어왔던거요. 그러니 동무가 밤중에 그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며 험준한 산밭을 넘어올수 있는것을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수 있겠소. 난 거기에 대해 생각할 때면 그날밤 동무가 밤길에 들고온 이 성냥갑을 놓고 나한테 들려준 이야기를 더듬어보곤했소. 그리고 그때면 나를 위해 그 무서운 밤길에 혼자 나선 동무의 뜨거운 마음과 담대한 행동을 통하여 그 누구의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는 량심의 힘이 얼마나 역세고 강한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소.》

박병기포장이 몹시 흥분한 음성으로 들려준 말은 너무나도 생생한 회상을 불러일으키며 오명신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자아내었다. 그러나 박병기포장은 하고싶은 말이 많았을것이지만 겨우 그 말을 남겼을뿐 더는 뒤를 잊지 못하고말았다. 만약 그때 그가 오명신의 팔에 안겨 다시 의식을 회복할수 있었다면 가슴속에 소중한 간직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들려줄수 있었을 것이었다.

《명신동무, 우린 조국앞에 언제나 자기의 억센 량심을 바쳐야 하오!》

오명신은 그것을 심장으로 느끼는 순간 그만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말았다.

저녁무렵 오명신간호원은 사단군의소를 향하여 부상당한 포병 다섯명과 함께 떠났다. 오명신은 장

바처럼 외줄로 버성겨진 대렬의 한복판에 섰다. 앞에 가면 따라오지 않고 뒤에 서면 선두가 늑장을 부릴것 같아 모색한 끝에 선택한 위치가 바로 그 중간자리였다. 모두는 포장에 대한 생각에 잠겨 거기서 겨우 룡곽만이 어슴푸레 바라보이는 고지를 흘깃흘깃 돌아보며 묵묵히 걷고있었다.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멀리 후방의 야전병원으로 실려간 박병기포장, 모름지기 그는 조국을 위하여 것처럼 자신을 아낌없이 바쳐 희생적으로 싸우고도 지금쯤 보다 깊은 후방으로 들어가는 피로움에 잠길것이었다. 하지만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의 길에선 무한히 가까워지고 또 이렇게 서로 멀어지기도 하는것임을 알고있는 오명신이였기에 그리고 앞으로 어느때든 피로고 슬렸던 일들을 꼭 나누게 될 그날이 있으리라고 굳게 믿는 그였기에 처녀는 눈물을 몰랐다.

그의 등뒤에서 달짝이는 위생가방의 한귀퉁이로는 포장이 남기고 간 빨간 수기의 손잡이가 삐죽이 내보였다.

오명신은 그것이 자기의 위생가방과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라는데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기가 전사들에 대한 간호만이 아니라 그 작은 기발과 함께 박병기포장이 지닌 억센 량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것이며 그것으로 포병, 보병, 공병들, 자기가 찾아가는 모든 구분대전투원들의 가슴을 격동시키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고있었다. 그 이야기속에서 포장과의 사이에 은연중에 오간 자기들의 사랑의 감정까지 다른 사람들이 감축하게 되리라는것에 대해선 아직 생각지도 못하면서...

통일의 그날은 밝아오리라

리영춘

내가 남녘의 고향을 떠난지도 벌써 3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이제는 내 고향도 퍼그나 변했으리라,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고향에 대한 추억이란 머나먼 소꿉시절의 정회뿐이다.

초가집 지붕우엔 조롱박이 기여오르고 장독이 놓인 뒤울안에 감나무 서있던 나의 고향집 그리고 이끼덮인 징검돌이 놓인 마을앞 시내가는 얼마나 맑고 푸르렀던가. 막대끝 쇠줄테에 거미줄 메워들

고 잠자리를 따라다니던 그 시절이 깃들어있는 나의 고향!

순진했던 동요시절이 깃들어있는 고향을 지금 나는 가보지도 못하고있다.

아니, 갈수 없다. 미제가 남쪽땅을 짓밟은 그때로부터 생겨난 분계선이라는 인공적인 장벽이 배길도 막아놓았고 차길도 끊어놓았다. 그러니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곳이 나의 고향이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나는 세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이란 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들, 언젠가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우리한테도 할머니가 있나? 삼촌은 왜 없나?》

처음 듣지 않는 그 물음에 나는 금시 목이 메어서 대답을 못했다.

어린것들은 철이 들면서부터 그런 질문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그런 질문이 아버지의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아마 감촉했음이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하고 분열을 지속시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두개 민족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은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게 될것입니다.》

지금 내 고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제는 고향의 그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에 멍이 들었을 것이다.

양풍과 왜색왜풍의 오물들에 산천도 더러워지고 사람들도 병들었을 것이다.

그 옛날 우리 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나와 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고있었다.

일제는 쫓겨갔지만 남녘땅은 검은 구름이 뒤덮여 밝아질줄 몰랐다. 미국놈들의 총구는 민족의 랑심을 향해 불을 뿜었고 민족반역자들은 제세상처럼 날뛰었다.

《소학훈장》이었던 아버지는 어지러워지는 세상을 조금만이라도 외면해보려고 도회지를 떠나 고향인 먼 시골로 우리 식구를 이끌고 내려왔다. 자라는 아이들이라도 어지러운 세파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골도 사정은 매한가지였다. 농토는 미국놈들의 땅크에 황폐화되고 아버지의 입에서는 《숨막히는 세상이구나.》 하는 탄식이 자주 흘러나왔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아픈 가슴을 얼러보기라도 하듯 술취한 사람처럼 어릴적에 부르던 고향의 노래를 눈물겹게 부르곤했었다.

언제부터 우리 고향에 생겨났는지 모를 그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폭 적셔놓곤 했었다.

지금도 나는 그때 아버지가 목메여 부르던 고향의 노래를 잊지 않고있다.

초가집 지붕엔 조롱박이 울망줄망
뒤울안 장독밑엔 감알이 대굴대굴
꿈에도 잊을소냐 내 고향집

.....

어느덧 아버지가 목메여 부르던 이 노래는 내 동생의 입으로 올라갔다.

그때 일곱살이었던 내 동생은 고운 목청으로 노래를 아주 잘 불렀다.

동생이 고향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두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었다.

《이 집 둘째는 이담에 노래군이 되겠어-》

동리사람들도 내가 질투를 느낄만큼 동생을 칭찬했다. 이처럼 동생의 목청은 우리 집의 유일한 자랑거리처럼 되어버렸다.

마음씨 착했던 아버지, 어머니의 덕분이었던지 우리 형제 다정함도 유별했다. 내 주머니에 어찌 다 밤 한톨이 생겨도 동생에게 갖다주었고 그 애 또한 내가 집에 들어서기전에는 잠드는 법이 없었다. 다정한 형제였다.

살벌한 이 남쪽땅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생활에 대한 소박한 꿈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 형제였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형제는 숨막히는 남쪽세상에서 우리 부모가 숨쉬며 살수 있었던 단하나의 《터전》이었다.

미제는 이 땅우에 전쟁의 불을 질렀다.

인민군대를 따라 정의를 찾아 북으로 들어왔을 때에야 나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품속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나왔다. 누구나 다 무료로 공부하고 돈 환관 들이지 않고 치료받는 나라, 인간이라는 자랑을 안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있다.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남쪽에 두고온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에게 지금 내가 누리고있는 행복을 누리게 하고싶은 그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생사여부조차 모르고있다. 고향을 지척에 두고 가뭇보는 그 안타까움이란 이루 헤아릴수 없다.

지금 나의 혈육들은 어떻게 지내고있는가? 죽었는가? 아니면 살았는가?...

나는 얼마전에 가슴아픈 하나의 사실을 목격하였었다. 그것은 조선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으로 되고있는 사실이다.

내가 유럽의 어느 나라에 들렸을 때의 일이었다.

숨막힐듯싶은 이국의 공기, 네온등이 속을 뒤집어놓을것같이 번쩍거리며 자본의 《왕자》들이 살판치는 거리...

이런 때면 조국의 맑고 신선한 공기, 아름답고 푸르른 조국의 하늘과 땅이 간절하게 그리워진다.

내가든 호텔에는 한 동양인 소제부가 있었다.

언제 한번 웃어보지 못한것 같이 흐려있는 구슬픈 얼굴, 람루하달만치 천하게 입은 옷에서는 궁기가 흐르고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 어쩌서 저 사람은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낯설은 이 서양땅에서 고역살이를 할까?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복돋은 나는 그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좀처럼 결을 주지 않았다. 우선 그는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몹시 꺼려했다. 어쩌다가 복도에서라도 마주치면 무슨 죄라도 지은것처럼 인차 다른곳으로 사라지는것이였다.

필수룩이던 저렇게 사람을 피해다니는것은 이 호텔 주인이 세워놓은 질서인가보다하고 나는 생각할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내가 방을 나서는데 어디선가 이상스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걸음을 옮겨가던 나는 그만 흠칫하고 멈춰섰다. 한것은 으스스한 복도 한끝의 창문가에 바로 그 소제부가 머리를 기대고 서서 웅얼웅얼 노래를 부르고있었는데 그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나는 그 소제부가 부르고있는 노래의 한토막을 알아듣는 순간 소스라치며 놀랐다. 먼먼 옛날 나의 아버지가 목매여부르던 노래, 내 동생도 그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을 울리던 그 고향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있었기때문이였다.

아, 저 사람은 조선사람이었던단말인가.

나는 그 어떤 흥분을 느끼며 소제부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고향은 어디요?...》

고향에 대한 한가락의 가냘픈 노래가 연줄이 되어 한고향사람을 만나게 될줄이야...

나는 가슴이 터지는것처럼 아파났다.

한고향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제 땅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남의 나라땅에서 서로 남남처럼 만나게 된 그것이 너무도 기막혔다.

그뿐만이 아니였다.

나는 그 소제부를 통해서 내 동생에 대한 소식도 알게 되였다. 고향에서 목청이 굵기로 소문났던 동생은 노래에 명줄을 걸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목청을 망가뜨리고 남아메리카의 어느 탄

광에 팔려갔다는것이다. 그러니 고향의 늙으신 부모들의 운명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아!가슴이 터진다. 가슴이 터진다.

한 피줄을 이어받은 혈육들이 어쩌서 서로 갈라져 살아야 하며, 어쩌서 다른 나라의 옷을 입고 다른 나라 말을 해야 하며 낯설고 물설은 땅에서 노예의 신세가 되여야 한단말인가.

언제부터 이런 비극이 조선사람들에게 생겨나게 되였는가. 그것은 미제가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한 그때로부터 생기기 시작한 비극이다.

이 세상의 고통이란 고통, 참화란 참화를 다 들썩우고도 씨원치않아 오늘도 미제침략자들은 여전히 뻔뻔스럽게 조국의 절반땅을 가로타고앉아 주인행세를 하며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들썩우고있으며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의 간절한 마음속에 가시를 박고있다.

이 이상 더는 민족분열의 고통을 참을수 없다. 량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찌 우리 혈육들이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에서 몸부림치는것을 보고만 있겠는가.

오늘도 미제는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미쳐날뛰고있으며 남조선군사파쑸악당들을 부추겨 민족분열책동으로 내몰고있다.

우리 인민은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갈라지는것을 조금도 원치않는다. 오직 하나, 조국통일을 원할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조국통일의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도로서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할것을 제시하시고 전민족이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뭉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우려하고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수 있는 얼마나 공명정대한 구국강령인가.

나는 지금 온 몸, 온 심장을 다하여 웨치고싶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치신 자주적조국통일의 성스런 위업에 떨쳐나서라고...

그럴 때만이 새날이 밝아오리니,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 부강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이 3천리강토우에 솟아날것이다!

그런 당일군과 함께라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저는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단막 희곡 《우리 군당비서》(《조선문학》 1980년 6호, 립희문 작)를 매우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틀과 걸치레가 없는 당일군, 언제나 대중속에서 그들과 함께 숨쉬며 생활하며 마음속에 충성의 불을 지펴주는 당일군의 형상은 정말 진실하며 감동적입니다.

한 평범한 제대군인의 신희살림을 걱정하여 이제 산모가 들 방에 탄불까지 피워놓은 군당비서, 다락발건설에서 일군들의 앞장에서 로동화를 몇켄 레씩이나 해뜨리며 산발을 오르내렸을 군당비서, 자신도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일하는 동무와 똑같은 혁명전사라고 뜨겁게 이야기하는 군당비서야말로 《우리 군당비서》입니다.

군당비서를 저와 같은 로동자언술로 알고 허물없이 자기 속내를 털어놓는 제대군인 불도젤운전수의 오해는 응당하며 타당합니다.

하기에 제대군인 불도젤운전수가 다락발건설때문에 걱정하는 처녀관리위원장에게 《...저런 친구와 함께라면 무슨 일인들 못해제끼겠습니까...》라고 꾸밈없이 말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락발건설에 동원된 제대군인 불도젤운전수가 잠시나마 마음의 불을 켜지 않고있을 때 그를 따듯이 일깨워주는 《우리 군당비서》의 말은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상준: 그럼, 영택동무, 우리가 새땅을 찾아내구

다락발을 건설하는 사업은 바로 우리자신들과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아닌가, 바로 어제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찬바람 부는 다락발건설장의 가시덤불길을 헤치시길 앓았나.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떨어지자 더운 방에 누워 편한 잠을 잘수 있겠나.

영택: 그건 동무 말이 옳아...가만, 동무 소속이 어디라구 했던가?

상준: 응, 난 동무네 심부름군이야.

영택: 심부름군? 그럼 조수로 배치돼왔단말인가?

아, 그럼 진작 그렇게 말할게지, 사람두!

여,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손잡고 일해보자구.

상준: 좋아!

영택: 나하구 통해! 응, 배짱이 맞는단만이야.

동무 이제 보니 정치사업도 썩 잘하누만,

응? 그 뭐야, 사람의 마음을 운전할줄 안단말이야.

△ 돌이는 호탕하게 한바탕 웃는다.

보는바와 같이 군당비서의 형상은 친근한 《우리 군당비서》로써 진실하고 생동하게 안겨웁니다.

이런면에서 단막희곡 《우리 군당비서》는 우리 독자들에게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충성의 불을 켜주는 《우리 군당비서》와 같은 그런 당일군과 함께라면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중앙에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한 우리 로동계급의 충성의 삶은 더더욱 빛을 낼것입니다.

앞으로 잡지 《조선문학》에 우리의 길동무로 되는 《우리 군당비서》와 같은 희곡작품을 많이 실어주시시오.

함경남도 장진중흥광산 김홍철

미 래

신승구

물러가는 계절이 대학구내의 나무가지에서 햇숨 같은 눈무지를 털어내리고 겨우내 청사의 처마끝을 붙잡고 데룡거리던 고드름이 맥없이 땅우에 떨어저서는 《쟁그랑!》 하고 짜릿한 음향을 퍼뜨리던 이른봄의 어느날 아침이었다. 대학교단에 선 나에게 있어서는 그날도 정상적인 교수사업이 진행되는 레사로운 날의 하루였다. 정각 여덟시반이 되면 어김없이 강의시간을 알리는 경쾌한 전기종소리가 복도를 울릴것이고 강의안철을 받쳐든 나는 지식욕에 번쩍거리는 학생들의 시선을 받으며 교단에 올라설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날의 첫 일과는 좀 다르게 시작되었다. 첫강의준비로 막 강의안을 펼치려는데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내가 생활지도를 담당하던 인책기계과 2학년 학급장이 들어섰다.

《저... 리남동무가 오늘도 새벽강의에 빠졌습니
다.》

《누구라구?》

《김리남동무말입니다.》

학급반장이 전하는 말이, 리남학생이 수학시험을 앞두고 그만 류형성감기에 걸려 누워버렸다는 것이다.

앞아서 결석을 하든 다른 연고로 결석을 하든 리남동무가 보충강의에 빠진다는것은 자못 심각한 문제였다.

(수학강좌의 김준용교원이 수학시험을 앞두고 매일아침 보충강의를 하고있었다.)

한것은 그가 로동생활 6년에 기초적인 지식을 적지않게 잊어버린탓이었던지 입학한지 2년이 지났지만 도무지 실력이 올라가지 못하고 앓은결음을 치고있었기때문이다.

실력이 낮아서만 리남학생에게 관심을 두는것이 아니였다. 힘든 일에 몸을 아끼지 않고 매사에 겸손하고 폐절바른 사람됨됨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주되는 리유인지도 모른다. 열자식을 둔 어머니의 마음도 아들마다 각각이라지 않는가!

보던 강의안을 덮어놓은 나는 20분 남은 강의시간에 늦을가봐 조바심치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단숨에 기숙사호실에 다달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려던 순간 안에서 울려나오는 누구인가의 목소리에 흠칫 멈춰섰다.

《그렇지만 식사를 해야 할게 아니요? 한술만
뜨오. 어서!...》

따뜻한 온정이 속속들이 배여든 간절한 목소리였다.

《먹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어서 가십시오.》

눈물에 젖어든듯한 대답에 뒤이어 다시금 이어지는 따뜻한 목소리.

《자, 한술만 뜨자구. 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한 감정으로 정화시켜주고 포근한 안온감에 잠기게 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언젠가 지나가버린 어린시절, 메사구 몇마리에 마음이 유혹되어 비오는 강변에서 반두를 치다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머리말을 지켜있던 어머니의 그 인자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불시에 미쳐온것은 나로서도 어쩔수 없는 마음의충동이였다.

어느 의사인지는 딱히 알수 없으며 학생들의 생활과 가장 가깝게 얹혀져있는 담임교원을 앞질러 찾아온 방문자에게 마음속감사를 느끼며 방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목소리의 임자는 의사가 아니였다.

놀랍게도 수학강좌의 준용선생이, 다른 학부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돌볼 하등의 책임도 의무감도 없는 일반강좌의 선생(나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되였다)이 리남학생의 머리말에 앉아 그에게 숟가락을 쥐여주지 않는가! 환자의 머리말에는 기숙사생활에는 보기 드문, 닭알을 넣어 노랗게 익힌 죽그릇이 김을 물물 올리고있었고 가정의 알뜰한 주부가 담그었을것임에 틀림없는 통종은 불깃한 겨울김치며 갓 찌낸듯한 송어로막마져 갖추어져있어서 귀중한 외아들의 병시중을 드는 가정적인 분위기과 안온함이 고스란히 간직되어있었다.

언젠가 준용선생의 강의시간표를 본적이 있는 나로서는 어떻게 여가를 내였을가 하는 의아한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보다는 이즈음 새벽보충강의까지 하고있는 그가 어떻게 기숙사생활에 보기도 문 환자음식을 마련했을까 하는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의아함도 한 찰나, 초조히 시계를 들여다보면 준용선생이 서둘러 가방을 뒤지더니 잔글씨로 또박또박 박아쓴 종이장들을 꺼내였다. 그는 달아있는 환자의 머리를 식혀줄듯 여직껏 머리우에 얹고있던 손에 그 종이장을 옮겨쥐더니 정이 흐르는 차분한 시선으로 환자를 더듬으며 입을 열었다.

《리남이, 이젠 요즘 진행되는 보충강의요지야. 열이 식거든 보라구. 열이 식거든...》

종이장들이 때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것으로 보아 리남학생을 위해 밤새워 따로 만들었을게 틀림없었지만 준용선생은 그 말을 입에 비치지 않았다. 몇장의 종이를 한톤무게의 중량물처럼 받아들던 리남학생은 물기흐르는 얼굴을 황황히 아래로 떨구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부... 공부를 하겠습니까.》

준용선생도 터져오르는 걱정을 애써 참는듯 한동안 말이 없더니 불그레한 얼굴에 다심한 미소를 그리었다.

《동무의 심정을 모를라구. 그러니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야 시험을 잘 칠게 아닌가. 자, 한술만!...》

《선생님!》

학생실력을 위해 온갖 마음을 송두리채 바쳐가는 교원의 정성, 그 성의에 보답하겠다는 학생의 맑고 깨끗한 마음의 맹세, 전류처럼 맥맥히 흐르는 사제간의 뜨거운 정이 일순간 방안의 공기를 열풍처럼 달구어놓았다.

둘째강의가 끝났을 때 나는 좀 늦은감은 있었지만 준용선생에게 《선손》을 빼앗긴 봉창이라도 하듯 진로소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진찰실에 들어서니 준용선생이 리남학생의 체온이며 식사정도까지를 일일이 설명하고있었다.

나는 가슴속 깊은곳에서 뜨거운것이 솟구쳐오름을 느꼈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 저녁이었다.

년간 참고교재 집필과제를 마무리하느라고 자정이 찍 기울어서야 나는 퇴근길에 올랐다. 탐구의 열정으로 끓어번지던 대학구내가 고요속에 파묻혀있고 방금전까지 반짝거리던 교실의 창문들에도 거뭇한 어둠의 장막이 드리웠다.

철늦은 눈송이가 새까만 하늘공간을 메우며 쉬임없이 내리고있었다. 물기를 빨아들여 부풀대로 부푼 그 눈송이들은 머리우에서 오락가락 아우성치다가 힘이 진한듯 나무가지에 슬며시 내려앉아 흰옷을 입히고있었다.

대학구내길에 들어서던 나는 하얀 눈꽃을 피운 가로수밑에서 사람의 형체를 발견하고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가방을 든것을 봐서는 퇴근길에 오르는 교직원이 분명한데 한자리에 못박힌듯 멈춰서서 움직일줄 모른다.

(누구일까?)

몇발자국 다가가던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준용선생이?)

그렇것이 준용선생이 일하는 수학강좌는 다른 청사에 있었으므로 퇴근길이라면 대학의 후문으로 나가는것이 더 편리했던것이다. 나를 알아본 준용선생은 왜 퇴근이 늦어졌는가 묻고나서 다시금 3호교사쪽으로 눈길을 돌리는것이였다. 언제봐도 불꽃같은 정열이 눈동자의 어데인가에 늘 반짝거리던 청청한 눈은 피곤에 물린듯 실눈을 짓고있었다.

하루 강의만도 힘든 일인데 보충강의까지 하니 피곤인들 오죽하겠는가.

《갑시다!》

《먼저 가시오!》

《기다리는 사람이 있소?》

《.....》

준용선생은 대답이 없었다.

몇걸음 옮겨졌던 나는 아무래도 안된 생각이 들어 다시금 돌아섰다.

모자우에 수북이 쌓인 눈발이며 깊은 사색의 자취가 력연한 발치에 무수히 찍혀진 발자국을 의아쩍게 바라보며 물었다.

《도대체 누굴 기다리오?》

준용선생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룡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소리를 했다.

《저 불빛을 기다리오...》

《불빛이라니?》

그가 가리키는대로 3호교사의 5층을 바라보던 나는 그제서야 한 교실에 아직도 불이 켜져있는것을 보았다. 그것은 인쇄기계 2학년교실이였다. 그런즉 내가 생활지도를 담당한 학급의 학생들과 무슨 연고가 있음직한데 아직은 딱히 알수 없었다. 그는 나의 얼굴에 후더운 입김을 끼었으며 속삭이듯 말하였다.

《거기 교실에서 리남동무가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소. 래일 수학추후시험이 있기에...》

《?》

그제서야 나는 며칠전에 학부지도원이 추후시험날자를 대주던것이 문득 떠올랐다. (리남학생은 류행성감시로 추후시험을 치기로 했었다.)

《성적이 높아야 할텐데...》

준용선생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간절한 마음이 담긴 눈빛으로 다시금 불빛 흐르는 창문을 바라보는것이였다.

(그러니 누굴 기다리는것이 아니었구나!)

잠시후 기껏 용단을 내려 말한다는것이 나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올라가 볼가요?》

《아니요. 설명을 하리만큼 했소. 이제는 자기 머리로 사고해야 하오. 지나친 간섭은 학생들의 창조적지혜를 오히려 마비시키지요. 문답식학습방법

을 받아들인것도 결국은 독경식학습을 버리고 창조적사고를 발양시키자는것이 아니겠소?)

《아, 그렇지!》

나는 최방망이로 얻어맞은듯 머리가 뻥하여 나로서도 알지 못한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눈길을 떨구었다,

바로 그것이였다.

나에게 있어서는 학생들이 밤새워 공부하든 시험을 언제 치든 상관할바가 아니였다. 시험장에서 답변을 잘하면 높은 점수를 줄것ियो, 그렇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줄것이였다. 하기에 나는 눈내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교원의 본분마저도 빼앗겼고 학부지도원이 알려주던 시험날자까지 깡그리 잊어버리고 교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마저 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준용선생은?

지금 불빛흐르는 창가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그를 바라볼 때 그것은 단순한 미거가 아니라는것을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아직 준용선생을 다 알지 못하고 있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교원들이 제자들의 과학탐구의 갈피갈피마다에 속속들이 부어넣은 땀방울, 그것은 미구에 거세찬 흐름이 되어 조국을 떠메고 나아가는 견인력으로 될것이다.

리남학생의 추후시험은 계획대로 이튿날 오후에 진행되였다.

머리를 반듯이 빗어넘기고 밤색넥타이를 단정히 매고있는 준용선생이 시험관석에 앉아있었다. 나는 생활지도교원으로 옆에 자리를 잡았다. 지는 해의 마지막 빛이 창가에 다가들어 오색무늬를 그려놓더니 그것도 부족하여 방안에까지 기여들어 원탁우의 어항단지에도 붉은 색깔을 칠해놓았다.

준용선생은 자연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색깔따위에는 안중에 없는듯 날카롭고 모진 눈길을 리남학생의 답안지우에 창끝처럼 찌르고있었다.

리남학생이 시험을 잘 치면 나 자신은 생활지도교원으로 몇몇할것이고 준용선생은 또 그대로 문답식교수방법의 결과가 좋은 성적을 준다는것을 실증하는것으로 될것이였다. 숨막히게 지루한 한 초한초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리남학생이 앞으로 걸어나왔다. 답안지를 보는 순간 나는 안도의 모두숨을 후하고 내뿜었다. 나 자신 수학교원이 아니어서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제기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명되어있다는것을 알수 있었기때문이다.

(괜찮아! 잘되면 우등쫌은...)

그런데 다음순간, 준용선생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들릴듯말듯한 신음소리가 나의 흐뭇하던 기분을 잡쳐놓고말았다. 그는 침착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몇가지 질문은 제기하였다.

리남학생의 답변은 논리성이 없이 왔다갔다하더니 종내 문제의 본질을 때리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딱 멈춰서고말았다,

《후!》

나는 목단추를 풀었다.

드디어 질문이 끝나고 붉은 색연필을 뽀족하게 깎아들고 필답과 구답 답안지를 훑어나가는 준용선생의 얼굴은 차갑고 지어는 파릿한 랭기까지 떠돌았다.

리남학생의 성적은 기대했던바와는 너무도 어그러지는 점수였다.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교편을 잡은 지난 10년세월을 더듬어보건대 나 자신 술한 학생들의 성적표에 점수를 매겼지만 이때처럼 서운했던적은 있는것 같지 않았다...

시험이 끝났다.

갑자기 뿔뿔해지고 싸늘해진듯한 방안에서 우리는 말한마디 없이 그대로 앉아있었다. 방안으로 간신히 새어들던 노을빛마저 창문너머 어데인가 숨어버리고 방안은 저으기 어두워졌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준용선생? 너무...》

《어찌겠소. 본질을 모르는걸...》

《어떻게 좀 해볼수 ...본인의 노력을 참작해서 말이요.》

준용선생은 생전처음 보는 사람처럼 나를 지켜보더니 《담배나 한대 주시오.》 하며 담배팩을 끌어당겼다.

《허!》

나는 입을 찹 다시고나서 자리를 일었다.

그리하여 내가 담임한 학급은 우등, 최우등학급이 못되였다.

그날저녁 유보도를 벗어나 공원으로 들어서던 나는 무리등밀에서 거닐고있는 한사람을 발견하였다. 상념에 잠겨 담배를 빨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그는 다름아닌 준용선생이였다.

어찌하여 보통강쪽에 집이 있는 그가 한밤중에 이 공원에 들어섰는지, 마지막빠스일지도 모르는 《송팔행》 빠스가 방금 정류소에 들어섰는데도 떠날념을 앓는지...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한것이였다. 그것은 교원이기때문에 한 학생의 학과실력을 두고 생각에 잠긴것이 아닌가. 나는 말없이 그의 등뒤로 다가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머리우에서는 총총히 박힌 무리등이 우리 두사람사이에 오고가는 이야기를 엿들으며 깜빡깜빡조을고있었다.

《리남학생에 대한 생각인가요? 점수가 너무...》

준용선생은 담배연기를 연거퍼 들이빨며 안타깝게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올려주는거야 간단하지요. 그러면 학생도 좋아할거구, 어찌보면 내 마음도 가벼워질수 있지요...》

《그런데?!》

한결음한결음 옮겨딛는 걸음이 우리를 나무가 무성한곳으로 이끌어갔다. 준용선생은 가로수에 등을 기대고 실눈을 짓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민족의 장래운명과 혁명의 전도는 미래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교육사업을 잘하여 후대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능력있는 민족간부로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나는...》

준용선생은 목이 메이는듯 말문이 막혀 떠듬거렸다. 갑자기 비쳐오는 자동차의 전조등불빛이 굳어진듯한 준용선생의 얼굴을 환히 비치였다. 그 순간 나는 준용선생의 얼굴에서 수심어린 빛을 보았다.

《얼마전에 현실자료연구때문에 공장에 나갔다가 내가 배워주어 졸업시킨 제자를 만났던 일이 있지요. 학생때 성적은 현재 리남동무와 별로 다를바 없었지만 사로청사업에도 열성이 있고 일도 잘하는 동무여서 두루두루 생각하다가 보통으로 통과시켰지요. 그것으로써 그에 대한 학습지도는 중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는 사회에 진출하여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맡아하면서 실력의 부족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는 나와 만났을 때 내 손을 부여잡고 《선생님 저는 그때의 성적이 진짜 나의 실력인줄만 알았습니다.》 하고 말하던것을 지금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선생!우리 교원들이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는 단순한 시험성적이 아니라 그들이 안아올 조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

나의 가슴은 높뛰는 숨결로 하여 세차게 들먹이였다. 준용선생과 나 사이는 불과 한결음, 그러나 준용선생은 얼마나 참된 교육자인가? 교원은 직업이 아니라 혁명가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간직한 준용선생이 돋우보였다. 나는 격동을 억제할수 없어 준용선생의 손을 덥석 그러쥐었다.

《준용선생!!》

그의 뜨거운 심장의 체온이 그대로 손을 거쳐 나의 온몸에 흘러드는것 같았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 뒤말을 잊지 못한채 그의 손을 오래오래 흔들었다.

× ×

지금 우리 교육자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보고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동시에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가고있다.

그리하여 온 사회의 지식인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더한층 발전시켜 모든 학생이 최우등, 최우등학급운동을 벌리고있다. 그후의 이야기는 구태여 하지 않으려다.

누구든지 오늘의 우리 주인공들의 면모를 직접 보고싶거든랑 김책공업대학 3호교사를 찾으시라. 좋기는 시간을 내어 교수참관을 해보시라. 그러면 모든것을 알테이니...